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76 1982년 11월 10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Wednesday, November 10,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 M5S 1A5
NOV 11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메트로 총선거

고든·청 시의원 참패

이글튼시장 최고지지율 기록

잉호프 재선, 유일한 동양계

8일 실시된 메트로·토론토내 6개 시 총선거에서 욕과 이스트·욕을 제외한 4개 시의 시장이 재선됐다.

메트로·토론토 전체 유권자의 34.4%만이 참가한 이날의 선거에서 욕·보로에서는 게일·크리스티 현 시장을 누르고 국민학교 교사이며 정계 신참인 앨런·통크스가 시장에 당선됐고, 이스트·욕에서는 신인 데이빗·존슨(36)이 선출됐다.

아트·이글튼 토론토시장은 74.7%의 지지를 얻어 지금까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토론토시장이 됐고 이토비콕의 데니스·플린, 스카보로의 거스·해리스(74세), 노스·욕의 멜·래스트맨등 현직 시장도 무난히 재선됐다.

시총선 결과에 가장 실망한 사람의 하나는 중국계인 제6지역의 고든·청. 그는 현직 시의원으로 매스·미디어에 비교적 많이 오르내린 후보였음에도 불구, 강적인 전 토론토 시장 존·스월과 스월의 신민당계가 밀어준 신인 잭·레이튼에 밀려 시정에서 물러나게 됐다.

같은 중국계인 토론토 제5지역의 잉·호프는 무난히 당선, 유일한 동양계 시의원으로 남게 됐다.

앞으로 3년간 메트로 전체를 다스리는 메트로 의회(Metro Council)의 자동멤버가 되는 각 지역(Ward)의 최고 득표 시의원(Senior Alderman)의 출신성분이 지난 2년간에 비해 별차이가 없어 오는 12월14일에 있을 메트로 의회 의장선거에서는 현의장 폴·갓프리가 재선될 가능성이 크다.

메트로의회 의석은 토론토시 12명, 노스·욕 10명, 욕 3명, 스카보로 7명, 이스트·욕 2명, 이토비콕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력한 신민상 아성을 지켜오던 토론토 제9지역에서는 시정사상 최연소 시의원이 탄생했다. 토론토대학 출신인 23살 톰·자코베은 신민당계인 신인 피터·해리스를 누른 것은 물론 현직인 도로시·토마스를 앞질러 최고득표 시의원으로서 메트로의회의 의석을 확보했다.

토론토 제3지역에서 이탤리언 조·피시니니는 신민당계인 리차드·길버트에 최고득표를 뺏겼다.

총 57명의 여성후보자들중 19명이 당선됐으며, 현직에서 물러나게 된 시정치인으로는 노스·욕의 노만·가드너, 이토비콕의 메이빗·베이시등 2명의 재정관(Controller)과 토론토의 메이빗·화이트, 노스·욕의 패드·오닐, 이토비콕의 메이빗·샌드포드, 욕·보로의 패트릭·캐나반, 로날드·브라드, 토니·만다라노등 6명의 시의원이다.

또한 이번 총선날 실시된 핵무기 감축에 관한 토론토시민의 견해를 묻는 투표에서는 75%가 감축에 지지를 보였다.

새로 당선된 인사들은 오는 12월1일부터 3년간 시를 다스리게 된다.

〈재선된 시장〉 〈새로 선출된 시장〉

◆토론토의 아트·이글튼 (좌상)
◆이토비콕의 데니스·플린 (우상)
◆노스·욕의 멜·래스트맨 (좌하)
◆스카보로의 거스·해리스 (우하)

◆욕의 앨런·통크스
◆이스트·욕의 데이빗·존슨
◆최연소 시의원인 23살 자코베.
◆유일한 동양계 시의원 잉·호프.

문화인의 반려자. 한국일보·533-2361

문화원 방화사건 항소심

장순철 5년6개월 선고

(서울9일=연합)9일 서울고등법원은 80년 12월에 발생한 광주미국문화원 방화사건과 관련,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언도받은 전 고려대학교 학생 박계동(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하여 1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방화사건으로 기소된 장순철씨에게는 지방법원의 판결과 변동없이 5년6개월의 징역형을 언도했다.

◆시의원으로 당선이 확정된 후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토론토 제5지역의 존·스월(왼) 파 잭·레이톤.

◆탈락의 쓴잔을 마신 고든·청. 그는 앞으로 주나 연방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것임을 비쳤다.

트루도 프랑스 방문

정치·경제 개선이 목적

(릴르-프랑스)3일간의 공식방문차 프랑스에 도착한 피에트·트루도수상은 프랑스 피에트·마우리수상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공항 영접식장에서 마우리수상은 퀘벡파의 문제 때문에 약간 소원해졌던 양국관계를 놓고 "우리는 퀘벡 뿐아니라 캐나다 전체와의 관계개선을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트루도 수상은 이에 대해 "퀘벡주민도 캐나다인이며 우리는 프랑스가 퀘벡파 특수관계를 떠나 캐나다연방 속의 퀘벡으로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루도수상의 프랑스 방문목적은 정치적, 경제적 양면에서의 관계개선에 있다. 캐나다는 프랑스가 퀘벡파의 특수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캐나다의 연방제를 이해시켜 캐나다 전체와의 관계개선을 원하고 있다.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양국간의 교역량은 지난 10여년간 크게 부진, 현재 양국교역량이 캐나다와 벨지움 간의 교역량보다 적은 실정이다.

트루도수상은 미테랑대통령과 회담을 가진후 프랑스방문을 마치고 2일간의 공식방문을 위해 서독으로 향발한다. 트루도수상은 5일간의 유럽방문을 위해 7일밤 오타와를 떠났다.

대학생13만여명 휴학

8월말 현재, 97개대학 대상

(서울=연합)금년 8월말 현재 전국 97개 대학교에서 13만7백25명의 대학생이 휴학했다.

문교부가 28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3만7백25명은 대학 총 등록자수의 21.6%에 해당하는 것인데 휴학이후로는 군입대가 가장 많고 기타는 경제문제, 병관계 등이다.

소수민족 교회증가

연합교단

캐나다의 개신교중 가장 많은 교회를 보유하고 있는 연합교단의 소수민족 교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소수민족교회들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연합교단의 하워드·브룩 목사는 "우리는 소수민족그룹의 특성에 맞추어 자유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교단에는 한인교회도 7-8개 가입되어 있다.

외 환 시 세

(서울=연합)9일 외환은행이 고시한 캐나디안및 미국달러의 전신환 매입·매도율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달러 609.57/612.63
미국달러 743.60/747.40

캐나다 실업률 12.7%

9월보다 증가, 대공황이후 최악

(오타와)10월중 캐나다의 실업자 수가 138만8천명으로 늘어 실업율이 1930년대 세계대공황이후 가장 높은 12.7%로 치솟았다고 캐나다통계국(Statistics Canada)이 발표했다.

이로서 캐나다의 고용율이 14개월째 계속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9월의 실업자수는 134만3천명에 실업율은 12.2%를 기록했다.

지난 10월의 총고용인 수는 1,051만7천명으로 1년전보다 우려 47만6천명이 줄어들었다.

산업별로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은 부문은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등으로 나타났다.

주별로는 뉴파운드렌드가 실업율이 가장 높아 19.2%를 기록했으며 퀘벡 15.4%, 노바·스코시아 13.5%, 온타리오 11.7%, 마니토바 9.6%, 알버타 9.1%, 브리티시·콜롬비아 14.2%, 프리스·에드워드·아일랜드 12.7%, 뉴·부룬스위크 14.8%, 사스카추완 6.7%등으로 발표됐다.

	Oct. 1982	Sept. 1982	Oct. 1981
CANADA			
Labor force	11,905	11,887	11,883
Employed	10,517	10,544	10,993
Unemployed	1,388	1,343	891
NEWFOUNDLAND			
Labor force	222	225	218
Employed	182	187	185
Unemployed	40	38	33
PRINCE EDWARD ISLAND			
Labor force	54	54	54
Employed	48	48	49
Unemployed	6	6	5
NOVA SCOTIA			
Labor force	373	374	365
Employed	326	328	328
Unemployed	47	46	37
NEW BRUNSWICK			
Labor force	296	301	303
Employed	257	261	269
Unemployed	40	39	34
QUEBEC			
Labor force	2,968	2,959	3,006
Employed	2,547	2,548	2,685
Unemployed	422	411	320
ONTARIO			
Labor force	4,511	4,498	4,502
Employed	4,025	4,037	4,220
Unemployed	486	461	283
MANITOBA			
Labor force	500	502	492
Employed	457	459	466
Unemployed	44	43	25
SASKATCHEWAN			
Labor force	466	467	451
Employed	438	439	432
Unemployed	28	28	18
ALBERTA			
Labor force	1,166	1,170	1,141
Employed	1,069	1,072	1,101
Unemployed	97	98	40
BRITISH COLUMBIA			
Labor force	1,347	1,336	1,351
Employed	1,168	1,165	1,257
Unemployed	178	171	94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란콤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오늘의 예금금리(10.19부터)

기 간	한인신용조합 일반정기예금	한인신용조합 오투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1.5%		10.25%
90일	12%		10.75%
180일	12%	11.75%	10.75%
365일	12%	11.75%	10.75%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은 ...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SUNLIFE
백 용 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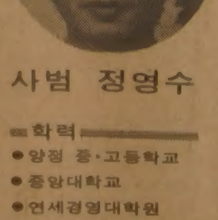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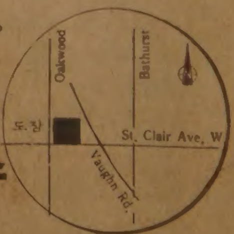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특별할인봉사>
모국 방문단 월 1회 단체출발
11월21일
12월26일
신세계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NEW WORLD TRAVEL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 · 2156
R) 492-7525 김 창 범

정영수태권도 아카데미

— 546A ST. CLAIR AVE. W.
TORONTO
☎ : 652-0000
지관 : 463 TALBOT ST.
ST. THOMAS, ONT.
사범 정영수
학력
●양정 중·고등학교
●중앙대학교
●연세경영대학원
●8세에 태권도 입문
●해군 해병태권도 대표선수〈한국최강팀〉
●전국체전, 최우수 선수선발등.
전국규모 시합다수입상.
●중앙대학교 사범
●은광여고 사범
태권사범 현각 정 영 수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시민권자가 해외이주할 경우
연금혜택은 계속 되는가

오랫동안 캐나다에 살던 시민권자가 외국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연금은 어떻게 되며, 집을 팔은 돈에 대한 세금등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8일 토론토·스타지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가옥판매대금은 비과세이며, 또한 외환통제도 없기 때문에가옥판매 대금을 모두 갖고 출국할 수 있다. 다만 밀려있는 소득세는 출국전에 환불해야 한다.

연금은 출국하기 전 거주지에서 가까운 노인연금사무소에 연락, 자신의 연금에 대해 체크를 해두어야 한다.

노인연금규정에 따르면 노인연금의 해당연령인 65세가 될때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으면 캐나다 노인연금 전액을 지불받을 자격이 없고, 다만 부분적인 혜택만 받게 된다.

18세 이후 캐나다에 24년간 거주했다면 최고 연금액의 24/40를 받게 되며 자격연령인 65세가 되면 이 돈이 외국으로 보내질 수 있다.

플로리다 부동산전문
교민6명 소개업 시작

토론토의 교포청년들이 힘을 모아 미국 플로리다의 토지및 건물(신축) 소개업체인 상록회사를 차렸다.

건설회사 Spring Wood Properties Inc.(3461 Dixi Rd. Missi. Suite 503)의 대리업자(Agent)인 상록회사는 지난 5월 이영웅·장복성·조규열·김동천·안영웅·권용철등 6명의 교포들이 발족시켰다.

상록회사가 소개하는 플로리다의 토지및 신축건물은 멜파공항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택의 경우 땅값 포함 2베드룸 방갈로에 미화 2만9천달러부터 시설에 따라 4만8천달러까지 있다.

스페셜·오퍼 – 11월15일까지는 $2만6천500.

각집에 일광욕실이 있고, 한 구역에 골프장 2개, 플라자 안에 은행, 각종가게, 학교도 설립된다.

재산에 여유있는 이들이 사서 별장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건설회사에 관리를 맡겨 모텔로 사용, 물게지를 물 수도 있다고 상록회사측은 말한다.

매입 희망자는 회사가 1인당 $240(2박3일 – 항공료·숙박)로 단체 현지답사를 주선, 안내한다.

계약자는 20%의 보증금을 입금, 미국은행의 융자도 주선해준다.

연주날자는 13일
한인 오케스트라

한인 오케스트라의 제5회 정기공연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영대씨와의 협연 티켓중 일부에 연주날자가 잘못 표기돼 혼란을 빚고 있다.

8일 교향악단의 윤호섭씨는 연주일자는 13일 토요일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일부 14일(일)로 알고있는 교민들의 주의를 환기 시켰다.

김승순지휘의 이번공연에서 박영대씨는 브루흐의 바이올린협주곡 1번을 선사한다.

티켓은 연주회장인 라디어슨극장(43 Gerrard St. E.)에서 살 수도 있다. 연주는 오후8시정각 시작된다.

풍문여고동창회 발족
회장에 조남정씨

풍문여고 동창회 창립총회가 지난 6일 12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동창모임에서 회원들은 회장에 조남정(5회), 부회장에 천영자(11회), 총무에 고명희(15회) 제씨를 각각 선출하고 망년회, 신년축하 파티및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해밀턴실업인협회
17일 정기총회

(해밀턴)해밀턴실업인협회(회장 조용구)는 오는 17일(수) 밤 11시 칼톤·태번(오송탁)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2대 회장선거등 안건을 처리한다.

해밀턴실협은 82년초 발족했다.

이대동창회
27일 성탄파티

이화여대동창회의 성탄축하파티가 오는 27일(토) 하오6시반 "The Ports"(1145 Yonge St.) 로즈·데일룸에서 열린다.

회비는 커플당 $45, 싱글 $25.

연락은 신임 이주연(63년 성악과 졸)회장 279–1029나 공영희(71년 생미과 졸)총무 698–3778로 하면된다.

이대동창회는 지난 9월 가진 총회에서 임원을 개선하고, 동창회비를 연 $20에서 $15로 내리기로 결의했다.

〈초보자를 위한 스키상식〉③
스키구입 요령

박경택(스키협회 회장)

(2) 스키 목판(Ski Panel)

스키목판은 스킹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이 약간이라도 휘었으면(Propeller)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스키를 선택할때는 나무의 질, 길이, 중량, 탄력성, 밸런스, 형태등을 고려하여 자기가 사용할 용도에 따라서 구입한다.

스키가 짧고 탄성이 유연할때는 완사면에서는 타기 편리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높은데 올라서 길게 내려오면 스피드가 있어서 짧고 가벼운 스키는 배런스(Balance)도 불안하고 몸에 충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피로가 빨리온다.

★가. 스키의 길이

스키의 길이를 덮어놓고 길게 사용하거나 짧게 사용하는것은 좋지 않다.

최근에는 기술정도에 따라 길이를 조절하여 사용하는 G.C.M.(Graduated Length Method) 방법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스키 길이는 기술이 향상되는데 따라 키보다 다소 짧은데서 차츰 긴것을 사용한다. 초보자는 자기 키보다 5Cm정도 적거나 자기키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스키의 길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논쟁거리 이기도하다.

★나. 스키 탄력성(Flexihility)

스키의 탄성은 스키기술을 배우는데는 대단히 중요하다. 스키밴드가 딱딱하면 체중이 가벼운 사람은 스키회전이 잘 안되고 힘만 든다. 또한 변화가 심한 Slope에서는 적응력이 약하다.

그래서 체중과 스키실력을 고려하여 탄성을 테스트한다. 탄성 테스트는 스키콤·벤드를 왼손으로 잡고 아취벤드부분(Archbend)을 우측 손바닥으로 여러번 눌러서 감각으로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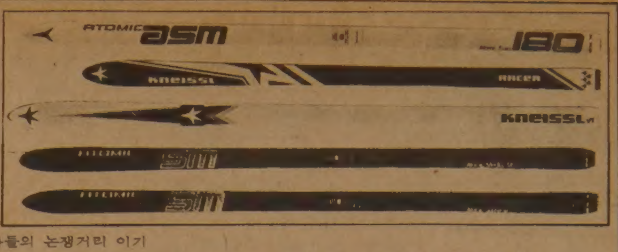
초보자는 탄성이 유연한 것이 좋다. 체중이 무거운 사람은 다소 딱딱한 것을 사용한다.

★다. 스키 중량

스키의 중량은 동작에 영향을 미친다.

체중이 가볍거나 체력이 약한 사람이 과도하게 무거운 스키를 사용하면 피로가 빨리 올 뿐이다.

스키 배런스는 길이와 무게, 그리고 탄력도가 조화 되어야 한다. 〈계속〉



초보자는 약간 짧은것
탄력성·중량 고려해야

중공인구 10억 돌파

중공 인구수가 10억을 돌파했다.

지난 7월 총 5백10만명의 조사원을 동원 4개월동안 실시한 인구조사 결과 중공의 현재 인구는 10억8백17만5천2백88명으로 최종집계됐는데 이는 현재 45억으로 추정되고 있는 세계인구의 1/4에 해당한다. 매2초마다 2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중공은 이번 인구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방송, 가두선전, 표어제정등 동원할수 있는 모든 홍보시설을 이용, 조사원의 물음에 정확히 답변해 줄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는데 중공인구는 1964년 인구조사가 마지막으로 실시된 이후 18년동안 3억1천3백만명의 인구가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이번에 집계된 인구수에는 2천3백70만명의 대만및 홍콩, 마카오 인구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를 포함할 경우 중공인구는 10억3천1백8십8만2천5백11명으로 늘어난다.

중공은 한때 모택동 지침에 따라 인구장려 정책을 실시, 연인구 성장률이 25%에 육박했었으나 등소평이 실권을 장악한 후에는 누적된 주택및 식량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산아제한 정책을 채택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중공은 인구억제책의 일환으로 결혼연령을 남자 30세, 여자 28세로 늦추는등 적극적인 인구조절 정책을 실시, 인구증가율은 1.4%라는 낮은 기록을 보였다.

신화사통신은 이번 인구조사 결과에 만족을 표시하면서 그동안 펼친 홍보활동결과 중공은 역사상 가장 정확한 인구통계를 얻었다고 밝히면서 오차가 있더라도 1백50만명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복 개인전
동양화32·서예6점

운파·이정복(75세)옹의 동양화 개인전이 오는 26일부터 4일까지, 웨이사이드화랑(9185 Yonge St.)에서 열린다.

전문적 동양화가는 아니나 관직생활과 은퇴 후에 틈틈이 그림을 그려온 이옹은 지난 4월 토론토에 이민, 그 첫번째 개인전을 가진다.

서울에서도 두세번 작품전 경력이 있는 이옹은 이번 전시회에는 자신의 작품 동양화 32점과 서예 5~6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중에는 나이아가라등 캐나다 전경을 동양화 터치로 그려낸 5~6점도 포함된다.

평소에 운보·김기창 화백의 화풍을 좋아했다는 이옹은 젊었을 때는 부모의 만류로 좋아하는 그림을 못하고, 농업을 전공한 후 관직에 몸담았다고 전했다.

이 전시회는 출신교인 서울농대와 경기고교 동창회의 협찬을 받고 있으며 이 전시회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중 일부는 한인회관 건립기금에 보태질 예정이다.

토론토 교포 김대일(사위)씨의 초청으로 캐나다로 이민온 이옹은 전 한인회장 김문량씨와는 사돈간이다.

오는 26일 오프닝데이에는 저녁 7시부터 간단한 다과회가 있을 예정이다.

◆그림 「남한산성」 옆에 선 동양화가 이정복옹.

제5계절
받는 덕

조정대(문협회장)

◆조정대씨

용서는 사람에서 비롯되는 착하고 밝은 마음의 표현이다.

이는 베풀기도 어렵지만 고맙게 기쁜 마음으로 받는 것이 더욱 차원 높은 덕인지 모르겠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을 도울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고, 부처님께서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라 하여 베풀되 주었다는 생각마저도 없어야 함을 강조하심을 짐작해 보면 참사람을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조금은 알 것도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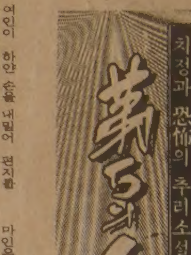
세상을 사노라면 용서할 일보다 용서받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적어도 나 같은 사람에게는 말이다. 부족한 수양에 성질까지 다혈질이라, 때로는 언행이 앞서는 못난이고 보면 돌아와 자리에 누울 때마다 용서받을 부끄러운 일들이 왜 그렇게도 많은지. 지난날 멀리 돌아보지 않아도 매양 후회스럽고 반성해야 할 일 투성이니 가슴 아픈 일이다.

베풀어 즐겁고, 받아서 고마운 인간만이 갖는 덕망의 바탕인 용서는 곧 사랑일진저! 하는 일마다 용서받을 일로 가득 차있는 나는 실로 용서의 근원인 사랑이 무던히도 메말라 있는 까닭일까.

내 스스로 저질러 놓은 잘못으로 하여 받게 되는 용서의 고마움을 "받는 덕(德)"으로나마 부지런히 키우다 보면 어느날 나도 철들어 남들같이 이웃 용서할 수 있는 살맛 나는 그날이 오게 될지 누가 또 아나.

불실과 불확실성의 세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들일수록 사랑과 관용으로 용서 베풀고, 기쁘고 고마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수한 정(情) 나눔 속에 서로가 화해하는 용서의 미덕을 몸으로 익힐 때 우리 주위는 더욱 푸르고 희망 차리라 믿어 본다.

金聖鍾作



<105>

29분의 1 ⑩
馬형사는 드디어 박문자와 만나…

여인이 하얀 손을 내밀어 편지를 받아 들었다.

『우리 철민이 한테 온 편지네. 어머, 이 애가 어떻게 주소를 알았지.』

여인은 당황하며 중얼거리다가 경비실 구석에 앉아있는 젊은 사나이와 시선이 마주 쳤다. 마인은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인이 먼저 시선을 거두었다.

『우리집에 찾아온 사람 없었지요.』

『네……』

경비원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그리고 곁눈질로 마인을 쳐다보았다. 여인의 눈이 재빨리 마인의 모습을 훑었다. 마형사는 담배를 비벼 끄고 일어섰다.

『905호 사모님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여인은 몸을 도사리며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다.

『경찰에서 왔습니다.』

마인은 신분증을 꺼냈다가 도로 집어넣고 경비실에서 나왔다.

『무, 무슨 일로 그러시는가요?』

여인의 얼굴이 유난히도 희게 변하는 것 같았다. 불빛 때문이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아, 뭣좀 알아볼게 있어서 그럽니다. 아까 댁에 들렀더니 안 계시더군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사실은 한선생님을 먼저 만나뵙고 싶은데 늦으시는 모양이지요?』

『네, 그이는 매일 늦게 들어오서요. 그런데 무얼 알아보실려고 그러시는 가요?』

찬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할퀴고 지나갔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안으로 좀 들어 가실까요?』

『네, 그러시죠.』

朴 男 그림

그녀는서슴없이앞장서서걸어갔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소년이 뛰어와 엄마품에 안기려다가 마형사를 보고는 주춤했다.

『아저씨, 또 왔다.』

마인이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으려고하자소년은뒷걸음질로도망갔다. 박문자는 아들을 데리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저 아저씨가 나한테 막 물었어.』

소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문자는 코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편지를 만지작 거렸다. 그러나 꺼내놓지는 않았다.

『뭐라고 물던?』

그녀는낮은소리로숨가쁘게물었다.

『그림을 보이면서 어떤 키큰 아저씨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어.』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어.』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년은 더욱 놀라운듯 했다.

『다른 그림도 보여줬는데 그건 삼촌하고 닮았어.』

『그래서?삼촌이라고 그랬니?』

『아, 아니, 모른다고 했어.』

『그래, 잘 했다. 누가 물으면 무조건 모른다고해야한다. 알았지?』

『왜?』

아들은 의혹에 찬 눈으로 엄마를 바라 보았다. 앞에 서있는 엄마는 지금까지 보아온 그런 따뜻한 엄마가 아니었다. 창백하게 굳어있는 낯선 얼굴이 거기에 있었다.

보광한약방

확장 이전
개업 안내

○임상경력 30여년 경험으로, 최대봉사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 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B)588-1984
(R)439-6717

627 Bloor St. W. #200
(외환은행 블루어지점 2층)

송계 김남집

휘문
성탄파티

「잘 집의 서울을 눈 아래깔고서 뜻 있는 불재에 힘쓰는 배움들…」 또 다시 저무는 이국의 성탄입니다.
부디 부부동반 하시어 저무는 한해의 회포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때 : 1982년12월4일(토) 오후6시30분
장 소 : 돈밸리 할리데이 인. (돈밸리 하이웨이와 에그링톤)
연락처 : 표봉천회 장(827–5222)
이규용부회장(243–1271)
유승민총 무(532–9581)

휘문동창회
회장 표 봉 천

초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재온타리오 한인 대학생 동창회에서는 한인사회와 지역사회에 좀 더 유익된 모임으로 만들고자 여러 선배님과 교포 여러분을 모시고 대화의 시간(공청회)을 갖고자 합니다.
오셔서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일 시 : 1982년11월20일(토) 오후7시
장 소 : OISE교육회관 2214호 (252 BLOOR ST. W.)
연락처 : 윤주석회장(245–2125)
김신욱부회장(248–1653)
김희체총무(743–0782)
최귀임서기(533–2361)

재온타리오 한인
대학생 동창회 회장 윤 주 석

DeWitt
JEWELS LIMITED

이달의 SPECIAL
1/4 carat Solitaire
Reg. $1000
Special $749

이태리산 Herringbone CHAIN SPECIAL
□16인치 $135
□18인치 $150
□20인치 $165

Assistant Manager
지니·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5분간의 落書

습 성

홍 기 만

연대의식의 표시는 인사다.

사람은 누구나 연대의식을 지니고 있다. 그러기에 아무리 어둡고 뒤진 고장에서 생성(生成)했다 하더라도 그 고장을 찾기 마련이다. 아메리칸 인디언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 묻히기를 원한다. 선조들이 잠든 고향에 묻힐때 비로소 그들의 영혼은 잠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 뿐이랴. 우리의 작곡가 윤이상은 어떻게 쓰고 있다. "나는 내 나라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우리 가족중에 선조들의 흩어진 무덤 위치를 알고 있는 것은 나 밖에 없다.… 한국은 나의 고향이요, 언제까지나 그럴 다. 나는 그 땅에 묻히고 싶다."

나는 이 글을 오래 전부터 쓰고 싶었다. 이민생활이 외로워서가 아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까운 혈육들의 따스함이 그리워서가 아니다. 피부색깔이 다른 인종과의 생활이 지겹고 각박해서 옛벗들과 나누던 그러한 정이 못내 아쉬워서가 아니다.

우리는 북미의 「빌린 땅, 빌린 시간」속에 잠시 삶을 살고 있는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단 고향 혈육등 굵고 뿌리 깊은 그런 연대의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대성 속에 연대성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다. 같은 직장, 같은 건물, 같은 모임, 같은 지역에 잠시 몸을 담그게 될 때도 그나름대로의 연대의식을 갖게 된다.

연대의식의 표시는 인사다.

전형적인 북미인은 인사성이 밝다. 그리고 냉철하다. 냉철하기를 바란다. 냉철해지도록 교육을 받고 자라났다. 냉철한 만큼 합리적이다. 그들의 인사도 합리적이다. 시간을 낭비하는 장황한 인사가 아니다. 가벼운 눈인사다. 누가 먼저도 없다. 거의 동시다.

우리는 어떤가. 인사는 꼭 통성명을 해야 한다. 요란한 직명의 명함이 교환되어야 인사가 된다. 통성명 없이는 늘상 마주치는 사람과도 외면을 한다. 그게 예의인지 모른다. 바로 이것이 한국인의 헛점이다. 한국인이 가져야 할 한국인이라는 연대성의 헛점이다.

◆

성당입구에서 K씨를 만났다. 오랜만이라 반가웠다. K씨는 친지와 함께였다. 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K씨도 나를 보고, 우리는 서로 반가워했다. 공연히 그들을 방해하지 않았나 싶어, 미안한 마음으로 K씨와 담소를 나누고 있던 사람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그는 뒤를 돌아봤다. 몇잎의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다. 자기 뒤에 있는 누군가에 인사를 한 것으로 착각한 모양이었다. 나는 좀 계면쩍었다. 그는 주책스런 사람 다 보았다는 식의 굳은 표정을 지으며 K씨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다. 어쩐지 입안이 떫었다. 미사가 끝난 뒤에도 이 떫은 감정은 쉬 가시지 않았다.

이러한 떫은 감정은 한국인이 비교적 많이 붐비는 도매업소에서의 경우도 매한가지다.

유사한 직종을 가진 같은 한국인이 동일건물 안에서 함께 물품을 구입하고 있으면서도 어쩌다 시선이 부딪치면 씻은 듯 외면을 한다. 인사가 교환될 것같은데 그렇지 않다. 몇초의 짧은 동안 눈길을 머물러 본다. 별뜻없는 호감으로 상대는 눈빛이 달라진다. 달라진 눈빛은 숫제 째리는 눈초리다. 비속한 표현을 빌리면 어깨에 힘을 준다. "어디서 가게를 하는 치야?" 금방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살벌한 시선이다.

한국인은 또한 「권위의식」에 젖어있다. 먼저 인사를 하는 '은 권위의식으로 가득 찬 체면을 손상 시킨다는 상념 속에 어깨에 힘을주고 버티어 보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자라왔다. 그리고 그런 습성에 묻혀 살았다.

한국직장에서 웃사람의 인사가 먼저 걸려오는 것은 흔치 않다. 어쩌다 먼저 걸려오면 몸둘바를 모른다. 황송하다. 죄송스럽기까지 하다. 이곳은 웃사람의 인사가 먼저다. 적어도 그 비율이 높다. 아니면 거의 동시다. 「황송」하거나 「죄송」스러울 것은 조금도 없다. 연대의식의 한 표현이다. 자연스럽다. 「Hi!」라는 짧막한 말을 입에 담기도 한다. 그것 뿐이다. 그러나 서로의 마음은 한결 밝고 부드러워진다.

우리는 이러한 인사교환이 안된다. 습성의 탓만은 아니다.

통성명없이 눈인사라도 던질라치면 으레 이런 말이 뒤따른다. "좀 돈 사람 아냐? 웬 사람이 그리 헤퍼?" 아니면 "지가 언제부터 캐네디안이 됐다구…" 더욱 난처한 이야기다.

솔직히, 우리의 습성으로 안면만 가지고 먼저 인사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늘상 만나는 사람끼리도 항상 먼저 인사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인적없는 한적한 길을 걷다가 낯선 한국인이 서로 지나치며 인사를 나눈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라왔다.

하지만 나는 버려야 할 습성을 버릴 수 있는 한국인이고 싶다. 북미인이 갖는 합리적인 인사의 습성을 익힐 수 있는 한국인이고 싶다. 그리하여 한국인이라는 연대의식을 굳힐 수 있는 한국인이고 싶다.

전형적인 북미인들의 가벼운 인사는 그들의 연대성을 상징한다. 그러기에 잡다한 민족이 모여 독립을 쟁취했고, 그 독립한 나라를 그들은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김장김치 주문환영
해밀톤지점 ☎ : 1-385-1485
서부지점 ☎ : 243-9544

훼미리·닥터 (의사 왕운린)
(B) 968-1543·(R) 363-9196
600 SHERBOURNE ST. #402
월~금: 오전10시~오후7시
토: 오전11시~오후3시

생각만해도 끔찍한 "개스死刑"

"햇빛이 그립다" …이철수씨 告白시리즈 ④

지금 나는 불과 사방 6피트 X 8피트의 독방에서 제2사건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79년 5월14일 제2사건 첫번판결에서 파파스판사가 개스사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당연히 번복될것으로 기대한다.

용률을 즐겨 시청한다.

나에게는 이제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이며 동포들의 따뜻한 동포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따뜻한 인류애가 가슴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어릴적에 많이 들어온 얘기중에 『남자는 울면 안된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그러나 지난 9월3일 밤 몽매에 기다려 온 제1사건 무죄평결이 있은후 퇴정하여 대기실에 돌아와 정말 소리나게 크게 울었다.

나는 지금 아직도 샌퀀틴교도소 독방에서 9년의 분노를 되씹고 있다.

나는 샌프란시스코법정에서 무죄평결을 받고 샌퀀틴교도소에 돌아 오면서 내가슴에 맺힌 응어리들중의 한부분이 풀림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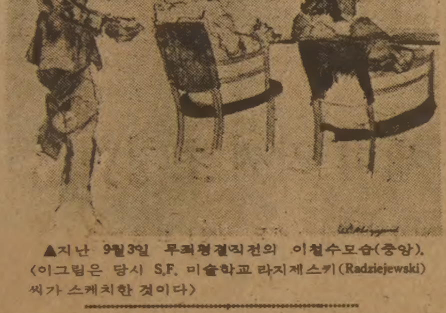
문제는 내가 이제 억울하게 개스사형실에 가는 일은 없을것이라는 점이다. 죽는것만은 확실히 면한것 같다.

티켜 「죽은 사람」(deadman)이라고 부른다.

전에는 개스사형이 집행된 날 이곳 죄수들간에 『죽은 사람의 걸음 소리를 들었다』(deadman walking sound)는 얘기들이 오갔다고 한다.

샌퀀틴 개스사형실에서 최근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은 1967년의 아아론·미첼인것으로 알려져있다.

사형되는 장면은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지난 9월3일 무죄평결직전의 이철수모습(중앙). 〈이그림은 당시 S.F. 미술학교 라지제스키(Radziejewski)씨가 스케치한 것이다〉

—사형수의 발걸음은 양편간수의 부축을 받으며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개스실의 문이 열리고 두개의 의자가 있는 방안으로 죄수는 들어선다.

여기까지 들어오면 주지사의 사형집행정지명령을 알리는 전화소리도 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외부와 차단된채 개스를 마시고 숨을 거둔다.—

처음 이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그저 멍하니

"無罪"評決이후 하나의 응어리는 풀리고 속칭"죽은사람"은 면한것같은 確信이…

왜냐하면 사형선고의 바탕으로 제1사건 유죄를 주요 근거로 했는데 이번에 무죄가 됐으니 바로 유죄증거가 소멸된것이 아닌가.

내방에는 지난79년에 후원회에서 보내준 12인치 소니TV가 한대있다.

내가 즐겨보는 프로로는 수사물중에서 무고한 죄인의 억울함이 벗겨지는 작품등을 들 수있다.

특히 다큐멘타리작품중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내

내가 속해있는 유니트—1과 「노스블럭」의 건물모퉁이에 붙어 있는 개스사형실의 존재가 항상 내마음을 무겁게 해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개스 사형실 이야기를 쓸 정도로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나는 지난79년 5월 개스사형선고를 받고 샌퀀틴에 이감되어온 어느날 동료죄수로 부터 개스사형실에 관해 처음으로 들었다.

이곳에서는 사형수를 가

들고만 있었다.

그러나 속으로 『만약에 나의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면 나도 아아론처럼 되겠지』라고 두려워 한 것만은 사실이다.

한가지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이곳 샌퀀틴교도소에 오기전에 이미 나는 79년 1월19일 로렌스·칼톤판사로 부터 인신구속재심판결(헤비어스·코퍼스)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속〉

내몸매가 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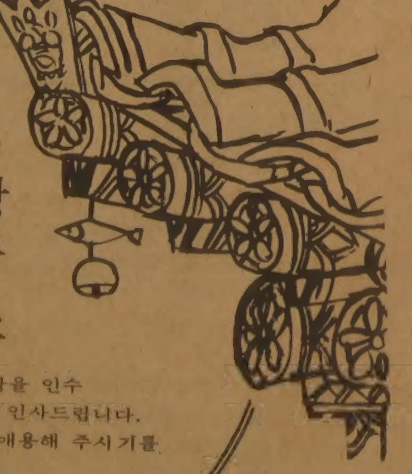
▲날씬한 몸매 컨테스트에 나온 허더·토마스양— THE FALL GUY에 출연한 허더가 아름다운 몸매를 자랑·—이번 고운피부·섹시한 곡선미의 남성과 여성심사에는 잭라레인·베버리 세손·존몬타나·크리스티나드로인등이 나왔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병헌

한대의 기계로 한글과 영문을 마음대로 칠수있는
공병우 한영 타자기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있어 경제적이며 활자가 아름다워 사무용(특히 교회주보용)으로 최적입니다.
○1분 설명듣고 5분간 연습으로 누구나 한글을 칠 수 있읍니다.
○어린이들 한글공부에 취미가 생기고 한글을 익히며 한국인의 긍지를 심어줄 것입니다.
○가정에서 쓰시기에도 적합하며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쌍초점타자기 발명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발명특허(1950년)
◇속도 한글타자기의 발명으로 대통령상 수상(1958년)
◇고성능 한글타자기 발명으로 의술문화상 수상(1974년)
캐나다 총 대리점
연락처 : 245—0995 김영수

새로운 MANAGEMENT
고향의 맛
식당 서울 하우스



금번 새로 서울식당을 인수 받아 교민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과거와 같이 계속 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요일도 영업합니다
주7일 Open
12시부터 새벽1시까지
615 BLOOR ST. W.
532-0602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현재 주류면허 신청중.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 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검안 해 줍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St. Charles Promenade(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블루아×영 남쪽)

江南 過熱投機지역 아파트
오늘부터 稅務조사
轉賣·賃貸땐 양도세 重課

開浦·蠶室·대치·瑞草·압구정동 (81년10월 이후분양)

정부는 서울 江南일부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과열투기를 규제하기위한 1단계조치로 6일부터 아파트 분양당첨자와 실제 입주자를 대조, 전매·임대행위등을 가려내는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를위해 경제기획원은 서울시에서 조사한 투기지역아파트 입주자들의 洞籍부와 건설부가 住公을 통해 조사한 아파트당첨자명단, 국세청이 조사한 투기지역 간아파트당첨자명단을 취합, 지난4일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국세청은 5일중 이명단을 거주지역별로 분류, 이날 자료관할세무서로 통보했다. 관할 세무서는 통보받은명단을 토대로 6일부터 세무조사에착수, 우선 우편물통한 간접조사를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을 내보내 직접 추적조사를 하기로했다. 조사 내용은 ① 당첨자와 입주자가 다른지여부 ②다른경우 전매를했는지 여부 ③전매가아닌경우 임대를했는지 여부등이며 조사결과 전매나 임대사실이 밝혀지면 양도소득세와 부동산임대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할방침이다.

조사대상 아파트는 서울강남지역의 開浦 蠶室 大峙 瑞草 狎鷗亭洞등에 소재한 住公및 민간건설업체의 아파트로서 81년10월이후 분양된아파트 전부이다. 국세청은 이들 5개지역에 소재한 복덕방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같은 1단계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가 가라앉지 않을때는 이들지역을 부동산투기억제지역으로 고시하는 2단계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이와아울러 근본적인 장기대책의 하나로 아파트분양가격의 제한적인 자율화방안, 일부제한된 지역의 복덕방 허가제실시 방안등도 검토하고있다.

서울 江南 일부지역에서는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방침 표에도 불구하고 과열투기가 일어 지난4일 동·호추첨 결과가 발표된 開浦洞 宇成아파트의경우 55평과 65평에 3천5백만~4천만원, 45평에 2천5백만원, 31평형에 1천8백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었다.

都市가스漏出·폭발慘事
서울阿峴洞 지하5m서 修理인부등 5명숨진듯
2명 확인

5일하오 4시10분께 서울 麻浦區阿峴洞 구 경기공전옆 아현고가도로밑을 지나는 지하5m의 도시가스파이프에서 가스가 새어나와 지하로들어가 파이프 교체작업을하던 대한주기산업(대표김영철·47·서울中區黃鶴洞2276) 직원 유보상씨(31)등 2명과 이들을 구조하러들어갔던 마포경찰서소속 황재하일경등 5명이 현장에서 가스에질식, 황일경과 유씨등 2명은 숨지고 나머지3명은 하오5시20분께 공사현장에서 불이나 탈출하지 못하고 숨진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사고로 함께 작업중이던 水道공사직원 유담회 유영상씨등 2명이 순천향병원에, 유영훈 이용욱씨등 2명은 녹십자병원에, 전경대원 유재화일경이 세브란스병원등 모두 5명이 각각 입원치료를 받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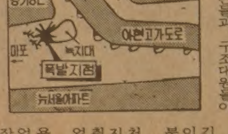
사고당시 작업장입구에서 잡부로 일하던 盧辰明씨(25)에의하면 이날 상오10시께부터 작업책임자인 羅기사등3명이 도시가스밸브교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오4시10분께 가스냄새가 심하게 나 인근파출소에 신고했다는 것.

신고를받은 경찰은 경찰과 인근 용산소방소 소방관들을 동원, 구조작업에 나섰는데 구조차 방독면을쓰고 들어갔던 黃일경은 하오5시12분께 질식상태로 소방관들에 의해 구조돼나왔다. 작업을 하던 대한주기산업 직원1명도 똑같이 질식된 상태로 구조돼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날 사고가 난지 1시간 10분쯤 후에는 이일대 차량통행을 전면금지시킨 가운데 구조작업을 벌이던중 하오5시20분께 갑자기 가로 세로 1.5m가량되는 작업구 지하에서부터 불길이 솟아 인근 주민들과 구조대원들이 긴급 대피하는등 소동을 벌이기도 했는데 불길은 약10분동안 치솟다가 잡혔다.

경찰에 신고한 盧辰明씨는 처음신고 할때는 작업구밖 지상에있었으나 도시가스에 취해 마치 술취한사람처럼됐었다고 말했다. 盧씨는 이날사고가 지상에 용접기를내놓고 밸브 교체작업을하던중에 일어났는데 현장에는 3백㎜짜리등 3개의 도시가스관이 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盧씨는 이날 처음으로 잡부로 이일을 했는데 자격증이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사고가나자 소방차10여대가 긴급출동, 구조 작업을벌였고 龍山소방서에서 출동한 유위희소방관(28)등 3명이 지하5m아래로 방독면을 쓰고 산소통을 맨채 밧줄을 타고내려가 2명을 구조했는데 유소방관등은 나머지 1명도 구조하러 들어가려는순간 치솟은 불길에 놀라 한동안 실신하기도했다.



가스供給 한때中斷

한편 이날사고로 이일대 서울아파트등 주택가에 도시가스공급이 중단됐고 차량통행이 하오 7시까지 3시간동안 완전 통제됐다. 이사고를 조사하고있는 서울麻浦경찰서는 대한주기산업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원인을 캐고있다.

◇대낮 도심 한복판을 지나는 지하도시가스관에서 가스가 새어 나와 작업인부와 구조하던 경찰관등 5명이 참변을당했다.

實名制 實施시기 數年이후로 延期
金總理 밝혀

【忠州=河長春기자】金相浹국무총리는 5일 『금융實名去來制는 명분을좋고 올바른 사회를 지향하는 정부가 추구해야할것이나 경제不況극복이라는 變數때문에 수년을 보류 내지 연기하게됐다』고 밝혔다.

金총리는 이날하오 忠州市에 들러 任成宰 忠北知事등 지역관계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우위에서 實名制에 대해 묻거든 名分과 實利의 어려운 과정에서 중간 상황으로 택하게 되었다고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金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實名制를 둘러싼 국회에서의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정부고위 當局者로선는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實名制의 처리방향과 관련, 중요한 의미를 갖고있다. 정부층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實名制의 실시시기문제에 관해 국회심의 결과를 따르겠다고만 밝혔을뿐 시기등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金총리는 이날 귀로에 京畿道 驪州에 있는 英陵에 들러 주변造景등을 살폈다.

資源관리法案 철회하라 (질문)
수업료引上 신중히검토 (답변)
常委질문·답변

국회는 5일 內務 保社등 7개 常委와 豫決委및 올림픽지원 特委를 각각열고 새해예산안과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이고 각종계류법안을 심사했다.

豫決委 ▲陸堯相의원(民韓)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원관리법안」은 폐기된 국가보위에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규정된 人的物的자원의 동원등을받는것으로 국민의기본권을 제한하는 헌법위반』이라고 주장, 자진철회하거나 전면수정할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법안은 5공화국 출범당시 국민의기본권 제한의 완화를위해 국가보위에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했던 기본정신에 어긋나며 이법안이 입법화될경우 국민기본권의 제한을위한 발동요인은 오히려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金炯來의원(民韓)은 지방자치제 실시를 촉구하면서 『地自制실시가 불가피하다는 논거를 게재한 지방행정誌를 회수한경위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金埈成부총리는 『내년도稅收증가는 금년본예산대비 13.6%, 追更을 포함하여 3.2% 증가했으나 5%의 低物가정책과 점진적인 경기회복세로보아 稅收결함은 발생치않을것』이라며 『따라서 내년에는 追更案도 편성되지 않을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私債등 지하금융을 制度금융으로 양성화한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변함이없으며 앞으로 제반제도적장치를 동원, 陰性財源의 양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

姜慶植재무장관은 金利조정문제에대해 『앞으로 실물경제의 動向을보아 신축히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李奎浩문교장관은 『교원의 처우개선을위해 수업료의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물가안정과 학부모의 부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吳明체신차관은 『오는86년까지 郵政적자의 축소를위해 단계적으로 우편요금을 현실화하겠으며 내년에는 10~20%를 인상하는선에서 우편요금을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保社委 ▲金正禮 보사장관은 『藥師의 자질향상을 위해 일정기간 병원에서 調劑실무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약사수련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행법상 폐결핵을 제외한 1백80일로 치료기간이 제한되어있는 同一傷病의 치료제한을 의료보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政府, 資源관리法案 제출
필요때대비, 20~50세男子등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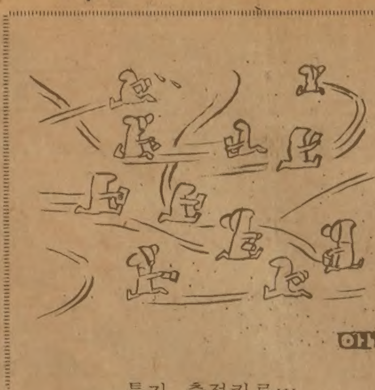
정부는 20세이상 50세까지의 남자를대상으로한 人的자원과 의료시설·신문·방송·영화및 인쇄에관한 시설을 포함한 物的자원을 필요시에 효율적으로 동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 자원의 조사, 훈련등을 목적으로하는 資源관리法案을 5일 국회에제출했다.

이법안은 정부가 필요시 효율적인 자원관리를위해 전국또는 지역이나 부문별로 年15일이내의 훈련을 실시할수있도록하고 ▲물자의 생산·수리 및 加工시설 ▲자동차·선박·항공기및 荷役장비 ▲전기통신설비와시설 ▲의료시설 ▲방송·영화·신문및 인쇄에 관한 시설 ▲기타 대통령이정하는 시설및 業體등을 대상으로 物的자원과 이에종사하는 人的자원을 동시에 관리하는 훈련을 실시할수있도록했다.

이법안은 또 필요시에 대비한 자원관리계획및 총괄조정은 국무총리가 담당토록하고 국무총리를보좌하기위해 非常企劃위원회를두도록했다.

全文29條와 附則3項으로 된 이법안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규정돼있으며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아 훈련에 참가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지시에따르지 않을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을물도록 벌칙조항을 두고있다.

社會漫評



투기 추적키로…

구독신청 배달사고 583-2361

獨立紀念館건립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在가봉韓人會 이선일會長 外 2천8백弗
泰興木材(株) 李祐塾대표 外 1백33만원
로얄工業(株) 印敏煥대표 外 1백7만원
富鮮産業(株) 玄鎭奎대표 外 1백6만원
한양섬유宋泰殷대표 20만원
우성아파트6·7棟주민 15만원
柳友會員 일동 10만원

<5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在가봉한인회(회장이선일)=美貨2천8백95달러60센트(이선일씨=가봉貨 5만프랑세파, 조남주씨=5만〃, 在가봉용직원一同=10만〃, 조승씨=5만〃, 기효성씨=3만〃, 홍성수씨=2만〃, 김용만씨=2만〃, 양금실씨=3만〃, 황성철씨=3만〃, 이정배씨=5만〃, 최병철씨=3천〃, 석정녀씨=2천〃, 최옥자씨=2천〃, 이주남씨=2천〃, 정장진씨=3만〃, 정광모씨=3만〃, 한국전업직원一同=10만〃, 아메리칸코너식품=10만〃, 김태문씨=1만〃, 박기순씨=1만〃, 박기덕씨=1만〃, 정동욱씨=1만〃, 간종순씨=5천〃, 노순옥씨=5천〃, 김정현씨=5천〃, 박경출씨=2만〃, 박기순씨=1만〃, 정장근씨=1만〃, 이현근씨=1만〃, 박춘화씨=1만〃, 하옥분씨=1만〃, 강석봉씨=5천〃, 이정우씨=5천〃, 이상래씨=5천〃, 강옥호씨=5천〃, 황활석씨=5천〃, 장보시씨외7명=2만〃, 전수철씨외7명=2만〃, 황한주씨외7명=2만〃, 유백열씨외7명=2만〃, 장정형씨외7명=2만〃, 장승길씨외7명=2만〃, 정상석씨외7명=2만〃, 정분남씨=5만〃)
▲泰興木材(株)대표이사 李祐塾씨외임직원一同=1백33만4천3백원
▲로얄工業(株)代表 印敏煥씨외임직원一同=1백7만1천원
▲富鮮産業(株)대표이사 玄鎭奎씨외 임직원一同=1백6만8천5백원
▲한양섬유 代表宋泰殷씨=20만원
▲서울잠실 우성아파트6·7棟주민(대표 이석범)一同=15만4천원
▲柳友會員一同(前職柳韓洋行社友會)=10만원
▲철도전문대학교직원및학생一同(추가분)=3만4천원
▲在美로스앤젤레스교포 金應福씨=2만원
▲西大門區北加佐2洞295의16 심재선씨=1만원

地平線

현대의 평균형 한국인은 어떤 모습을하고 있을까? 남녀의 차이나 나이에 따라, 그리고 다른 직업에 따라 다르고 도시에 사느냐 하는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샐러리맨을 표준으로 해서 알아본 결과가 있다. 예를 들어 담배는 하루 평균 17.8개비를 피우고 있다한다. 말하자면 한갑이 채 못되는 분량이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한 갑을 피운다는 사람이 25.9%로 가장 많고, 그다음 반갑 이하가 22.1%였다한다. ▼이러한사실은 KBS가 실시한 「직업인의 생활시간대및 매체접촉도조사」에서 밝혀진 숫자다. 서울·대구·대전·전주·강릉등 5개도시의 월급장이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것이다. 이조사에의하면 도시락을싸갖고다니는 사람은 20%가깝고, 서울에선 17.1%였다. 코피를 마시는 회수는 서울에서 하루 세번이25.1%, 네번 이상이 17.4%나됐다. ▼이조사에서 재미있는 사실의 하나는 텔리비전의 시청률이 가장높은 프로는뉴스였다는 것이다. 물론 중년의 가정주부층이었다면 일일연속극이었을것으로 짐작된다. 샐러리맨들을 위해 텔리비전이 공헌하는 서비스는 뉴스전달이 가장 크다는것을 조사는 말하고 있다. 뉴스를 제일많이 본다는 사람이 48.4%였다한다. ▼전파매체인 텔리비전은 그 생생한 현장감때문에 뉴스전달에 엄청난 힘을 갖고있다. 근래 우리텔리비전의 뉴스 프로가 크게 확대된것은 그런뜻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텔리비전의 뉴스는 일반시청자들뿐만아니라 때로는 신문을 앞지를수도 있다. 근래 여섯살의 꼬마를구했다는 忠犬바둑이의 얘기가 그런예의하나다. 이 감동적인얘기가 방송되자 통신과 신문들이앞다퉈 따라서 보도했다. ▼충견 바둑이의 감동적인얘기는 텔리비전의 외화에 나오는 충견 호보를 흉내낸 어린이들의 창작극이었음이 밝혀졌다. 근래에 보기 드문 난센스극이 벌어졌던 셈이다. 그만큼 따뜻한 사랑과 신의를 동경하는 현대인의 메마른 심정을 거꾸로 나타낸 난센스극이었다. 그렇다 치더라도 어처구니없는 난센스극에 휘말린 신문의 책임도 모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 ▼철부지 꼬마들의 천진난만한 창작극처럼 어처구니없는 誤報가 어째서일어났는지 우리는 심층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뉴스 전달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볼 계기라고 하겠다. 화를 낸다기보다는 미소지을수 밖에 없는 「창작극」의 의미를 신중하게 생각할일이다.

학생의날 制定검토

정부는 학생의날제정을 검토중이다. 정부고위당국자는 5일 『문교부가 학생의날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거쳐 필요한관계법규의 개정을 추진할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학생의날 제정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이미 가진바 있다』고 밝히고 『문교부내에서 현재 민원을 받아들인 형식으로 검토중인데 각계의 의견을 들어 이를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우리의理념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컴퓨터 사진식자 서비스안내
● 각종 간행물
● 도서출판
● 신문제작 등
종전의 사진식자기보다 10배 이상의 능률을 올릴수 있는 컴퓨터사진식자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를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해 드릴수 있읍니다.
☎ : 533 — 2361

젊은이들과의 대화
우리의 모든 고뇌는 다시는 젊음으로 돌아갈수 없다는 인식과 향수에 기인한 것이라 합니다.
이 시대에 잃어버린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영혼은 언제나 방황하고 있읍니다.
이런의미로 젊은층과의 대화로 아름답고 품위있는 우리사회를·가정을·이룩하고 나아가서는 동양예의 지국의 참본을 카나다사회에 심는 기회로 마련하십시다.
일시 : 1982년11월20일(토) 오후1시
장소 : 252 BLOOR ST. W.(교육회관)2층212호실
강사 : 박회민목사님
문의 : 755—8079
사단법인한국노년회
회장 조영호

대구계성중고등학교
동창회
금번 모임에 동문 제위께서는 모두 참석하셔서 옛정을 되새기며 그동안 밀렸던 얘기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때 : 1982년11월13일(토) 오후7시
곳 : 10 SANWIN CRT. WILLOWDALE ONT.
연락 : 921—8809(MR.김)
499—3721(MR.박)
대구계성중·고등학교
동창회장

겁없는 웃돈 最高 4천만원

過熱투기로 살벌한 開浦아파트 분양현장을 본다

「판돌이」千여명 뒤엉켜 時勢조작…賣物 쏟아져

서울開浦지역엘 가보면 그 분위기가 과열을 넘어 잔뜩 살벌하기까지 한 느낌이다. 줄잡아 1천명은 넘는 각 부동산소개업소의 판돌요원(「판돌이」라고 불린다)들이 복부인과 실수요자들과한 데 뒤섞여 열기를 더 가열시키고있다.

이들이 주고 받는 신규분양아파트의 프리미엄(웃돈) 평형이 1천6백만원~1천7백만원, 45평형이 2천6백~2천7백만원, 55평형및 65평형은 각각 3천6백만원에서 최고4천만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어 매물이 복덕방에 쏟아져 나오고있다.

물론 이같은 엄청난 프리미엄의 호가는 확실하게 실수요자 거래가 뒷받침된, 정상적거래로 형성된것이 아니고 사실상 조작에 의한 시세이기때문에 부동산관계자들도『이럴때 사는것은 위험하다』고 실수요자들에게 충고하고있다.

액수역시 이미 몇백만원대단위를 넘어서 2천만원, 3천만원에서 최고4천만원까지。귀를 의심할정도로엄청나다。프리미엄으로 호가되는 값이 그 자체만으로 중산층아파트 한두채값과 맞먹는 수준이다。

4일하오 일부자동·호수 추첨결과가 발표된 宇成아파트는 위치가 좋은곳이면 31

부동산소개업소들은 한군데에서 최소한 몇개씩 0순위(6회납청된 최우선순위) 통장을 확보했고 또 가수요자들을 총동원해 매입케한뒤 통장자체를 계속 전매해버려

0순위 통장은 일부자발표도 되기전에「딱지거래」로 1천3백만원에서 최고 2천5백만원까지 웃돈이 붙었다。어떤 민간아파트 분양이라도 신청하면 당첨이 확실한 80년2월이전 가입의 순위통장거래가격을 보면 2백만원 및 3백만원짜리가 최고 1천3백만원, 4백만원짜리가 1천8백만원, 5백만원짜리 통장은 최고 2천5백만원까지 웃돈이 붙어 거래됐다。

모든 평형이 0순위로 마감돼 치열한 경쟁을 보인 신성아파트의 경우 80년5월(65평형) 6월(32·45평형)이나 8월(55평형)까지가입한 통장이 소위 당첨 커트라인。

당첨여부도 불확실한 0순위통장을 집한채값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을 주고 살 실수요자가 과연 얼마나될까。

정말 몇년만에 집을 옮기려고 아직도 0순위통장을갖고있는 실수요자들의 집에는 어떻게 알았는지 하루에도몇차례씩 소개업소로부터 팔기를 권유하는 전화가 걸려오는통에 주부들이 짜증을 내는데가 허다하다。

말하자면 0순위통장이건 분양아파트의 프리미엄이건 실제 정상거래로 가격이 형성되기보다는 부동산소개업소들이 담합해서 매겨논 가격이 요즘의 가격이다。따라서 투기바람이 지나간뒤 정작 막차를 타는 실수요자만 손해를 볼것이 뻔하다。

부동산소개업자들이 털어놓는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도 現代아파트같은 소위인기아파트가 開浦지역에서 계속 분양될예정이므로 적어도 이때까지는 현재와같은 엄청난 프리미엄거래 기대때문에 가격조작이 계속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그런가하면 건설업체들은 自社 아파트의 인기를 유지시키기위해 호화모델하우스를 짓고 프리미엄이 낮게 호가되는것은 회사돈으로 값을 올려 사들이는등 아파트업체들의 과열경쟁도 투기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있다。

開浦지역에서 모아파트건설업체는 3억5천만원을 풀어 계약포기했거나 매물로나온 自社분양아파트를 프리미엄을 얹어 되사들였고, 다른 업체도 계약포기된 당첨정수증에대해 2개월이상 계약기간을 늦춰주는가하면 전매를 묵인하는등 갖가지 편법을동원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모델하우스를짓는데 최고 7억원까지들이는 호화판 경쟁까지도 벌어지고 있다。

이같이 투기가 성행하는데는 이밖에도 여러가지요인이 있다。

근본적으로는 金利가 대폭 떨어지고 실명제실시계획등으로 엄청난 시중부동자금이 은행을 빠져나가 투기에동원되는것으로 보여진다。

꼭 단기차액을 노리는 투기꾼들만이 아니라도 開浦지역은 도심과 가깝고 學群이 좋다는것등, 실수요자들로서도 장래성을 본 투자가치가 있다는점을 무시할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엄청난 프리미엄을 실수요자가 떠안는 경우란 별로없고 거의가 투기꾼차지로 돌아가는것일뿐더러 그 프리미엄이란것이 붙어도 너무붙는다는점。

부동산평론가 李太教씨는 요즘 開浦투기의 원인을▲금리인하·실명제로 투기성자금이 몰린데다 복덕방, 복부인, 건설업자가 가세, 부채질하고▲開浦의 위치여건으로 장차 가격상승을 기대한 실수요자층들의 관심도높아져 한꺼번에 이처럼 폭발적인 투기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不動産 문제연구소장 鄭鎭宇씨는 과열투기를 억제시키기위해서는 분양제도를 바꾸거나세무조사같은일시적인 효과밖에없는 조치보다는 우선 현행 양도소득세제부터 개선할것을 주장하고 있다。

계약서작성의 엄격하고 공정한 감독관리가 전제가 되겠으나 1가구1주택이라도 무조건 면세혜택을 주지않고 양도차액에 일정한 기초공제액을 설정한뒤 기초공제액의 초과분에는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

그러나 부동산 투기억제는 단편적인 제도개선이나 조치보다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정책전환이 따라야하는 만큼 정부당국에서도 섣불리 묘책을 내놓지는 못한채 세무조사강화등 미봉책만을 쓰는데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조금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이긴 하지만 ▲주택청약제도를 개선, 현행0순위제의 폐지▲분양가격자율화▲부동산소개업자허가제등이 정책관계자들사이에 거론이 되고 있다。그러나 그것이 가져올 효과와 부작용이 더큰때문에 당장 실현은 어려울것으로 보고있다。

0순위제를 폐지하는 문제만 하더라도 당장의 0순위통장프리미엄거래는 사라질지도모르나 「요즘처럼 일부인기아파트에 1순위주택청약예금 전체가입자 2만5천8백여명중 2만명이상이 1순위이다」가 몰리는때의 더큰 부작용을 생각않을수없고 기득권자의 처리도 문제다。

특정지역, 특정아파트에 1순위자들로 40대1 50대1의 경쟁이 붙는경우, 당첨도 마치 복권같은 기분이되고 그야말로 진짜 투기과열을 부를가능성이 더 크다。開浦투기과열에서 복덕방의 가격조작이 크게 작용하고있는점에 비춰 앞으로 부동산소개업소를 현행신고제에서 일정한자격·허가요건을 갖춘 부동산거래중개사 면허제도로 바꾸는 문제도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미신고(무허가) 부동산소개업소 5천여개소를 포함 1만7천여개가 난립해있고 開浦에만 6백여개는 1천여개나 된다고 한다。

부동산업소에 대한 허가제나 제도개선등은 단순히 투기억제보다 무주택서민층의 내집마련을 겨냥해서 폭넓게 시급히 마련돼야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金鐘錫기자】

◇서울開浦지역아파트 프리미엄 시세

아파트名	평형	분양가격	프리미엄
주공1차	11	863·4	400~450
	13	1,035	550~600
	15	1,237·1	750~800
	17	1,422·4	900~1,000
주공2차	7·5	778·7	300~350
	11	877·3	300~350
	13	1,051·4	400~450
	15	1,257·1	600~650
	16	1,648·8	700~750
	17	1,430·1	750~780
	19	1,896	750~800
	22	2,201·6	900~1,000
	25	2,462·6	1,100~1,200
주공3차	23	1,920·4	800~900
	25	2,178·2	950~1,000
	31	2,637	1,100~1,200
	34	2,990·6	1,300~1,400
한보미도	34	3,599	1,200
	46	6,189·8	1,000
	57	7,654·1	800~900
	66	8,954	700~800
경남	35	3,419	1,700~1,800
	45	6,106	1,500~1,600
	56	7,376	1,200~1,300
선경	31	3,267	1,400~1,450
	42	5,643·2	1,400~1,450
	48	6,461·7	1,300~1,350
	57	7,654·6	1,200~1,300
우성	31	3,263·1	1,600~1,700
	45	6,030	2,600~2,700
	55	7,389·8	3,600~3,800
	65	8,815·5	3,600~4,000

(호가기준단위=萬원)

◇「폴라로이드」까지 동원한 投機人波 4일하오 서울開浦지역 우성아파트 일부자당첨발표현장에 몰려든 투기인파。이들중 일부는 당첨자명단을 복사하기위해 즉석에서 현상이 가능한 폴라로이드카메라로 발표명단을 찍어 당첨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 전매할것을 권하는가하면 살사람도 없는데 터무니없이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 아파트시세를 조작한것으로 밝혀졌다。

메아리

構造誤報

어제(5일)아침 한국일보의 「두꺼비」는『이거야 말로 개망신이군』하고 자탄하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그리고 있다。서울신문의 「까투리 여사」는『개망신 당한 사람들많겠다』고 뇌는 바둑이를 등장시켰다。

과연 개망신이다。

바로 3일전 사회면 머리에 등장시켰던「忠犬」이 사실은 남다를 것 없는「바둑이」로 밝혀졌다니, 오보도 오보, 변명못할 오보다。

『어떻게 된 거요?』

이런 물음이 편집국 사회부계를 지나자니 절로 나온다。입맛을 다시며 데스크는 금방배달된 聯合通信을 내민다。

그 첫장에「謝過文」이란 것이 실려 있다。장장 3페이지 1천 몇백자는 될직한 글이다。1일 밤9시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지방주재 기자에게 확인을 지시, 송고를 기다려 밤 11시40분에 제1보를 냈고, 2일 상오의 현장 확인결과 기사내용에 미심쩍은 점이 드러나, 3일 상오 다시 확인한 결과 오보임이 밝혀졌다는 경위 설명이다。

이것이 5일 아침 지면에 보인 정정기사의 뒤편이다。

뉴스 보도의 이런 내부사정을 여기 적는 까닭은 두가지다。첫째 신문독자에게는 진실한 정보뿐 아니라 그정보의배경까지「알權利」가 있다。둘째 이번일은 한낱 개소동에 그치지않는 構造的인 오보란는 점이다。독자들의「알 權利」에는 이「構造」에 관한것도 의당포함된다。

지금 서울의 신문들은 지방주재 기자를 두지 않는다。지방의 신문들은 서울주재기자가 없다。이 空白은 聯合通信이 메우는것으로 되어 있다。

제도가 이렇게 된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적어도 주재기자 제도의 부작용을 던다는「矯角」의 뜻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개소동이 2년동안 운영해본 이 제도에 결함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通信 하나로는 메워지지 않는 空白이 다시한번 증명된 것이다。

모두가 기억하는 그런 空白의 두드러진 예가 지난 4월의 宜寧사건이었다。이 사건이 서울에 알려진 것은 사건이 발생한지 하룻밤, 8시간이 지난 이튿날 아침 6시나서였다。경찰보고가 늦은것과 아울러,「가장 큰 사건」에,「가장 늦게 보도된 사건」이란 오점이 이사건에 남아 있다。

이 지적은 보도관계자의 기사욕심에서 나온 푸념만은 아니다。만일 宜寧사건이 전국민에게 빨리 알려지고 대비를 촉구했어야 할 그런 성격의 사건이었다면 어찌됐을 것인가。하룻밤의 情報空白이 치명적인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誤報는 慶山철도사고에서도 있었다。신문이 줄줄이 言論仲裁委 신세를 져야 하는 誤報도 있었다。그러니 아예 알려지지 않는 漏報가 없다고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까닭은, 단적으로 말해서, 單一通信의 정보獨占에 있다고 생각한다。경쟁없는 취재로는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가 공급될리 없기때문이다。

이번 같은 소동은 각사 주재 기자가 있었더라도 일어 났을 수가있다。그러나 그 가능성은 훨씬 적었을 터이다。적어도 거짓을 발견하는데 며칠씩 걸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정보통로의 獨占은 위험하다고 이른다。경쟁없는 취재는 뉴스의 본성에 걸맞지 않는다。獨占의 폐해는 정보유통에서 더 잘 드러난다。

이 같은 문제는 서울의 視角—서울서 발행되는 신문의 지방취재란 면에서만 보기가 쉽다。그러나 사정이 심각하기는 지방신문이 더 하리라 생각된다。서울의 신문들은 하나 뿐인 通信을 의지했다가 개소동을 겪었지만, 하나뿐인 通信이 흘리는 서울소식에 그런투의 실수가 생기면 어떨까。모르긴 몰라도 지방마다 國事에 관계된 소동이 벌어질것이다。그런 위험은 지방신문의 서울취재로 덜어진다。

정보는 그것을 共有하는 사람들을 융합시킨다。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이다。그 이치는 湖南과 嶺南의 융합을 위해 구상된 올림픽 고속도로의 구실을 생각하면 쉽게 짐작된다。마찬가지로 서울과 지방, 지역과 지역을 융합시키자면 지역간의 활발한 정보유통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았을때의 문제는 通信하나만으로는 지역간 정보유통의 고속도로 구실을 다 하지 못한다는데 있다。그 결과가 온 국민의 一體感조성에 해로울 것은 뻔하다。정부의 홍보를 위해서도 이로울것이 없다。결코 신문사의 便·不便이나,「아름다운 童話」하나를 잃었다는데 그칠 문제가 아닌것이다。

주재기자 문제에「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정부견해 (10월29일 文公장관의 국회답변)는, 그래서 의아하게 들린다。그 의아심에 근거가 있음을, 그뒤를받아 일어난 개소동이 증거한셈이다。

金昌悅
〈編輯委員〉

國債발행 취소용의는

—국회 常任委 질의·답변

"醫師 7部制근무 용의는" 질의
"金利、實物경제 신속대처" 답변

豫決委

▲金埈成부총리답변(4일밤질의에대해)=6·28조치 당시 稅收결함이 예상되었으나 이것이 赤字재정과는 관계가 없었다。다만 硬直性경비가 증가하고 복지비가 증가해 적자재정이 불가피해졌다。따라서國債를 발행케됐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인하는 內需경기 신장을위해서이고 실명제와 세율인하는 관계가 없다。

내년에 5천5백억원의 국채를 발행하는것은 景氣局面을 고려한 불가피한조치였다。방위비는 경제를 경비가 70%를 차지, 지출소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실세출 증가액은 8천8백39억원에 달한다。국채를 발행할경우, 공공사업부문이 15%줄어들어서도 정부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투융자 사업을 계속해야한다。

5천5백억원의 국채는 경기국면、세수증가、완화·공공투자사업비등을 목표로 한것으로 GNP 7.5%달성에있어 상당히 기여할것으로 예측한다。국내의 소비성 유동성자금을 민간저축대로 이유도, 민간 嫁用 자금으로 이용토록 하겠다。

입부지역의 부동산 투기가 있었던것은 사실이나 전국적인 투기현상이 아니기때문에 특정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지도를 하고있어 곧 평정될것으로 본다。

5차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은 中期계획을 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하면서 국민저축률을 유도하는것이며 금융자율화, 산업구조개편등으로계획자체를전면개편할수 없다。다만 連動的으로 83년도 사업의 施着工期를 6개월내지 1년간 재조정할수 있다。

또 성장목표、물가 동향등을 감안하여 총량목표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李哲熙、張玲子부부어음사기사건을 계기로 地下경제를 강력히 조치하려는것은 사실이나 7·3實名化조치와 어음 사기사건과는 직접적관계가 없다。

▲李慶植재무장관=현재로서는 金利인상의 요인이 없으나 앞으로의 실물경제 동향을 보아가며 신속하게 대처하겠다。

월 50만원이하의 해외근로자에게는 갑근세를 면세해주고있지만 외기노조근로자에게 면세해주는 것은 어렵다。

▲盧泰愚내무장관=地自制는 능률적인 행정계층의 조성과 자치단체 규모조성등이 먼저 이루어져야하며 무엇보다 현실적 측면에서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상황에 대처할수있는 연구가뒤따라야 한다。또 실정에맞는 제도를 정착、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앞으로 여건조성을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尹誠敏국방장관=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북괴에비해 열세에 있기 때문에 GNP6%의 군사력을 줄이는것은 곤란하다。

国会 錄音

▲張命仁법무장관=李·張부부사건때 검사가 직접 TV에 나간것은 검찰이사건을 철저히 파헤쳤지만국민의 의혹과 오해가 가시지 않아 이를 없애기 위해 직접 나간 것이다。

▲林德圭의원 (국민) 질의=부총리는 물가상승률 5%선을 유지할수 있다고 보는가。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을 40대60으로하여 서민부담을 덜어줄 용의는없는가。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高소득층의 특혜를 대폭줄여서 5천5백억원의 國債발행을 취소하라。

日本再武裝이 한국방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체육진흥의 과학화계획은。

▲金炯來의원 (民韓) = 83년도 예산결토의 느낌은 거창과 虛勢로 짜여졌다는것이다。긴축을 한다면서 일반행정비가 예산전체증가액을 웃도는 11·6%나 증가한 반면, 민주복지 부분 예산은 금년수준보다훨씬 감소됐다。차라리 國政지표를 현실화할 용의는없나。

미국과 북괴간의 무역거래는 사실인가。향후 전망과 우리에게 미치는 이해득실을 평가하라。日本總選이 韓日관계에 미치는영향은 어떠한가。地自制를政權安保的차원에서라도실시시기를 밝혀라。이와관련 地自制실시불가피論이 게재된 지방행정誌의 회수 경위를 밝혀라。방위비수준을 GNP6%에서 5%수준으로 절감이 가능하지 않은가。

▲睦堯相의원 (民韓)=정부는 20세이상 60세까지의 남자를 대상으로한 人的자원과 신문·방송등 시설을 포함, 무기탄약 토지 건물등 物的자원을 국가자원으로서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한다는것을 목적으로하는 資源管理法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법안의 요지는 주무部장관은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중점관리해야할 대상人力과 대상物資및 대상업체를 지정할수 있도록하고있다。뿐만아니라 全國또는 지역에 계엄선포時 대상人力을동원하여 실제훈련이나 교육훈련을 실시할수있음은 물론 物的자원과 이에 종사하는 人的자원을 동시에관리하는 훈련도 실시할수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이미 폐지된 국가保衛에 관한 特別措置法5조에서 규정하고있던 人的자원과 物的자원의 동원을 뜻하는 것으로 憲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것임은 두말할나위가 없다。이 법안은 헌법위반이라고 보는데 정부견해는。

▲柳寅範의원 (民韓) = 안이한 개발基調를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저축촉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예비비와 사업비를 절감하고 경상비와 사업비의 조정을 통해 5천5백억원을 절약해 균형예산을 편성해야 되지않나。동시에 국채발행을 통한 국가재무부담을 감소시켜야 되지 않나。

內務委

▲吳洪錫의원 (民韓) 질의=서울시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의 발표와 내무부의 발표가 다른 이유와 지금까지 90%이상이었는데 금년에만 87·8%로 떨어진 이유는。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의회구성을 못한다면 경비가 많이 드는 88올림픽개최도 포기해야 할것이 아닌가。

▲梁해植의원 (民正) = 자주독립정신의 상징인 파고다공원내의 3·1독립기념탑 철거경위와 복원계획을 밝혀라。철거된 탑은 현재 어디에、어떻게 보관하고 있는가。범국민적 기념탑을 서울시 단독으로 철거할수 있다고 보는지。이것은 3·1정신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李成一의원 (국민) = 서울시는 지하철공사를 저렴한 공사비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어디에 기준을 두고 저렴한공사비라고하는가。지하철공사가 5단계 이상의 下請을 거치는바람에 안전대책이 소홀해 사고가 빈발하는것이 아닌가。

▲柳寅範의원 (民韓) = 한강종합개발계획은 올림픽을 겨냥한 急造된 계획으로 충분한 사전준비없이 발표된 것인데 실시시기를 88올림픽이후로 연기할 용의는。

▲金聖培서울시장답변= 서울시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서울시의자료와 내무부자료가 차이를 보이는것은 기부금등 자체수입이 아닌 이권수입을 뺀것을 수치로 잡았기 때문이고 내무부는 이권수입까지 포함시켜계산했기 때문이다。

保社委

▲洪鍾旭의원 (民正) 질의=복지국가는 건국이래 추진해온 사업이다。종래의 정책과 제5공화국정책과의 差異點은 무엇이냐。복지사회건설을 위해 장관이 국민에게 확실하게약속할수있는 정책 한가지만이라도 밝혀달라。

▲沈憲燮의원 (民韓) = 국회에 와서 답변조차거부하는 醫保연합회에 電算업무를 맡기는 것은 납득이안간다。의보一元化에 왜국가재정이 필요하고 보험금요율이 3%로 고정되어있는데 근로자가 일원화를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질병에는 週末이 없는데 병원에는 주말이 있다。토요일 오후에 아프게되면죽기 십상이다。의사를 7部制근무로 장비와 仁術을가동시킬 용의는 없는가。藥師의 質을 높이기위해수련과정을 쌓은후에 개업허가를 해주어야한다고보는데。

▲金正禮보사장관답변= 83년까지 농어촌 1천3백21개의 보건소에 의료인을 전원충원, 농어촌 無醫지역을 완전해소하겠다。

輿論 동정받는「母情」殺人
바하이머女人, 딸 殺害犯을 狙擊

최근 西獨에서는 자기딸을 살해한 살인범을 법정에서 쏘아 죽인 바하이머여인의재판이 사회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다。

주간지인 슈테른紙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비통함과 애정을 여러차례 실었는가하면 최대의 일간지인 빌트·자이퉁紙는『올해의 재판이』라는 시리즈로 이문제를 다뤘다。국영텔레비전도『나라도 그를 쏘았을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이문제를 다루고있는데 인터뷰에 나온 한 노인은『나라면 당장히 쏘아죽이는 것이 아니라 난도질을 했을 것이다』라고 부모심정을 털어놓았다。

이렇듯 여론에서 동정을받고 있기는 하지만 바하이머여인은 살인죄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가능성이있어 재판결과의 귀추가 자못 주목되고 있다。

◇이女人의 재판에 쏠린 눈들
보도진에 둘러싸인「바하이머」여인。

海外토픽

이란인질美人 損賠 【星條紙】

★풀려난10명-1천만달러씩

이란에 인질로 잡혀있다가 풀려난 10명의 미국인들은 4일 테헤란주재 미대사관점거 3주년을 맞아 미행정부를 상대로 각각 1천만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미NBC방송이 3일 보도한바에 따르면 이들 미국인은 카터행정부당시 체결된 인질석방협정이 이란에 대해 아무런 법적 제재조치도 명시하고 있지않기때문에 미행정부가 자신들에 대해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 이같은 소송을 제기할계획이라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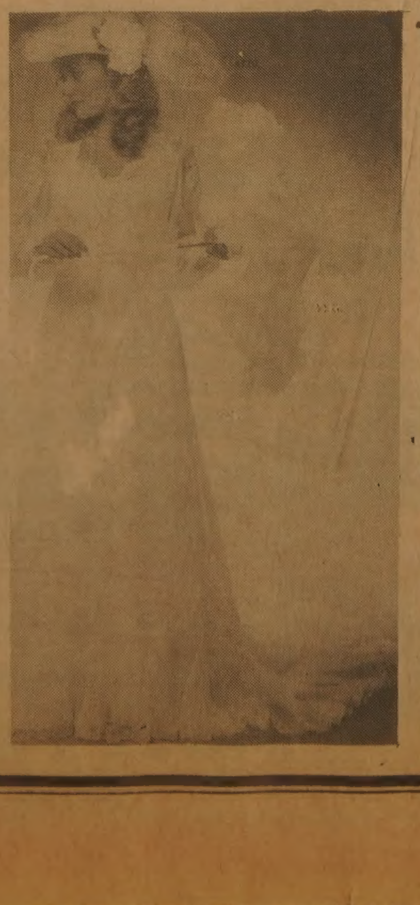
그런데 소송을준비중인 이들10명의 미국인가운데 7명은 흑인이거나 여성들로 미대사관점거이후 인질로 잡혔다가 19일만에 풀려난 사람들이며 나머지3명은 1주동안 캐나다대사관에 숨어있다가 탈출한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UPI】

치약서 강력酸검출

★美百貨店서 구입한 것에서

배터리용 酸만큼이나 강력한 酸이 인디애나州 미니애폴리스에 사는 한 부인이 시내 백화점에서 구입한 3개의 치약속에서 검출됐다고 美식품의약국(FDA)의조사관들이 4일 밝혔다。

FDA의 화학담당 전문가인 짐·로버트씨는 이 酸이 데이튼백화점에서 판매한 크레스트 치약튜브의 목부분에서 발견되었으며 옅은 갈색을 띤 물질이기 때문에 치약을 짜낼때 치약이 줄무늬를 만들며 나왔다고 말했다。【미니애폴리스=AP】



● 백학같이 우아한 미!
●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베비아·원

Eglinton
Millwood
Bayview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마피아 시실리로 歸鄕

世界의 社会面

麻藥으로번돈 企業에 투자

伊 GNP의 2%까지 生産

◇마피아의 본거지 시실리섬이 고향을 찾아온 마피아와 그들의 범죄산업으로 흥청대고있다. 사진은 갱단소탕작전을 벌이고있는 이탈리아 경찰.

마피아의주류가 고향인 이탈리아의 시실리섬으로 돌아왔다. 30년대 뭇솔리니에 쫓겨 미국으로도망쳤던 마피아들은 미국에서 연방법무나 움가는 범부로흉악만큼 악명을 드날리다가 제집을 찾아온 것이다. 미국에서 갈고닦은 범죄수완으로 마피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해져 있다. 의리를 중히하던 옛 마피아들은 대부분 저승으로 갔고, 이제는 젊은 마피아들로 세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범죄는 더욱 잔인하고 교활하며어느면에선 세련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그들의 사업에는 변함이없다. 「시실리·커넥션」은 마약밀매의 대명사였다. 한때 프랑스의 마르세유를 본거지로 한 「프렌치·커넥션」에 눌려 있었으나 「프렌치·커넥션」이 봉파된후 「시실리·커넥션」은 [illegible]를 회복했다.

요즘 시실리는 30년대 미국 시카고를 방불케하는 마피아의 소굴. 그러나 옛날처럼 피비린내만 나는게 아니라 마약으로 벌어들인돈으로 기업체를 운영하는등 세련미를 보이고있다.

지난한햇동안 시실리섬에서 1백여개의 은행이 새로 개점했다. 이탈리아 은행예금액의 10%가 시실리에 몰려있으며 이탈리아 국민총생산(GNP)의 2%를 마피아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탈리아신문들의 보도.

시실리섬에선 요즘 건설회사가 신설되고 호텔, 아파트, 슈퍼마키트를 비롯한 각종유흥산업이 흥청대고 있다는 소식이다. 신설되는 건설회사의 대부분이 마피아 소유로, 마약밀매로 번돈을 합법적인 기업투자로 위장하고있는 것이다. 시실리의 한법관은 시실리건설회사의 80%이상이 마피아 소유라고 말하고있다.

지난해 세계에서 거래된 마약은 60톤으로 어림되는데 이중 3분의1이 시실리를 거쳐갔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거래대금도 1억6천만달러(1천2백20억원)로 추산된다. 시실리가 마약밀매의 본거지로 다시 부상하기 시작한것은 주민들이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경찰협조를 꺼리는데다 섬이라 외부와 차단돼 마약정제공장을 차리기가 비교적 수월하다는 점등이 그 이유로 꼽히고있다.

시실리마피아는 서남아시아 특히 파키스탄산 아편을 배로 실어다 이곳에서 정제한뒤 미국에 팔고있다.

마피아산업은 전통적으로 마약밀매외에 도박, 매춘, 유괴등 범죄산업을 바탕으로하고있다. 때문에 이탈리아정부는 마피아의 발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파돌리니수상도 「마피아가 시실리만이 아니라 전이탈리아를 썩게한다」면서 마피아소탕을 지시했다.

지난여름 칼로·달라·치에사장군의 암살은 마피아의 소행이라는 說이 유력하다. 「붉은旅團」을 일망타진한 치에사장군은 마피아소탕작전의 총책임자로서 암살되기전 시실리섬의 은행거래, 건설계약, 마피아와 정치인들과의 관련내용등에대한 조사에 착수했었다.

마피아는 이탈리아의 여당인 基民黨에 은밀히 줄을대고있는데 이에 정면도전하고 나섰던 소장파 피에르·마타렐라의원이 암살되기도했다. 마피아에대한 공격은 현정부뿐만 아니라 교황청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마피아는 비도덕적이며 사회에대한 위협』이라는 교황청의 첫공개비판이 그것.

다음달 시실리를 방문하게 될 요한·바오로2세 교황도 마피아를 비난할것으로 예상되며, 다음달 미국을 방문하는 스파돌리니수상은 레이건 대통령에게 미국으로 도망쳐온 마피아두목을 이탈리아로 송환토록해줄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탈리아정부는 마피아소탕임무를 정보책임자인 에마뉴엘·데·프란체스코에게 맡기고 권한도 치에사장군때보다 훨씬 강화시켰다. 【林鐘乾기자】

쿠바 反體制시인 발라다레스 석방

미테랑·마르케스 탄원 카스트로움직여

22년만의 自由…부인과 파리서 만끽

特派員 노트

쿠바시인 아르만도·발라다레스는 22년만에 되찾은 자유의 첫발을 파리의 한모퉁이에서 소리없이 음미하며 보내고 있다.

그는 아바나의 감옥속에 있으면서 인연을 맺은 부인 마르타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후 정상적인 조용한 생활을 살고 싶어한다. 가장소박한 인간다운 삶만을 그는 소망하고 있을 뿐이다.

그는 감옥에서 이렇게 썼다.

『나비는 다채롭고/꽃은 시들지 않는/그렇게 붉이 영원한/고장이 있다면/만약 환희의 정원이 있다면/[illegible]』

발라다레스는 피델·카스트로가 바티스타 정권을 전복한 2년후 1960년12월에 22살의 청년이 반체제집단의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혀 정치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61년 30년징역형을 선고받고 카스트로의 囚人이 되어 기나긴 감방생활을 시작했다. 도중 25년으로 감형되었으나 형기만료는 1986년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유죄를 거부한 발라다레스는 여러차례의 단식투쟁에 1974년부터 영양실조등에따른 다발성신경염으로 두다리가 마비되어 걷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실제로 두다리가 마비됐었다. 여러번의 단식으로 유발된 것인데 1978년까지 치료를 받지못해 불구상태였다』

발라다레스는 이렇게 트·(트·롤)紙와 인터뷰하면서 밝혔다. (트·롤드는 이르키에 관해 쿠바당국이 주장한 바는 단식투쟁이지만 사실은 쿠바당국에 의한 66일간의 禁食조치보복이라고 주장) 아울든 쿠바당국은 그가 꾀병을앓고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를 느꼈다. 자유는 內心으로부터의 자세임을 알았다.』

그는 철창속에서 자유를노래하는 새가되어 3권의 시집을 썼다. 해외로 유출된첫번것은 「카스트로의 囚人」이라는 제목으로 파리에서 출판되고 또하나는 「휠 체어에 앉아서」란 타이틀로 출판되어 널리 읽혔다.

1980년 『휠 체어에 앉은 카스트로의 囚人』을 구하자는 국제적 캠페인이일어나자 쿠바당국은 태도를바꾸어 휠 체어의 발라다레스에게 영양보급, 물리요법등 집중적인 치료를시작했다. 그리하여 6개월만에 그는 기적적으로 다시 걸을수 있게됐다. 두다리 마비로 휠 체어에 앉았던 囚人이 다시 걷게된 미스터리는 이렇게 풀렸다.

아르만도·발라다레스가 아바나의 감옥에서 풀려 파리로 향하던 날은 우연히도 스웨덴 翰林院이 콜럼비아 作家 가브리엘·가르시아·마르케스의 노벨문학상수상을 발표한것과 때를 같이했다. 프랑스와 미테랑대통령에게 발라다레스의 석방을 주선하도록 탄원한 사람의 하나가 바로 마르케스였다.

미테랑은 언제나 시인의문제에는 남다른 관심을 표시한다. 루마니아 반체제망명작가 비르질·타나세를 逆스파이공작으로 보호한것도 그였다.

작년5월 대통령취임식에 그는 마르케스를 특별석에초청했고 12월에는 마르케스의 가슴에 레종·도뇌르최고훈장을 달아 주었다. 미테랑이발라다레스석방에 직접 개입하기로 결심한것은 마르케스를 위시한 몇사람의 南美저명작가와 만찬을 같이한 바로 그날(작년12월2일)로 알려졌다.

미테랑은 「순수한 인도적 입장」에 입각해서 발라다레스를 석방해달라는 친서를카스트로에게 보냈다. 문화상자크·랑도 쿠바문화상 아르만도·하르트에게 편지했다. 피에르·모르와수상도 파리를 방문한 쿠바실력자 카를로스·라파엘·로드리게스에게 인권문제를 거론했다. 파리와 아바나를 자주 왕복한 마르케스도 분위기조성에 한몫을 담당했음직하다.

10월중순 카스트로는 아바나에서 미테랑의 문화담당 보좌관 레지스·드브레와 5시간 회담한후 마침내 발라다레스의 석방을 허락하겠다는 뜻을 보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언제나 외국의 간섭을 거부해왔다. 이번 조치는 순전히 프랑스와·미테랑의 프랑스때문이다』

44세가된발라다레스가 마드리드를 거쳐 오를리공항에 도착한 10월22일 미테랑은 「인적인 우의의 감정을담고, 전프랑스와 함께 세계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시가에 경의를 표한다」는요지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발라다레스는 69년에 알게된 부인 마르타의 얼굴을 이날 처음으로 대했다.

스페인의 작가 페르난도·아라발을 위시한 『쿠바시인 아르만도·발라다레스 옹호위원회』의 지식인들과도 만났다. 레지스·드브레별보좌관은 『당신은 자유의 땅에 있다. 당신은 이제 원하는것을 말하고 쓸수있다』고 환영인사를 했다.

『국가권력을 독점했어도 카스트로는 철창속의 시인에게 위협을 느꼈다. 독재자가 시인을두려워할 때 거기에는 항상 [illegible] 상의 것이었다』고한 뉴욕타임즈의 사설은 파리에서도 [illegible]

【파리=安炳燮특파원】

◇발라다레스와 그의부인 마르타。 【렉스프레스誌】

「聖靈치료」 줄다리기

奇蹟이루는 黑人대주교 교황청서 격리하자 信徒들은 "석방요구" 시위

가톨릭 대주교가 신앙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것을 금지시킨 교황청과 치료를 받고자하는 신자들간에 줄다리기가 벌어지고있다. 신앙요법, 혹은 악마를 쫓아내는 기도로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은 잠비아출신의 엠마누엘·밀링고 대주교。

그는 1969년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 대주교로 임명될 때만 해도 교황청의 신임을 받았다。그는 정열적이고 신앙심깊고 온전하고 학식이 있다는 평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교황청의 희망대로만 하지는 않았다。그는 지난 4월 교황청으로 소환되어 「휴식과 반성」을 하면서 정신치료를 받도록 한 수도원에 격리되었다。

밀링고대주교의 감금은 잠비아의 가톨교도를 분노케했다。신도들은 10월 중순에 카브웨市에서 두차례의 대중집회를 열고 밀링고대주교를 11월4일까지 「석방」하라고 요구했다。일부 신도들은 교황청과의 결별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고있다。

아프리카신도들이 결별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서게 만든 원인은 밀링고대주교의 신앙요법을 교황청이 異端視하는데서 비롯됐다。

밀링고대주교가 신앙요법의 권능을 얻은것은 지난73년 10월 로마市 교외의 로카디파파라는 작은 도시에서 였다。그는 바티칸에서 발행한 설교집을 읽다가갑자기 정신이 황홀경에 빠졌다。그는 성령이 자신의 몸속으로 흘러들면서 『가서 나의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신앙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밀링고대주교。

아프리카로 돌아온 밀링고대주교는 병든 신도들을 치료하기 위해 기도했고 오래지않아 수백명이 기적처럼 나았다고 말했다。

나이로비에서 심리학강사로 있는 프란시스·란달이라는 미국인 수녀는 골절된 미골(尾骨)의 고통이 말짱하게 치료되었다고 말했다。치료를 받고자하는 환자들이 아프리카 전역으로부터 몰려드는가 하면 밀링고대주교는 미국, 유럽 등지로 원정을 가서 치료도 해주었다。

그가 아프리카사제단회의에 참석했을때는 환자들이 회의장 밖에 운집해있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밀링고대주교의 반대자들은그가 현대 의약품을 무시하고 아프리카 부족들의 부적과 같은 물건들에 대한 신앙을 강화시키는 일종의 가톨릭마법사라고 비난한다。반대자들은 또 그가 교회행정상의 의무를 소홀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있다。일단의 아프리카 사제들은 지난 78년 그에게 치료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그가 이에 응하지않자 교황청은 결국 그를 소환했다。밀링고대주교는 신이 부여한 그의 권능에 대한 신념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술이나 주문을 사용하지 않으며 현대의료기술에 반대하지않는다고 주장한다。

사실 그는 이동병원을 설립했으며 그지역 의사들에게 자신의 치료가 제대로 되었는가 조사를 부탁하기도했다。

그는 자신의 치료행위는 제2회 바티칸회의가 가르친대로 지역문화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채택방법이며 일종의 그 토양에 대한 적응이라고 말한다。

밀링고대주교는 『백인선교사들은 퇴행하고있다。그들은 자기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그들은 아프리카를 그리스도교로 교화하기를 원하는지 아닌지부터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朴來富기자】

名人戰

제14기 挑戰者決定리그

第3局 第3譜 25~36 (각5시간·덤5집반)

黑(7段) 河燦錫

白(4段) 李相激

남의 집이 커보이면

우하귀외곽의 축머리에 黑25까지 두어놓은 河7단은 白26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말은 안했지만 역시 하고 긍정적인 표정。

그럴노릇이 26을 직접 白「간」로 탈출하면 黑26을 당하여 白이 불리해진다。

黑27이 하나의 갈림길이었다。이수론 좌하귀를 黑「나」로 굳히고 白「가」면 黑「다」白「라」로 되는설계도 생각되지만 河7단은 모처럼 2수나소비한 축머리를 계속 두텁게 처리했다。

그런데 白28(이수는 절대)을 보더니 갑자기 하변일대의 白세가 크게 느껴졌는지 黑29로 서슴없이 협공했다。이제까지 차분하게 짜가려다가 「표변」한 것일까。

河7단은 이수를 두면서 『남의 집이 커보이면 진다는데…』하고 불평되었지만 국후검토때도 河7단 답지않은 의문의한수란 평이었다。

따라서 『黑29는 참고도와같이 黑1이하로 간편하게 정리하고 白6때 우상귀를 黑「마」에 붙여 선제공세를 취하고싶다』는 徐能旭6단의 의견에 수긍이간다。

실전은 白30이 준엄하여 이하 白36까지 白이 전체적으로 리드하고있는 판이라고 한다。 【一凡】

學力 바겐세일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불경기로 취직문이 좁아지자 일본의 求職者들은 안정된 직장을 위해 學歷을 낮춰 취직시험에 응시하는 색다른 풍조가 나타나고 있다。

즉 大卒者가 「短大卒수준」(우리나라 초급대학수준)의 시험에, 短大出身者가 「高卒수준」의 시험에 응시한다。

東京都가 지난10월 실시한 일반직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 「大卒수준」「短大卒수준」「高卒수준」등 3개등급 시험에 모두 8천9백63명이 응시, 평균 1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특히 채용인원이 10명인 「短大卒수준」에는 1천9백명이 몰려 무려 1백20대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중 상당수가 大卒者라는것。올해 시험결과는 12월말의 집계를 봐야 알겠지만 작년의 경우 「短大卒수준」 시험합격자 11명 전원이 大卒者였으며 「高卒수준」에는 합격자 3백47명중 36명이 短大출신자였다。

3、4년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학력낮추기현상은 불경기로 인해 직장을 얻기가 힘들자 안정된 직장을 노린것。

또 대졸자가 「短大卒수준」의 시험을 치르고 취직했다고 해도 실제 修學연수에 의해 급여가 주어지기때문에 「大卒수준」합격자와 봉급차이가 별로 없고 승진도 별도의 승진시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學力」만 있다면 「學歷」은 별 문제가 안된다。

그러나 이러한 「學歷낮추기풍조」는 결국 高卒者들의 취업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는 소리가 높아져 東京都인사위원회는 學歷의 제한없이 연령제한만을 규정하고있는 현재의 考試제도개선책 마련에 부심하고있다。

당초 「學歷」은 없어도 「學力」있는 응시자들의 취업기회를 넓혀주기위한 제도가 세태가 달라짐에 따라 「學歷바겐세일」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부작용을 빚은 셈이다。 【朴永請기자】

애절한 榮光안은 不具소녀의 「意志」

선천성 뇌성마비… 童詩에 自身의 마음담아

새싹文學賞받은 徐晶瑟양

선천성뇌성마비로 몸조차 제대로 가누수없으면서도 착하고 아름다운 童詩를 지어온 徐晶瑟씨(36·사진)가 새싹회 제10회 새싹문학상수상자로 뽑혔다。수상작품은 「내가 걸을 수 있다면」 「소녀의 기도」 「벗에게」등 3편의 동시작품。서정슬씨는 80년12월에 시집 「어느 행한 탄생의 노래」를 엮어냈다。이렇게 기로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멸시의 눈초리속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않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아온 눈물겨운 이야기가 사회에 알려졌다。

그는 선천성 뇌성마비로 남처럼 걸을 수도 말할 수도 없고 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경련성마비로 손과 얼굴마저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도 타고난 따뜻한 마음씨와 정서적인 기질로 어려서부터 책읽기와 글짓기를 좋아했다。14세부터 어린이 신문과 잡지에 맑고 깨끗한 心境의 모습이 드러나는 애절하고아름다운 詩를 발표했다。

새싹문학상수상작 「소녀의 기도」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개미를 한마리 죽인 일이 있어요/그 개미는 사람을무는 놈이었어요/다리를 따끔따끔 물길래/손가락으로 꾹 누른거예요…/그보다훨씬전어렸을땐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요?…』는 그의 슬픔이 너무나도 맑고 깨끗하게 그리고 착하게 드러난 작품。그의 詩作장면을 바라본 이들은 『徐씨는 마구 경련을 일으키는 손으로 써놓은 흔들린 글씨체의 동시작품을 보면 어느 훌륭한 시에서도 맛보지못할 감동을 맛본다』고 말한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60>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안개속의 집 ㉗

『나가봐야겠어요』 그가 훌쩍 일어서며 나가다말고 돌아서서 말했다。

『주인어른 계신…』

『출장중이에요。외국에』

『네、그래서 한번도 못뵀군요。미국에 가셨나요?』

『아뇨、중동쪽이에요』

유기사의 표정이 내부에불이 들어온것처럼 밝아졌다。

『그쪽이 괜찮다죠? 노동자들도 거기한번만 다녀오면 집 장만할 정도의 밑천도 모은다고 그런대요』

『잘은 모르겠지만 소문하고 실속은 좀 다르겠죠』

『아녜요。여편네 잘못간 난 친구 빼고는 백발백중 다 큰돈 벌었걸랑요』

그가 더운 침을 삼켰다。

『왜 유기사도 생각 있어요?』

『할수만 있다면야 어부가 있나요』

수지로선 무심히 한번던져본 말이었다。전혀 미끼삼을 생각없이 던진 말에 허겁지겁 걸려든 그를 보며 수지의 가슴은 고통스럽게 죄었다。유기사의 창백한 정도의 치사스러움조차 수지에겐 감동스러웠다。

『그렇지만 보일러기술 가지고도 중동 갈 수 있을라나? 나도 그 방면에 아는건 없지만 얼핏 생각해도 그런…』

수지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호소력처럼 중얼댔다。

『사모님 제가 이래뵈도 자격증이 몇개라구요。고압가스기능사、정비사、목공、내장、다 자격증을 따놓은 걸요』

유기사가 자랑스럽고도 비굴하게 말했고 그런 상반된 게 그의 태도를 더할수없이 간절하게했다。

『그래요? 몰라봤네。그럼 그중에서도 보일러 일이 가장 수입이 나아서 이일에 종사하는거예요?』

『그렇지도 않아요。이일은 제가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은 곳이라、이를테면 뭐고 물입죠。자격증이고 뭐고 없이 일이 없어 못하진 않으니까 여간해선 발을 못 빼는거라서요』

『그런데 왼 자격증을 그렇게 많이 땄어요?』

『일이 정비기술로 출발해 가는걸보면 저도 그걸배우고 욕심이 좀 잘 간다면 라는 소문이 또 그럴싸하면 그걸배우고 그래서 그렇게 된거죠。그렇지만 자격증만이지 실지경험은 없어요。시험봐서 얻어져도 봐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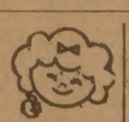
『그럼 중동을 시험도 봐봤군요?』

『거기 가려고 배운 기술이니까 기회있을때마다 보는데 운이없는지 잘안되네요。꼭 있어야 된다고들 그러지만 전 뭐나 기술이 좀으니까 그런편입니다만。그냥 기운쓰는 막노동으로라도 가기만했으면 좋겠어요。제가 내의 일은 섭섭잖게 해드릴테니까 사모님께서 주인선생님께 다리 놔 주시면 어떻게 막노동자리라도 안될까요? 저만 못한 사람도 잘만가는 걸 보면 배없단 말밖에 나오는게 없다구면요』

『글쎄요。우리 주인에게 그런 권한이 있을라나 나도 모르겠는 걸요。한번도 그런 부탁 받아본 일조차 없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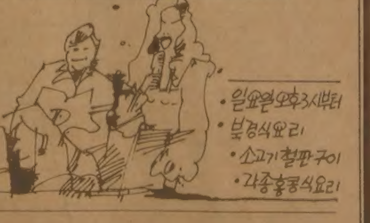
『하빠리 막노동자리 누가 감히 사장님께 직접 부탁하겠어요。하빠리 노동자야 브로커를 밟아죠。그렇지만 사장님 같은 분이 유념만 해주신다면 막노동판 하나 보내긴 손가락하나 까딱하기보다 더 되겠어요』

유기사가 더욱 더 간절한 시선으로 손을 부비고 서있는걸 보면서 수지는 문득 삶을 이렇게까지 바싹 가까이에서 본적이 없는 것처럼 느꼈다。그렇게까지 치사스럽게 굴면서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한다는 건 얼마나 엄청난 비극인가。



533—2361

오리엔탈 · 파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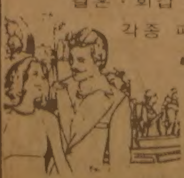


529 BLOOR ST. W. TOR.

533-3545·6

거구장

결혼 · 회갑 · 생일잔치 ·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일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스타 미용실

동부영업
11월15일
(월)부터
예약전화
741—4410(평일)
267—0333(월)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저희 스타미용실을 많이 애용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에 계신 교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11월15일(월)부터 동부 한국식품 플라자내 2800 Eglinton Ave. E. 에서 매주 월요일 영업하게 되오니 동부에 계신 여러분들의 많은 애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동부영업시간 : 오전10시~오후7시
2800 Eglinton Ave. E.
(동부한국식품 플라자내)
※동부 예약은미리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영업시간 : 화요일~토요일
오전9시~오후8시
287 Finch Ave. W.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 · 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월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교또레스트랑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 수~토 : 5:30PM~11:00PM
5:30P.M.—10:00P.M.
●월, 화 CLOSED
5304 YONGE ST. (at FINCH) 221—1621
KOTO JAPANESE RESTAURANT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장의사>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내년1기분 지난9월에 미리 받은 學校도

일부 私立中高校 공납금納期 앞당겨

극심한 財政難으로

사립중·고등학교의 상당수가 극심한 재정난에 견디다 못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선납받고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서울시내의 경우 대부분의 사립중·고교가 최근 학교운영을 위해 4기분(12·1·2월분) 등록금을 당겨 선납받았으며 일부학교에서는 이미 지난 9월말에 1기분을 앞당겨 받아 부족한 학교재정을 충당했다는 것.

이에대해 학부모들은 「특혜」를 받지 못하는 「사립」에 배정된것만도 불평등한데 재정난에 허덕이는 학교살림을 위해 자녀들의 등록금까지 선납하는데 대해당혹감을 느끼면서 국고를 보조해서라도 이같은 사태는 없도록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특히 학교형편을 잘아는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의 묵인아래이뤄지는 선생님들의 이같은「등록금선납」 호소에 모르는척 할수도없어 괴롭기만 할뿐이다.

규정대로라면 4기분등록금은 오는11월말까지 납부하면되지만 중학생을둔 학부모는 3만7천6백원을, 고등학생은 6만4천7백원을 예정에도없이 선납하고있어 당해분기분을내는데 허덕이는 서민층을 더욱괴롭히는 결과가 되고있다.

사립학교들의 이같은 변칙적인 등록금선납제는 학교재정이 너무 쪼들려 교사들의 봉급을 제때에 주지못할정도가돼자 유일한수입원인 등록금을 앞당겨 생긴것이다.

사립학교의 재정난은 어제오늘 비롯된일이 아니지만 최근들어 더욱 재정난이심각해진 사립학교들은 궁여지책으로 학부모들에게 구차한손을 내밀지않으면 안되게까지 됐다.

이같은 재정난은 서울시내의 경우 여사가같은 명문사립일수록 심각한데 P고등학교는 지난 8월말 전체학생의 20%에 해당하는 학부모들에게 통지문을 보내 4기분등록금의 선납을 호소, 9월분과 10월분의 교사월급을 해결했고 역시 명문고로 비교적 재정이 튼튼한 J고등학교도 지난9월말까지 일부학부모들로부터 등록금을 선납받아 교사들의 10월분 봉급을 지급했다.

이밖에 B중고교 H중고교 D고교 P여중고 D여중고등 대부분의 사립학교들도 선납제도로 간신히 학교를운영해 가고있다.

B고교측에 의하면 11월분까지의 교사월급등은 해결했으나 정작 등록금기간인 12월부터 내년2월까지는 학교를 어떻게운영해갈지 막연하다고 밝히고 「사채나 은행빚을 내는수밖에 없다」 「학부모들이 이런사실을 알면 빚지는학교에 아이들을보낸다는 사실에 얼마나 가슴아파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들 사립학교들에 의하면 학교가 재정난에 허덕이게된 이유는▲지난 75년부터 제도화된 고교평준화 조치로수업료를공립과같이하향조정했고▲역시 평준화때문에 특별찬입학이 금지돼있어 공식적인 기부금을 받지못하게 됐으며▲당국의 종용에따라 학생배정으로 필요이상의 학급증설하게돼 운영비가 많이들게됐고▲사립학교 교원들이 평균호봉수가 공립보다높아 인건비가 많이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P고교의 한 학부모는 『시설등 교육환경이 공립보다떨어지는 사립에 배정된것도서러운데 학교가 공공연하게등록금선납을 호소하고있어 더욱 억울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고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가 1백50개교로 전체고교의 60%가 된다. 【李鍾九기자】

◇母川에 돌아온 연어

경북 도립인공부화장 연어채포사 張斗遠씨(43)가 盈德郡 五十川에서 잡은 길이80cm·무게3kg의 연어. 요즘 연어들이 산란을 위해 五十川등 母川으로 회귀하고있다. 【大邱=聯】

東海岸 곳곳에 연어回歸 늘어

杆城 北川서도 잡혀

【束草·大邱】강원高城郡北川에도 연어떼가 찾아와 三陟의 五十川, 襄陽의 南大川, 蔚珍의 왕피천에 이어 동해안 각하천에 연어가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부터 襄陽 南大川과 三陟 五十川에 연어떼가 찾아와 하루 30마리에서 최고 79마리까지 잡히고 있는데 4일에는 별다른 기대를 갖지 않았던 杆城邑北川에서도 6마리가 잡혔다.

이날 北川에서는 지난2일 강원도의 허가를받은 文光植씨(60·高城郡 巨津邑 松竹里)의 채포장에 6마리가 올라와 잡혔는데 잡힌 연어는 산란기를 맞아 한결같이 알을 밴 1m내외의 섬어로 검푸른 몸매를 번뜩였다.

北川에는 2~3년전부터 매년 가을이면 몇마리씩 연어가 선을 보인다는 정보에 따라 올해 文씨가 처음으로 도로부터 채포장 설치허가를 받아 그물을 설치해 뜻밖의 개가를 올린 것.

北川하구주변 바다에는 현재 무리를 이룬 연어떼가 계속 회유, 文씨는 이달하순 계속해서 잡힐것같다고 희망에 부풀어 있다.

지금 동해안을 찾는 연어는 16년전부터 三陟강원도립연어양어장에서 알을받아 부화, 방류해 완전한 지금 母川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연어는 우리하천에서 산란되어 새끼로 자란다음 이듬해 4~5월에 바다에 들어가 조류를 따라 북상해 캄차카반도를 중심으로한 베링과 오호츠크해에서 3~4년을 생활하다가 산란기를 맞으면 母川을 찾아 돌아오는 회귀성 어족이다.

4일 北川의 연어소식을 듣고 달려온 강원도립연어장장 劉英玉씨(57)는 『南大川 五十川에 이어 北川에서 이번에 잡힌 연어는 처음으로 연어자원이 동해안 각하천에 확산, 회귀하고 있다는 확증을 얻게됐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경북 도립연어인공부화장도 10월중순부터 산란을 위해 경북盈德郡江口面小月里五十川과 蔚珍郡近南面 守山里 왕피천으로 올라오는 어미연어 93마리를 잡아 9만여개의 알을 채취했다. 【聯】

도박판解決士 拘束

【大邱】경북도경은 5일 石哲均씨(52·大邱市北區古城洞5街108) 李春國씨(43·大邱市西區院垈洞3街1315)등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8월2일하오 軍威郡軍威邑西部洞 해정다방에서 배성환씨(41·구속중·義城郡鳳陽面花田洞)등 2명에게 도박판에서 申우식씨(38·義城郡鳳陽面龜山洞1352)에게 딴 2백만원을 申씨에게 돌려주지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위협, 1백50만원을 받아내 申씨에게 1백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50만원은 사례금조로 가로챈 혐의이다. 【聯】

커브길 過速트럭 굴러 3명 現場서 숨져

【光州】4일밤 9시께 전남康津郡 兵營面朔羊里앞 커브길에서 서울국제건설소속 서울8다9038호(운전사 李政植·28) 1톤트럭이 운전부주의로 2m높이의 언덕아래로 굴러 운전사 李씨와 옆자리에 타고있던 국제건설사원 張相均씨(27·서울麻浦區東橋洞147의23), 李奉洙씨(30·경기도光明市光明3洞32의171)등 3명이 그자리에서 숨졌다. 【聯】

船員끼리 是非끝에 칼로찔러 2명殺傷

【大邱】4일 하오 6시40분께 경북鬱陵郡道洞 흑진주여관내실에서 이마을 김민규씨(33·삼성31호선원)가 동료선원인 강석수씨(26·浦項市鶴山洞181)을 흉기로 찔러 그자리에서 숨지게하고 말리던 동료선원 최소곤씨(30·浦項市竹島洞22의31)에겐 중상을 입혔다.

김씨는 이날 강씨가 『왜반말을 하느냐』고 시비를걸면서 때리자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다. 【聯】

당분간 集會금지 高大, 긴급敎務委

高麗大는 5일 상오 긴급교무위원회를 열고 당분간학생들의 학내 과외활동과 집회등을 금지하기로 결의하고 학생회장명의로 공고문을 붙였다.

高麗大는 지난달 28일부터 문과대 주최로「녹두학술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5일하오에는 탈춤과 심포지엄등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교무위원회의 결정으로 취소됐다.

開天예술제 開幕

【晋州】제32회開天예술제가 5일상오 신안벌 晋州공설운동장에서 李圭孝慶南道지사 李永東교육감을 비롯 기관장 시민 학생등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됐다【聯】

5行뉴스

◆40代남자 연탄가스自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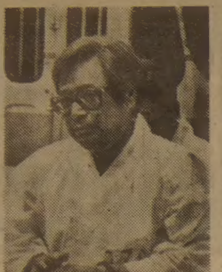
【釜山】4일 하오5시께 부산시南區龍湖1洞303 박송길씨(41)집 안방에서 박씨가 사업에 실패한것을 비관, 방안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했다.

◆석유뿌리고 분신자살

【釜山】지난4일 하오 1시께 부산北區華明洞 주공아파트 32동37호에서 이집 주인 이목은씨(52)가 생활고를 비관,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분신자살했다. 【聯】

孔德鍾(前商業銀行長) 피고인 病保釋

어제下午출감 李圭光피고도 申請중



◇李·張부부사건후 첫보석이 결정된 전 상업은행장 孔德鍾씨. 5일 하오늦게 출감했는데 주거지가 가톨릭성모병원으로 제한됐다.

李哲熙·張玲子부부의 거액어음사기사건과관련,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항소심에 계류중이던 전상업은행장 孔德鍾피고인(59)이 5일하오 재판부의 보석허가를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李·張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朴萬浩부장판사)는 이날 『孔피고인의 변호인 金秉憲변호사의 보석신청사유가 이유있다』고 판단, 보석금 1백만원에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孔피고인의 주거는 가톨릭의대 부속성모병원으로 제한됐다.

이날 재판부의 보석허가결정을 통보받은 서울고검 曹干鉉검사는 즉시항고를포기, 孔피고인은 보석금을 납부한후 검찰의 석방지휘에 따라 하오 늦게 그동안 수감돼있던 서울구치소에서석방됐다.

孔피고인은 李·張부부로부터 5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日新제강에 부정대출을 해준혐의로 지난5월15일 대검중앙수사부에 구속돼 업무상배임및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된후 8월19일 1심선고공판에서 징역4년에 추징금5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항소직후 변호인 金변호사가 『신병인 중증당뇨와 고혈압증세가 악화돼 수감생활을계속할수없고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없다』는 이유로보석및병원감정유치신청을냈었다. 한편이에앞서孔피고인과 李圭光피고인(57)은 신병이 악화돼 지난2일부터 서울대병원에서 3일간 정밀검사를 받고 5일낮12시30분께귀소, 재수감됐었다.

이들 두피고인의 진단을맡았던 서울大병원 내과과장韓鏞徹박사는 이날『1개월전과 지난1일등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구치소로가 진찰을 했다』고 밝히고 李·孔피고인이 모두 체중이 25kg 이상이나 줄었고 출혈성위염증세로 중환상태』라고 말했다.

두피고인은 지난2일 하오6시 서울대병원에 입원, 그동안 대장및췌장에대한 X선촬영과 간기능검사등의 정밀진단을 받았다.

李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이후 궤양성대장염·류머티즈성관절염·만성췌장염등의 증세로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을 받기전에도 韓一병원과 서울대병원에서 2차례치료를 받았으며 孔피고인역시 중증당뇨와 고혈압·간경화증세로 西大門금화병원에서 2차례 치료를 받았었다.

李피고인도 재판부에 보석신청과 병원감정 유치신청을 내고있다.

全南大生등 교내示威 선동혐의 둘拘束

【光州】光州 西部경찰서는 5일 金錫昇군(22·全南大무역과3년)과 文龍植군(25·무직)등 2명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金군과 文군은 지난10월13일부터 18일사이 全南大내에서 선동하거나 불온유인물을 제작살포한 혐의를 받고있다. 【聯】

電工 4명 窒息死

大田 맨홀서 케이블修理중 毒가스에

【大田】5일하오 3시께 大田市東區弘道洞68 홍도육교아래의 전화맨홀에서 고장난 지하케이블을 수리하러 맨홀로들어갔던 태양전업사 전공 이상철씨(31)등 4명이 종류를 알수없는 독가스에 질식 모두숨졌다.

숨진 이씨등은 이날하오2시30분께 전화케이블 수리를 위해 현장에도착 이씨가 맨홀안으로 들어갔다 가스에질식 맨홀밑에고여있던 물속에 넘어지자 동료유인하(42·東區紫陽洞103의13) 이두선씨(40·東區大洞26의16) 현승열씨(21·東區大東산1)등이 차례로 동료를구출하려 들어갔다 가스에 중독, 모두 숨졌다.

이들이 차례로 숨지자 현장에 함께 케이블수리를하러왔던 최광진씨(20·東區大洞7)가 경찰에신고 긴급출동한 경찰이 이씨등의 시체를 끌어냈는데 경찰은 깊이 3m가량의 맨홀안에 무릎까지차는 물이 고여있는점 등으로 미루어 메탄가스에 의한 중독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이와함께 작업하던 최광진씨에 따르면 지하케이블의 수리를위해 맨홀뚜껑을 열고 사다리를 내린뒤 맨먼저 맨홀로 들어갔던 이상철씨가 사다리중간쯤에서 가스에 취해 맨홀바닥으로 떨어졌고 뒤를이어 내려가던 유인하, 이두선, 현승열씨등도 차례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때 최씨는 이씨등 4명이 차례로 유독가스에 질식, 맨홀바닥으로 떨어지는것을 보고곧 경찰에신고했는데신고를받은 경찰은 양수기 2대를 동원, 바닥에 고인물을 퍼내고 가스가 빠진뒤 이들의 시체를 끌어냈다. 【聯】

아파트業者 돈받아 郡과장등 3명拘束

【居昌】부산지검 居昌지청은 5일 居昌군청 건설과장 김영복씨(36)와 건설과 기사 최영태씨(26)등 2명을 뇌물수수혐의로 居昌邑上洞 연립주택사장 김홍규씨(35)를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따르면 김사장은 지난9월25일 居昌邑上洞 대지 1천5백여평에 63가구분의 아파트를 건립, 분양을 마친후 공사기간동안 잘봐주었다면서 김과장에게 70만원, 최기사에게 15만원의 뇌물을주었다는것. 【聯】

春城郡서 새 溫泉水 발견

시추1개월만에… 하루 3백톤규모

【春川】강원春城郡東面萬泉里 지하2백96m지점에서 수온이 섭씨47~57·3도에 하루 최대3백톤규모에 달하는 온천수가 터져나왔다.

이곳 온천수는 春川 온천(대표 金鍾顯·42·서울江東區三田洞137의2)이 지난달 4일 이지점에서 유압식 시추기로 시추를 시작한지 1개월만에 온천맥을 찾아내 개가를 올린것인데 시내 後坪洞등 주공아파트2단지에서 약3㎞ 떨어진萬泉3里299논에 위치해있다.

4일 공개된 이 온천수는 직경5㎝의 배관에서 용출된 수온 47·57·3도로 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釜谷온천수(78도) 다음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시간당 용출량도 12톤이나돼 春川온천측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지화한 온천수를 도당국에 분석을 의뢰, 곧 개발에 착수하기로했다.

강원도내에는 雪嶽지구의 尺山온천과 현재 개발중인 襄陽郡西面五色里에 이어 3번째로 온천수가 발견된것인데 太白山줄기를 분기점으로한 嶺西지방에서는 처음발견된 온천수이다. 【聯】

"개망신"

한국 警察犬훈련소 申熙澈소장

숱한 명견을 키워온 申熙澈씨(35·사진·한국경찰견훈련소장)는 成安의 충견 「바둑이」 미담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지자 몹시 서운한 모양이었다. 보신탕이 판치는 세상에서 「개의 가치」를 재인식 시켜줄 계기가 사라졌기에 실망이 클것이다. 『사람과 정성으로 맺어진 인간과 개의 사이에서 그러한 미담이 얼마든지 생길수 있다』고 믿어온 申씨였기에 더욱 그렇다.

『거짓으로 끝났지만 개는 그러한 본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깨져버린 꿈이 아프기만하지 좀처럼 화제를 돌리려하지 않는다.

申씨는 15년간의 경력을 자랑하는 「忠犬훈련사」. 개가 좋아 가축병원조수가 됐던 그는 독학으로 외국서적을 탐독, 국내 최고의 훈련사가 됐다. 10명이 안되는 공인 1등훈련사중 첫손가락으로 꼽힌다.

경기高陽郡神道面龍頭里 申씨의 개훈련소는 국내 세곳의 공인훈련소중 가장 규모가 크다. 지금까지 6백여마리의 셰퍼드를 명견으로길들였고 현재도 50여마리를 훈련시키고 있다.

그가 길들인 개는 국내와 일본의 개경연대회를 휩쓸었다. 이 때문에 77년부터 매년 길들인 개 한마리씩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 특히78년에 떠나보낸 「롤프」라는 셰퍼드는 수입목재를 잠식하는 백개미를 귀신처럼 찾아내 이름을 떨쳤다.

지난번 峴底洞 지하철공사장 붕괴사고때도 그가 길들인 4마리의 셰퍼드가 흙더미속에 묻힌 사체를 찾아내기도 했다.

申씨가 명견을 길러내는 비결은 「사랑과 정성」. 아무리 우수한혈통의 개도 주인이 가족처럼 돌보지 않으면 쓸모없는 개가된다는게 그의 지론이다.

"報恩은 개의 본능…人間욕심이 문제"

申씨는 요즘도 새벽4시면 일어나 개를 돌본다. 얼굴과 움직이는 모습, 걷는 소리만 들어도 개의건강상태를 안다.

매맞고 자란개는 훈련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申씨의 경험이다. 동양의명견, 진도개가 제대로 빛을 못보는것도 매맞고 자라기때문이라는 풀이.

『成安의 「바둑이」 사건도 개를 이해못하는 인간의 허구성이 만들어낸 개망신입니다. 「개보다 못하다」는 말이 왜나오는 것이겠습니까?』 【姜秉泰기자】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82
H245-3539

病든 한국마라톤을 살린다

—제28회 釜山—서울 大驛傳경주 8일 스타트

6일간 大레이스 491·3km
5개팀 戰力평준화…熱戰예상
13일 서울汝矣島골인 / 장거리 새유망주출현 기대

제28회 釜山—서울간 대역전경주대회 (한국일보·日刊스포츠·대한육상경기연맹 공동주최)가 8일 釜山시청앞을 출발, 6일동안 491·3㎞를 주파하여 1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 골인하는 大長征에 오르게된다. 이번대회에는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 경남 충남 충북등 5개팀이 출전, 열전을 벌이게 된다. 역전경주는 釜山—慶州—大邱로 이어지던 코스를 변경, 초창기코스인 釜山—密陽—大邱로 뛰게되는데 산간벽지 코스를 피하게 됨에따라 팀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것으로 예상된다.

각팀은 이번대회에 대비하여 우수선수를 고루 포섭, 우승을향해 초반부터 열띤각축전을 펼칠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노장黃奎勳 柳文鍾 崔慶烈을 비롯하여 金周龍등 우수유망주들을 대거 확보, 우승을 노리고 있다. 서울팀은 노장과 유망주들 사이의 실력차가 거의없이 평준화되어있으며 吳在道 鄭鍾植등도 역전경주에 강한 선수들이어서 장거리레이스에 차질을빚을 염려가없다는 강점을 갖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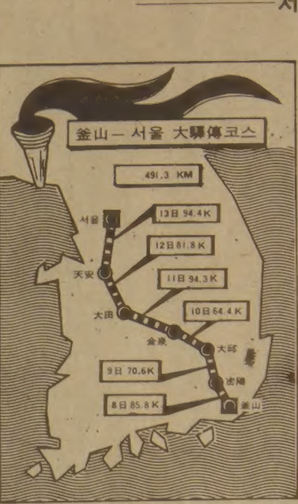
역전경주에 전통적으로 강한팀은 충남. 충남은 작년대회에 불참한 울분을 씻고 우승을 되찾으려고 적극적인자세를 보이고 있다. 충남은金鶴洙 裵銀煥 李善熙 李星稷외에 장거리계 최강자의 하나인 李洪烈을 포섭, 서울의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했다. 실력이 엇비슷한 팀끼리는소구간주자기용과 작전이 승부를 좌우하는데 코칭스태프의 두뇌싸움도 볼만하다.

경기 충북 경남도 서울과 충남을 맹렬한 기세로 견제할것같다.

경기는 레이스의 견인차朴京德을 비롯해 林相圭 尹忠求 金壯鎰 李洪植 俞貞濬등 역전의 준족들이 도사리고있으며 신인들을 보강, 신인들이 제대로 뛰어 준다면 선두그룹에 뛰어들어 파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 柳在理 趙在龍 鄭潤植 鄭弼和등 강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충북도 沈敏澤 咸弘根 柳大泳 廉炳和등 막강한 주전멤버를 갖고있지만 신인들이 얼마만큼 분발해주느냐가 문제.

제28회를 거듭하는동안京釜역전경주는 숱한 한국마라톤의 주역들을 배출했으며 신인유망주의 산실 구실을해왔다. 이번 대회를통해 침체된 한국마라톤의 앞날을 짊어질 수있는 신인유망주의 출현이 기대되고있다.



◇숱한 장거리유망주들을 배출한 京釜역전대회。4백91·3㎞를 달리는 大驛傳레이스가 8일 釜山서 시작된다。

印度 아시안게임 카운트다운 ⑥

탁구

中共 타도의꿈 이루기는 힘들듯
日本·北韓도위협적 존재
女子보다 男子팀에 기대

◇탁구 대표팀

감독	金昌濟	(44)	삼호
코치	金忠勇	(39)	제일합섬
선수	朴利熙	(25)	在서독
〃	尹吉重	(24)	삼호
〃	金浣	(21)	제일합섬
〃	金琦澤	(20)	〃
〃	李壽子	(21)	제일모직
〃	安海淑	(21)	동아건설
〃	梁英子	(18)	이일여고
〃	尹景美	(19)	신탁은행

◇朴利熙

◇金浣

◇金琦澤

◇梁英子

◇李壽子

◇安海淑

『아시안·게임에는 처음 나가지만 겁은 안나요. 모두 신인다운 투지로 열심히 싸우자는 생각뿐이랍니다』

한국여자탁구팀 주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安海淑(21·동아건설)의 마음은 밝고 담담하다. 펜홀더 스타일로 위력적인 중진드라이브를 구사하는 梁英子(18·이일여고), 수비에 강한 尹景美(19·서울신탁은행), 셰이크·핸드 스타일의 수비수 安海淑, 셰이크·핸드공격수 李壽子(21·제일모직). 평균연령 20세미만이라는 젊음이 뉴델리로 가는 『한국여자대표탁구팀』의 가장 큰 힘이다.

『4년후에 다시 아시안·게임에 나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그결과가 좋은 것이라면 더 바랄게 없겠지요』

安海淑은 좀처럼 표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만큼 바위무게의 언행을가진 선수를 남자선수들중에서도 찾기 어렵다. 조금의 과장도 미화도 없이 이야기를 맺으며 安海淑이 마지막으로 꺼낸 말은 『中共을 누르기만 한다면 더 기쁜 일이 없겠읍니다』였다.

73년이래 10년동안 20연패(국가대항 단체전통산)를 기록한 中共콤플렉스. 安海淑의 소망은 곧 모든 국내탁구인들의 소망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아시안·게임서도 타도 中共의 꿈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를 갖기는 어렵다. 한국여자 탁구는 지금 새로운 출발점에 와있을 뿐이다. 梁英子·尹景美 두10대의 손이 한국여자탁구가 희망을 걸고있는 가장 믿음직한 병기이다. 安海淑의 셰이크·핸드 수비전력은 아시안·게임에서는 유럽무대에서만큼 큰 위력을 보이지 못할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여자탁구 부동의 에이스로 활약했던 李壽子는 아직도 완전한 컨디션을 찾지못해 큰몫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10억인구속에 뿌리를 박은 中共탁구는 張立·張德英의 뒤로 曹燕華、黃玲、黃俊群、陳莉莉등으로 대를 이어 세계 정상으로 10년 아성을 지키고 있다.

2위 고수가 배수의진인 한국여자 탁구로서는 북한·日本도 위협적인 존재다.

북한 여자탁구는 임목화 김경순 방춘며 최종희등신진들로 전력을 정비, 한국에 당한 4連敗의 설욕을 노리고있다. 日本은 시마우찌(嶋内)·요시꼬、야마시다(山下)·게이꼬、호스야·준꼬、호시노(星野)·미까등신진들로 가와히가시(川東)、와다(和田)、간다(神田) 등 기성대표들을 보강、옛전통의 회복을 꿈꾸고있다.

이번 대회서는 남자팀에게서 더 큰 위안을 얻으리라는 것이 탁구인들의 전망이다. 81년 노비사드 세계선수권 에서의 개가로사기가 오른 남자탁구팀은 이제 여자탁구명성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번대회 결승진출을 노리고있다.

『서울·오픈 우승이후 우리 남자팀은 계속 상승세입니다. 이번만은 북한·日本을 누르고 中共과 꼭 한번 겨루어 볼 각오입니다』

남자대표 주장 尹吉重은 자신에 넘쳐있다. 노비사드서 북한에 5—4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한국은 朴利熙(25·在서독)、尹吉重(24·삼호) 金浣(21)·金琦澤(20·이상 제일합섬)으로 아시아2위를 목표삼고 있다.

그러나 마에하라(前原)·마사히로·이노우에(井上)·다께히로·아베(阿部)히로우끼·사이또(齋藤)·기요시·다께노우찌(竹內)·기미아끼의 日本、조용호철、홍순철、우용철、임원현의 북한은 역시 한국남자팀에게 부담스러운 강적들이다.

한국 남녀팀은 8개선리그 수위팀이 벌이는 단체전 8강리그서 필연적으로 中共、日本、北韓과 싸워야 한다. 【方錫岬 기자】

◇全대통령내외가 泰陵선수촌에서 아시아경기대회 파견 대표선수들을 격려하고있다.

國威선양선수 적극 지원
全大統領 아시안게임 선수단 격려

全斗煥대통령은 5일낮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서울泰陵선수촌 승리관에서 제9회 아시아경기대회 파견 대표선수단 3백29명을 접견한뒤 이중 선수 55명, 임원 49명등 1백4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격려의말을 통해 『이번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 國威를 선양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정부도 앞으로 이들이 마음놓고 계속 선수또는 체육지도자로서 활동할수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데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않을것』이라고 밝히고 『그동안 갈고닦은 힘과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해 우리나라 젊은이의 굳센 체력과 활기찬 氣像을 아시아 萬邦에 보여주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국제경기는 무엇보다도 참가각국국민간에 상호이해와 우의를 깊게하며 국제평화의 이념을 구현해 나가고자하는 높은 뜻을 지니고있으나 한편으로는 국가간의 운동경기가 나라마다 자기나라의 國力을 과시하고 국위를 선양하는 무대가 되고있다는 일면도 가볍게볼수는 없는일』이라고 말하고 『임원을 비롯한 체육인은 물론 선수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아시아경기대회와 올림픽대회의 주최국이 됐다는 사실을 염두에두고 경기내용과 대회운영등 이번대회전반에 관해 빠짐없이 면밀히 관찰하고 열심히 배우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尹在根의 漢大、成大 눌러
大學농구 예선리그 마쳐

제19회 추계대학농구연맹전 5일 예선리그를 완료했다. 대회 5일째예선리그 최종일 A조경기서 延世大는 建國大를 94—69로 대파, 5전전승으로 수위를 마크했다. A조의 漢陽大는 尹在根의 분투로 수비가강한 成均館大를 80—72로 격파, 4승1패로 2위를차지했고 中央大는 韓萬範의리바운드와외곽슛을 살린明知大를 101—81로제압, A조서 3승2패로 3위를 마크했으나 예선서 탈락했다.

한편 B조서 慶北大는 弘益大를 90—63으로 제압했으며 두팀 모두 예선탈락했다.

◇제5일 예선리그최종일

▲A조

연세대 94 (38—25 56—44) 69 건국대

한양대 80 (38—54 42—18) 72 성균관대

중앙대 101 (62—51 39—30) 81 명지대

▲동순위=①연세대5승②한양대4승1패③중앙대3승2패④명지대 2승3패⑤성균관대 1승4패⑥건국대 5패

▲B조

경희대(2승2패) 90 (40—27 50—36) 63 홍익대(1승3패)

野球 심판교실이 생긴다
최고참 閔俊基씨 23일 문열어

「閔俊基야구심판교실」이 오는 23일 문을 연다. 국내야구80년사에 처음 탄생되는 심판아카데미다.

야구 80年史에 첫시도
이론·실기등 교육

『반생을 야구와 함께 살아오며 꿈꾸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라운드에서 일어나는 많은 판정시비를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유능한 심판, 권위있는 심판, 그라운드위에 펼쳐지는 白球의 드라마를 멋지게 연출, 지휘할수있는 심판을 양성해내는것이 『미스터·엄파이어』 閔俊基씨(48·사진)의 꿈이다.

국내야구는 82년 프로야구 출범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그러나 별다른 준비없이 맞은 프로출범으로 프로와 아마는 제한된 인력(선수、감독、심판)을 두고 심각한 갈등을 겪어야했다. 전체적인 질(質)저하도 감수할수밖에 없었다. 몰수게임、퇴장선수가 속출했다.

국제대회및 국내대회 출장 2천2백84회, 20년 야구심판경력의 국내 최고참 심판 閔俊基씨는 나라안팎의 심판강습회, 세미나를 좇아다니며 이러한 고민을 풀기위해 고심했다.

61년 鐵道廳 현역선수생활에서 물러난 그는 63년 처음 심판복을 입었다. 64년 美8軍이 개최한 美國人심판 멜스타이너, 해리·웬젤스테트의 심판강습회를 수료, 82년에는 美國플로리다州 세인트피터즈버그에 본부를둔 빌·키네먼 엄파이어·스쿨에서 5주간의 심판수업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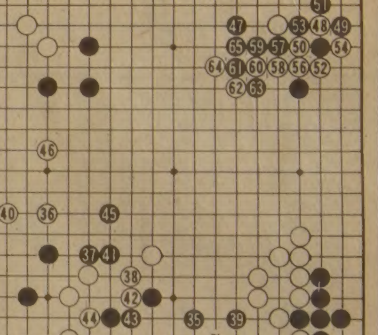
閔俊基씨의 「야구심판아카데미」는 야구심판 양성과 교육에 뜻을둔것이다. 수강대상자격에도 별다른 제한이 없다. 야구에 대한 이해와 열의, 18~40세의 연령이 자격조건이다.

「야구심판아카데미」는 11월23일 문을 열어 2월초까지는 매주 화·금요일 하오6시반부터 2시간 야구규칙、이론、도상(圖上)연습을, 2월11일부터 3월10일까지는 매주 토·일요일 실기연습을 실시한다. 수강료는 없으며 수강시설물에대한관리와난방비등은 수강생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한다. 閔씨의집 (서울龍山區漢江路3가65의500 철우아파트1동136호(전화 ⑫0201)에서 수강신청을 받고있다.

名人戰 제14기 挑戰者決定리그

第3局第4譜35~65 (각5시간·덤5집반)

白(4段) 李相澈
黑(7段) 河燦錫



전보에서 黑이 35까지 일단 안정된 자세를 취한것은 하변일대에 한없이 팽창할기세인 白세를 유린하여 성공한듯했으나 이바람에 白36까지 전체적으로 白에 리드를 당한 꼴이었다.

이제와서 좌하귀쪽마저 봉쇄를 당할수없어서 黑37에 뛰어붙였는데 白38이면 黑39가 거의절대다.

河7단은 이수를 손빼려고 7분가량 숙고했다. 그러나 정말로 손을 빼었다가 白「가」로 근거를 위협당하면 불안해진다. 해서 黑39로 가일수하여 화근을 없애놓았다.

右上귀에 大混戰

이때 白40, 일견 아리송하지만 실상, 黑의 근거를 뺏는 예리한수였다. 그리고 黑41에 대한 白42、44는 고심의흔적이 역력한 수단. 이근처의착점은 피차간 신중을 기하여지지부진, 불과5수에 도합 56분이나소비했다.

이윽고 黑45, 白46으로 타협이 성립되어 소강상태. 다음은 黑47로 협공한데서 우상귀에 급전이 벌어졌다.

白48의 상용수법으로 개시된 전투는 어려운 장면인데도 지체없이 진행되어 갔다. 白60으로 달고 이내 62로 젖혀 黑으로하여금 64자리로 뻗으라고 종용한다.

그러나 河7단은 굳이 黑63으로 끊었다. 63을 64는 승산이 없다고 본것인데 이로 인하여 우상일대가 온통 일대혼전속에 말려들게 된다. 【一凡】

55…이음。

韓國, 쿠웨이트와 B組에
亞洲대회 排球대진 확정

【뉴델리(新德里)=聯合】 뉴델리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는19일부터 뉴델리에서 개최될 아시아 경기대회 배구경기 대진표를 확정, 발표했다.

조직위는 이날 대진표조정회의를 끝낸후 18개국이 출전할 남자부를 4개조로 나누어 예선을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및 네팔과함께 B조에 편성되었다.

남북한등 6개국만이 출전하는 여자부경기는 라운드·로빈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

◆남자

▲A조=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B조=한국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네팔 ▲C조=일본 이라크 홍콩 카타르 남예멘 ▲D조=중공 버마 이란 북예멘 몰디브

◆여자=▲한국 중공 일본 인도 북한 필리핀

최우수選手 오일남
태권도선수권 폐막

82년도 태권도 전국우수선발대회 최종일 경기가 5일 국기원에서 열려 미들급의 오일남(대구대)은 정정국(명지대)에 판정승을 거두고 우승을차지, 최우수 선수로 선발됐다.

플라이급결승전서는신예고정호(성동상전)가 국가대표선수 출신의 노련한 양기모(한국체대)를 판정으로 눌러 갈채를 받았다.

◇체급별우승자

▲핀급=지용석(청주기공) ▲플라이=고정호(성동상전) ▲밴텀=한홍식(경희대) ▲페더=이재봉(한국체대) ▲라이트=정우용(한국체대) ▲웰터=최광근(한국체대) ▲라이트미들=정국현(한국체대) ▲미들=오일남(대구대) ▲라이트헤비=고영철(유도대) ▲헤비=하용성(한국체대) ▲최우수선수상=오일남 ▲지도상=李勝國교수(한국체대)

한국 실업야구 日선발과 비겨

한국실업야구 대표팀은 4일 고오베(神戶)에서 열린 日本원정 2차전에서 日本효오고(兵庫)縣 선발팀과 5—5로 비겨 방일전적 1승1무를기록했다. 李海昌은 6회초 2점 홈런을날렸다.

◇2차전전적

한국	010	022	000	5
일본	003	100	001	5

男농구 日선발에 역전승
韓·日 주니어종합경기開幕

제10회韓日주니어종합경기대회가 서울운동장을비롯한 경기장에서 4일 개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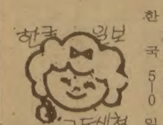
첫날 남자농구경기서한국대표 光州高는 日本선발팀에 81—78로 역전승했으며 여자부에서는 日本선발이한국의 善一女高에 72—70으로 승리했다.

럭비서는 日本오오사까工大부속고팀이 仁川機工을 25—6으로 격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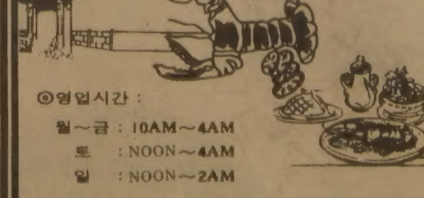
◇첫날전적

▲남자농구 광주고 81—78 일본선발 ▲여자농구 일본선발 72—70 선일여고 ▲럭비 일본선발 25—6 인천기공 ▲여자핸드볼 동방여고 19—13 일본선발 ▲남자연식정구 일본 3—2 대구농고 ▲여자연식정구 음성여고 3—1 일본 ▲남자배드민턴 한국 5—0 일본 ▲여자배드민턴 한국 5—0 일본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533—2361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10AM~4AM
토 : NOON~4AM
일 : NOON~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FINCH
LEON'S
MCLEVIN
SHEPPARD
MARKHAM
HWY. 401

맛사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Special Offer
WORLD BOOK
어린이를 위한 CHILD CRAFT

29,000이상의
사진·그림·지도및
챠트포함
22권 World Book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안의섭 時事 칼럼

허…처음으로 넘어져 보는가보다…

우리야 實名制가 돼도 그렇고…안돼도 그렇고…

신문에 안난 現場

찢어진 버스표 한장으로 시비가 붙어 19살짜리 전문대학생이 버스안내양의 따귀를 때렸다。안내양은 고막이 찢어졌고 대학생은 구속됐다。 또 21살짜리 버스안내양은 요금시비끝에 64살의 할머니를 승강대 밖으로 밀어 땅에 떨어뜨렸다。할머니는 크게 다쳐 누웠고 꽃같은 나이의 안내양은 철창으로 들어갔다。참을성 없고 양칼진 세태의 단면을 드러낸 사건이다。대학생쯤 됐으면 이유야 어쨌든 어린 안내양에게 주먹을 앞세우는걸 부끄러워 해야한다。또、바쁘고 고달픈 안내양 직업이라지만 『너는 어머니 아버지도 없느냐』는 욕을 먹을 정도가 돼선 안된다。이번주 「기자수첩」을 펼친다。

짝사랑이 강도로

▲서울서부경찰서는 사랑을 고백했으나 들어주지않자 강도로 돌변했던 金鍾彦씨(20·경기도양주군장흥면삼상리294)를 준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金씨는 지난 22일 새벽3시께 서울서대문구남가좌동 高모양(19·화장품외판원)이 잠자는 방에 몰래 들어가 高양을 깨운뒤 사랑을 고백했으나 놀란 高양이 응답을 하지않자 강도로 돌변、갖고 들어간 과도로 高양을 위협하고 손목시계 1개와 현금1천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金씨는 다음날인 23일 하오7시께 다방에서 만나자는 高양의 제의에 따라 약속장소에 나갔다가 대기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는데 『평소부터 짝사랑하던 高양에게 사랑의 다짐을 받으려고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 강도짓을 저질렀다』고 진술。

▲서울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시내버스 안내양을 때려 고막이 터지게한 D공업전문대1년 金모군(19)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金군은 지난 20일 아침6시50분께 옥성운수소속 시내버스를 타고가다 구로구시흥2동 종점에 이르러 차에서 내리다 안내원 유모양(18)이 버스회수권이 찢어졌다며 다른것으로 바꿔달라자 『아침부터 재수없게 군다』며 유양을 때려 왼쪽 고막이 터지게 했다는것。

金군은 전날밤 친구들과 밤을 새워 술을 마시고 돌아가다 회수권이 찢어진것 한장밖에 없었는데 안내양이 트집을 잡아 홧김에 한대 때린것이 큰 실수가 됐다고 후회。

▲서울성동경찰서는 술값을 내지 못하는 손님의 옷을 뒤져 시계、금반지등을 훔친 술집주인 徐愛子씨(37·여·서울 남가좌동241 그로리아주점)와 종업원 李모군(18)등 3명을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徐씨등은 지난22일 새벽1시께 자신의 술집에서 宋鍾煥씨(37·북가좌동115)가 맥주 3병、안주등 5천원어치의 술을마시고 돈이 없다고 하자 宋씨 몰래 옷을 뒤져 손목시계 3개、금반지 1개(3돈쭝)등 모두 32만5천원어치의 물품을 훔쳤다는 것이다。

줄넘기줄에 어린이숨져

▲지난달 22일 상오9시반께 서울동작구 사당4동305의39 金億基씨(34·인쇄업)집마당에서 金씨의 2남 相鎬군(4)이 빨랫줄에 걸려있던 줄넘기줄에 목이 감겨 숨져있는 것을 어머니 尹仁淑씨(34)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尹씨에 따르면 相鎬군은 이날 혼자 마당에서 놀다 2m 높이에 매놓은 나일론 빨랫줄에 양쪽 손잡이가 매어 늘어진 플래스틱 줄넘기 줄에 목이 걸려 숨져 있더라는것。

경찰은 일단 相鎬군이 담에 붙어있는 장독대계단에 올라가 놀다 떨어지면서 우연히 줄넘기줄에 목이 걸려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장독대 계단과 줄넘기 줄 사이의 거리가 50cm가량이나돼 목이 걸리기가 힘든 점등으로보아 타살가능성이 있지 않나보고 수사중이다。

▲서울남부경찰서는 안양교통소속 버스안내원 李順德양(21)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李양은 지난 22일 낮12시께 자신이 승차근무중인 서울5사6761호 시내버스(운전사 이상용·29)가 安養을 출발, 공단 5거리정류장 못미처 횡단보도상에서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승객 강명욱할머니(64·여·경기안양시안양5동597의207)를 승강대에서 밖으로 밀어 땅에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게한 혐의다。

<그림·權大雄>

사회복지회 代表가 남의땅 속여 가로채

아는사람에 사기

▲서울서부경찰서는 23일 洪光竣씨(40·서울 은평구갈현동505의16)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洪씨는 사단법인 장안사회복지회대표 이사로 근무하던 지난80년11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조인구씨(44·서울구로구개봉동340의7)에게 주인이 따로있는 서울서대문구연희동 산2의 임야4만평(싯가10억원)이 李모여인의 소유라고 속여 이땅을 사겠다는 조씨로부터 계약금조로 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洪씨는 또 같은해 12월에도 연희동산2의17 임야2천6백평(싯가 2억6천만원)이 사회복지회 땅인것처럼 속여 김동화씨(46·구로구 개봉동302의12)에게서 계약금조로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다。

쓰레기통 뒤져 잃은 현금 찾아준 청소부

▲대구수성구범어3동 담당 청소부 徐위석씨(39)는 지난23일 쓰레기하치장에서 현금50만원을 찾아내 주인 李남출씨(39·범어3동475의27)에게 돌려줘 화제。

徐씨는、지난18일 李씨가 은행에서 찾아온 돈을 집안 휴지통에 숨겨둔것을 가족들이 모르고 청소차에 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동안 범어3동 일대 쓰레기 하치장을 모조리 뒤져 끝내 돈뭉치를 찾아 냈다는것。

잃었던 돈을 되찾은 李씨는 徐씨에게 사례조로 1만원을 주려하자 徐씨는 『당연히 할일을 했을뿐』이라며 사양했다。

차치기한 대학생

▲서울강남경찰서는 洪성수씨(25·H대 4년·서울종로구인사동98)를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洪씨는 약물 중독자로서 약값마련을 위해 지난 9월27일밤11시50분께 서울용산구남영동106의4 주택가 골목길에서 서울4라4614호 포니승용차를 훔친후 이 차를 이용、지난11일하오1시께 동작구대방동 전철역 부근에서 길가던 30대여자의 현금6만원이 든 핸드백을 날치기한 것을 비롯、1주일동안 같은 방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40여만원상당의 금품을 날치기한 혐의다。

벼락맞아 못쓸 볏단 특효약이라며 高價로 사가…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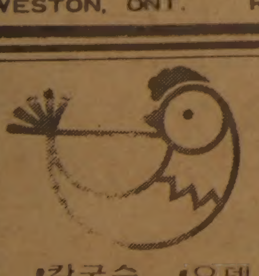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FLORIDA 2BD.RM. BUNGALOW $27,900
BUILDER'S SPECIAL OFFER $26,500 NOV. 15까지
NEAR CLEARWATER !!

-20% DOWN
-¼ ACRE LOT INCLUDED
-CENTRAL AIR & HEATING
-MASONRY CONSTRUCTION
-10 MIN. TO BEACH & GOLF
-1 HR. TO DISNEY WORLD
-MANY OTHER WORLD FAMOUS ATTRACTIONS NEARBY
-HOME INSPECTION TOUR AVAILABLE
RECOMMEND AS A PROPERTY INVESTMENT !
-RENTAL & MAINTENANCE PROGRAM AVAILABLE
-RENTAL INCOME OFFSETS MORTGAGE PAYMENT
FOR MORE DETAILS, PLEASE CONTACT ;
Tel 243-0522(To 2PM) 661-3124(After 2PM)
PETER YLEE, P.ENG(이영웅) BUK S. CHANG, P.ENG(장복성) KYU-YUL. CHO(조규열)
DONG-CHUN, KIM(김동천) YOUNG-WOON, AHN(안영운) YONG-CHUL, KWON(권용철)
SANG ROCK INC./SPRING WOOD PROPERTIES INC.
3461 Dixie Rd. Mississauga Suite 503

봉학농장

무 : $8.00
배추 : $5.00(60Lbs짜리 큰 박스)
총각무, 파, 시금치, 왜무
5개이상 주문시 배달합니다.
김장용·무·배추세일
농장 : 1-775-6256
시내 : 248-6389


내고향 통닭집
•칼국수 •오뎅 •통만두
☎537-0432
658½ BLOOR ST. W.

광고는 낭비가 아닙니다 내일을 위한 투자입니다
533-2361

「신문에 안난 現場」

생후 1년9개월 된 암소 하얀 새끼 순산

회칼 들고 유흥가 돌며 술먹고 금품 갈취

洪씨는 차량을 훔쳐 번호판을 떼후 범행을 해왔는데 22일밤10시께 강남구신사동29 앞길에서 새로운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순찰중인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걸려됐다.

▲벼락을 맞아 못쓰게된 볏단을 제값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서 화제.

전북진안군마령면 동촌리 원동촌마을 朴成鍾씨(35)는 지난19일상오11시께 탈곡을 하지않은 채 논바닥에 그대로 둔 2백다발의 볏단에 벼락이 떨어져 못 쓰게 돼버려 울상을 짓고있었다.

3일이 지난 22일상오9시께 이 소문을 들은 인근마을 모 암자의 승려인 黃모스님은 타다남은 볏단을 모두 정부수매가격으로 사겠다고 흥정해와 朴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모두 넘겨주기로 했다는것.

마을사람들은 벼락맞은 볼은 간질병에 특효인 뇌공초라고 부르는 속설때문에 볏단을 산것같다고 말하기도.

▲경기고양군일산읍일산10리705 李제훈씨(45)집의 생후1년9개월짜리 암소가 지난달 11일하오4시께 백송아지 1마리를 순산했다.

이 송아지는 몸전체가 순백색인데 몸무게45kg, 길이 1백cm, 키67cm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부업으로 한우2마리를 키우고 있는 李씨의 부인金善子씨(42)는 『어미소를 지난해4월 경기 이천장에서 45만원에 사다가 키워왔는데 인공수정은 지난해 12월에 했다』면서 기뻐서 싱글벙글.

▲서울관악경찰서는 崔英學씨(31·서울강남구방배1동839의4)를 공갈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崔씨는 지난 9월9일하오5시께 자신이 목판부장으로 근무했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306소재 국제 라미네스사 대표 池允鍾씨(32)를 찾아가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위협, 이튿날 2백만원을 뜯어간 혐의다.

崔씨는 지난해 9월1일부터 지난 8월31일까지 이 회사에 근무하다 회사대표 池씨가 지방근무를 명하자 앙심을 품고 경리사원 崔모양(21)을 꾀어 회사비밀 장부를 빼낸 뒤 이것을 池씨에게 보이며 『4천만원을 탈세한 기록이 있는데 8백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국세청에 알려 회사를 도산시키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이다.

지하철인부가 회사협박

▲서울시경은 유흥가를 무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온 吳在弘씨(30·폭력전과 4범·강남구 신사동546의3) 趙時濕씨(29·폭력전과 3범·전남 목포시 죽교동15)등 2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吳씨는 지난 78년 10월 자신을 두목, 趙씨를 부두목으로 하여 만보파란 칼잡이 폭력단을 조직한 후 지난9월8일 하오 7시께 서울강남구 서초동59 가로수살롱(주 柳淑子·35)에 들어가 주인 柳씨 앞에서 길이 30cm 가량의 생선회칼을 내보이고 40만원을 뜯은 것을 비롯, 지금까지 술집, 나이트클럽등을 무대로 금품을 갈취해온 혐의.

가로수 살롱주인은 이들에게 6회에 걸쳐 1백10만원을 뜯기고 2백10만원 상당의 술대접을 했으며 종로구운니동소재 봄살롱은 20만원, 강남구 논현동소재 삼정나이트클럽은 45만원을 뜯겼다고 한다. 吳를 두목으로한 「만보파」폭력단은 「전라도 양은이파」「명동 신상사파」와 어깨를 겨룰정도로 폭력세계에서는 악명이 높았다고 경찰관들도 혀를 내둘렀다.

▲서울성동경찰서는 전三煥企業소속 지하철공사현장 기능공 鄭三鳳씨(32·무직·서울은평구응암동243)를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鄭씨는 지난5월부터 서울중구장충동202 지하철3호선 324공구(시공자 삼환기업)에서 용접공으로 일해오다 지난5일 그만둔뒤 지난 16일하오4시께 장충동 지하철현장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소장 李廷仁씨(38)에게 『현금 3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부실공사내용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한것을 비롯 지금까지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협박전화를 건 혐의다.

金씨는 20일하오2시반께 서울종로구창신동 길다방에서 현장소장 李씨를 만나기로하고 다방에 나갔다가 출동한 경찰에 걸려됐다.

사건記者 수첩

공무원 출장길에 머리 둘달린 독사잡고

▲강원도원성군소초면장양리 영동고속도로 인터체인지옆 야산에서 원성군보건소직원 鄭雲培씨(32)가 머리가 2개인 길이 30cm의 독사를 사로잡아 화제.

鄭씨는 이날 관내출장중 이곳을 지나다가 길섶에서 독사를 발견, 깜짝 놀라 가까이 가보니 머리가 2개인 이 독사가 머리사이에 끼인 나무때문에 각기 다른방향으로 가려고 안간힘을 쓰다 지쳐 있음을 보고 쉽게 사로잡았다는것.

鄭씨가 이 희귀한 독사를 보건소에 가져오자 독사를 구경하려 몰리는 주민·직원들로 한때 법석이었다.

▲20일상오7시께 서울동대문구이문동 257의2 金차영씨(29·여)집 건넌방에 세든 金莫童노인(81)과 李福順할머니(77·여)등 노부부가 종류를 알수 없는 극약을 막걸리에 타 마시고 신음중인것을 옆방의 노순임씨(55·여)가 발견, 병원에 옮겼으나 부인 李씨는 숨지고 金씨는 중태다. 노씨등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자인 이들 노부부는 지난79년3월부터 40만원에 전세를 들어 살아왔는데, 경찰은 부인 李할머니가 오랫동안 신경통을 앓아왔으며 자식이 없는데다 평소 『우리는 같이 죽을것』이라고 말해왔다는 점으로 미뤄 동반자살을 기도한것으로 보고있다.

▲강원도고성경찰서는 고성군죽왕면문암1리2반 金永萬씨(21·전과1범)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트럭채훔쳐 팔다 덜컥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11일하오4시반께 속초시 영랑동8통1반앞 도로변에 세워져있던 이마을 康奉鉉씨(40)의 봉고트럭을 훔쳐타고 명주군주문진읍쪽으로 달아나다가 차에 실려있던 식기류를 길가 마을에서 팔다가 순찰중이던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부동산 미끼, 노인들 유인마취 반지때가

▲최근 충북음성군음성읍과 금왕읍등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사겠다고 접근, 노인들을 으슥한 곳으로 유인해 마취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실신시킨뒤 금품을 털어가는 새수법의 강도사건이 잇달아 일어나고있다.

지난21일낮12시40분께 충북음성군금왕읍무극리3구앞 하천변에서 李富昌씨(66·식당업)는 서울에서 왔다는 35세가량된 남자가 건네준 음료수를 마시고 실신, 만 29시간만인 이튿날 하오6시께 의식을 회복했는데 손가락에 끼고있던 9돈쭝짜리 금반지2개(싯가45만원)가 없어졌다는것.

이날 李노인은 35세가량된 남자1명이 찾아와 인근 崔良秀씨(44·음성군금왕읍무극리3구)소유 과수원을 사겠으니 소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청년과 함께 과수원으로 가던 길이었다.

또 지난11일 하오5시께 음성읍읍내리 뒷산에서 이마을 金吉洙씨(60·무직)가 35세가량된 남자1명과 함께 산을 오르던중 건네준 음료수를 마시고 실신, 5돈쭝짜리 금반지1개(싯가25만원상당)를 빼앗겼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말에 따라 동일범의 소행으로보고 1백70cm의 키에 얼굴이 둥근 35세가량의 범인을 수배했다.

<정리=黃升漢기자>

살림의 지혜

정원 越冬채비

…정원손질방법…: 정원의 월동채비를 서두를 때가 되었다. 더구나 올겨울은 추위가 예년보다 빨리 닥칠것이라는 기상대의 예보이고 보면 이제 가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다.

화분이나 정원수·꽃나무는 종류에 따라 알맞는 월동채비를 해줘야 내년에도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볼수있게 된다.

우선 일년생 화초는 씨앗을 받아두거나 구근(球根)을 캐어 보관하고, 꽃나무나 정원수에 입혀줄 짚옷을 준비해야겠다.

또한 화분에 심은 꽃나무는 떡잎을 떼어주고 잎과 화분을 깨끗이 닦아둔다. 구근캐기 화분관리에서 겨울철의 구근물실내재배요령등을 원예전문가들에게 들어본다.

…구근캐기…: 칸나·글라디올러스·달리아 등은 앞뿌리가 상하지 않게 캐낸뒤 그늘에서 2일~3일간 말린다.

칸나·달리아등은 모래나 톱밥, 또는 흙에 묻어 저장한다. 대체로 화분에 흙과 함께 담아 실내에 두면된다.

글라디올러스는 왕겨와함께 상자에 담아 건조보관한다.

구근은 비오는날 캐면 썩기 쉬우므로 맑은날 캐내야 한다.

…가을구근심기…: 튤립·수선화·히아신드·크로커스등은 가을에 파종해야 봄에 꽃을 볼수 있는 화초이다.

땅을판 뒤 잘썩은 닭똥이나 유기질비료를 준 다음에 심는다. 아네모네·크로커스같은 작은 구근은 원뿌리이 보이지않을 정도로만 흙을 덮고 튤립은 지하 10cm정도, 히아신드는 15cm, 백합은 20cm정도로 깊이 묻는다. 심은 것은 얼음이 녹으면서 싹이 올라와 3월중순 이나 하순이면 예쁜꽃을 볼수있다.

튤립·히아신드·수선등은 화분에 심으면 1월말께 싹이 올라와 2월에는 꽃을 볼수 있다. 화분은 지름15cm정도가 좋으며 구근을 심은뒤 1월말까지는 흙이 마르지않도록만 물을주며 밖에서 기른다. 1월말 이후 실내에 들여놓으면 싹이 나온다.

…화분관리…: 고무나무·몬스테라등 관엽식물은 온돌이나 난로를 피우는 마루방에 옮긴다.

옮기기 전에 잎과 화분을 물로 깨끗이 씻고 햇살이 드는 창가에 가마니쪽을 깐뒤 비닐을 덮어 그 위에 화분을 모아둔다.

물은 보름에 1회정도 주어 나무를 휴면시킨다.

또 선인장류는 섭씨 5도정도만 유지시켜주면 월동에 지장이 없다. 선인장류의 월동실패는 대부분이 수분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나는데, 선인장은 실내에 옮겨논뒤 내년 3월 밖에 내놓을 때까지 물을 주지 않아도 된다.

…꽃나무관리…: 벌레가 먹었거나 병든 가지를 잘라내고 가지의 모양을 다듬는다.

장미는 2~3개의 눈만 남기고 가지를 자르는것이 효과적.

장미·모과나무·목백일홍·철쭉·모란등은 추위에 약하므로 나무 밑부분의 흙을 북돋아주고 가지를 동그랗게 묶어 짚옷을 입힌다.

…구근물 실내재배…: 구근물을 실내에서 물재배하면 한겨울에도 꽃을 볼수 있다.

캐어낸 수선화·히아신드·크로커스등의 구근 몇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1주일정도 넣어둔다.

1주일후에 꺼내어 유리컵이나 병에 물을 붓고 담가두면 약1주일후에는 뿌리가 내린다.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유리부분을 은박지로 싸서 어두운 곳에 두면 뿌리가 병이나 컵안에 가득 차게 되는데 이때부터 물이 얼지 않을 정도의 찬 곳에 2~3주 두었다가 햇살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겨 놓으면 잎의 발육이 왕성해지면서 꽃봉오리가 나온다.

구근의 물재배는 지금부터 시작하는것이 좋다.

숨은그림 찾기

이율곡

이율곡선생과 그의 어머니 신사임당이라면 한국사람치고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또 모자의 이름이 나오면 누구나 강원도 강릉의 오죽헌을 연상하는것이 보통이다.

율곡은 7세부터 본격 글 공부에 몰두, 29세때 벼슬길에 나서 여러 직책을 거쳤다. 정치가로서의 율곡에게는 역사에 특기할 일이 두가지있다. 하나는 10만 군대를 양성하자는 주장이었고 둘째는 율곡이 생전에 무진애를 쓴 당파싸움을 말리는 일이었다.

율곡이 돌아간후 그의 제자 이윤우는 그의 성품을 봄바람에 비유하며 『어리석고 천없는 자들이라도 한번 선생의 안색을 보면 진심으로 흠모해서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하였다.

친모 사임당이 별세후 율곡의 계모는 신경질적이며 술을 잘 마시는 별난 여인이었다. 율곡의 봉급도 제멋대로 쓰고 율곡은 손도 못댔다.

그러나 율곡은 한번도 거역 없이 친어머니 모시듯 공손히 섬겼다.

이에 계모는 율곡의 정성에 감동되어 사람이 달라졌다. 그후 율곡이 세상을 뜨자 생전의 정성에 보답하고자 3년간 상복을 입었다고 전한다.

<작품중에서>

■숨은 그림

컵·은행잎·007가방·사발·소형버스·도장·워커구두한짝·버섯·편지봉투·고무신·옷걸이·펜치

구성·장태산

가족과 함께 두뇌 체조를

뉴스 낱말 풀이 퀴즈

<제30회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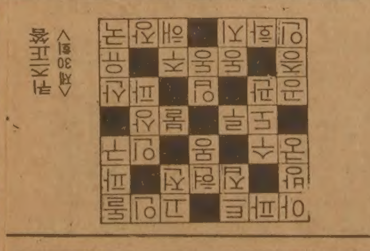
<힌트>

가로

1. 개포동에 투기꾼이…
3. 선사시대 巨石 기념물
5. 훈민정음을 창제 한곳
7. 활쏘는 군사
9. 곧 4천만이 된다
10. 金一權의 특기
11. 사찰마다…
12. 정부고관의 골적 저택
14. 빚잔치
16. 거르지 않은 막걸리
18. 感光紙
19. 새벽에 뜨끈뜨끈한…

■세로

1. 진시황이 지은 궁전
2. 공연히 조그마한 흠을 들추어 괴롭게 함
3. 옛날의 서적으로 후세에 남을만한 책
4. 막힌 것을 뚫는 실마리
6. 꿈에 나타남
8. 겨울엔 동파를 예방해야
9. 험악한 얼굴
12. 변호사가 겸할수 있는 또다른 직능
13. 11월 8일
15. 中東
16. 1년중 밤이 가장 긴 날
17. 본뜻을 풀이함



82년도 인벤토리 스페샬

KAWAI PIANO·ORGAN 대매출!

날로 교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서는 파격적인 염가로 교민 여러분께 다시 대매출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단기분할 판매실시 (3~6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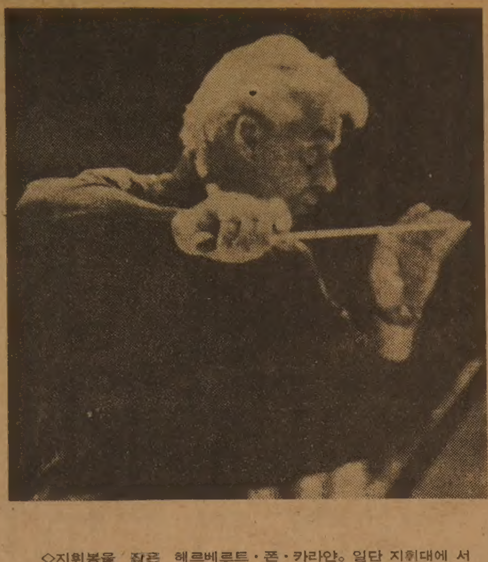
이 기회를 꼭!

⊙가와이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읍니다.
⊙가와이 피아노는 일본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가와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Upright 피아노를 생산합니다. (Anthony Liversidge 기고 "House &Garden"에서)
⊙가와이 Keyboard Centre 는 유일한 한국인의 딜러이며 항상 교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읍니다.

KAWAI KEYBOARD CENTRE
MARKHAM PLACE MALL (Don Mills & Steeles)
Tel: (416) 881-8230
9350 Yonge St. (Hillcrest Mall)
Tel: (416) 883-9407
President - LUCAS YUN 윤 호 섭
Sales Manager - ALLEN DUMA

入神의 경지에 이른「음악皇帝」

헤르베르트·폰·카라얀의 世界



◇지휘봉을 잡은 헤르베르트·폰·카라얀。일단 지휘대에 서면 그는 단원과 청중위에 군림하는 황제가 된다。

세계제일의 교향악단임을 자부하는 베를린 필하머니 오키스트러의 황제로 통하는 헤르베르트·폰·카라얀。皇帝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의 단원과 청중을 지휘봉 하나로 지배해 버린다。74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신의 경지에 들어선 카라얀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는 과연 그가 토스카니니나 푸르트뱅글러와 같은 전설적지휘자로 음악팬들에게 기억되느냐 하는 점이다。곡의 엄격한 해석과 박력있으면서도 고결한 하머니를 창조해낸 카라얀은 지워지지 않을 영원한 자취를 지휘자들에게 남길 것이다。다음은 근착 뉴스위크誌의 글을 발췌한 것이다。

이 이상 最高는 없다

베를린·필團員과 청중을 지휘봉으로 지배

曲엄격한 해석과 박력·고결한 하머니창조

"지휘자는 樂譜에 충실해야한다" 신념

◇금세기 최고의 지휘자

카라얀은 생존하고 있는 최고의 지휘자임을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

그는 음악의 신이 되기를 원할정도로 야심만만하다。카라얀의 이러한 야심을 말해주는 재미있는 조크가 있다。

흔히 세계4대 지휘자로 통하는 시카고 교향악단의 게오르그·숄티경과 보스턴 심포니의 오자와·세이지、레너드·번스타인 그리고 헤르베르트·폰·카라얀이 서로 자기가 세계제일이라고 다투고 있었다。

먼저 게오르그·숄티경이 입을 열었다。

『나는 음악의 공로로 영국 여왕에게서 작위를 받았소。』

오자와·세이지가 게오르그·숄티경의 말을 받았다。『무슨 소리、내 이름은 소니상표를 빼놓고는 가장 잘 알려진 일본 말이오。』레너드·번스타인이 질세라 끼어 들었다。

『작곡가로서도 이름을 떨친 지휘자가 이중에 있단 말이오。작곡가인 지휘자는 나밖에 없어요。날더러 미사곡을 작곡하라고 영감을 준 것은 바로 신이었소。』

잠자코 있던 카라얀이 이 말에 펄쩍 뛰었다。『뭐라고 신이 당신에게 미사곡을 작곡하라고 영감을 주었다고。나는 결코 그런 영감을 준 일이 없는데 어찌된 일이오。』

카라얀의 안하무인적인 오만한 성격과 지나친 자부심을 잘 말해주는 조크중 하나이다。

카라얀은 그의 단원들을 마치 배우는 학생처럼 다루고 그의 음악팬들에게 주인처럼 군림한다。

항상 단원들에게 완벽을 요구하고 청중들에게 군림하려드는 카라얀의 오만함과 지나친 자부심은 때때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차갑고 비정한 성격에다가 잔인한 야심가라는 비난도 종종 듣는다。

하지만 그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전혀 딴판이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카라얀의 모든 측면들이 음악과 예술에 대한 그의 지칠줄 모르는 정열과 완벽을 추구하는 그의 성품에서 비롯되고 있다는것이다。

음악에 있어서 완벽성을 추구 하는 카라얀의 고집에 가까운 주장은 너무나 유명하다。

『음악에 담긴 내용을 알기전에 먼저 정확한 연주부터 해야만한다。곡이 악보대로 해석되고 있는가、리듬은 정확한가、마치 현미경으로 사물을 들여다 보듯이 악보의 모든 음표나 기호 하나하나를 해부해야만 한다。그리고 나서야만이 당신은 음악에 담긴 깊은 정신을 음미할수있을 것이다。』

◇푸르트뱅글러와 토스카니니影響

카라얀은 19세기까지의 고전음악과 20세기의 현대음악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있는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고전파음악과 낭만파음악에 심취되어 있던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독일에서 활동했다。

카라얀이 살았던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베토벤과 브람스는 바로 신으로 통했고 브루노·발터와 푸르트뱅글러는 지상에 있는 신들의 대리자였다。카라얀은 면면히 내려오는 고전파음악과 낭만파음악의 진수를 몸소 체득했다。

특히 22년부터 베를린 필하머니의 종신지휘자로 있었던 푸르트뱅글러가 카라얀에 끼친 영향은 실로 막대했다。푸르트뱅글러의 신비주의적이고 영감에 호소하는 곡해석은 카라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카라얀은『푸르트뱅글러는 나에게 기적에 가까운 영향을 끼치곤했다』고 술회하고 있다。

푸르트뱅글러 말고 또 카라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은 이탈리아의 토스카니니이다。감정을 배제한 곡의 엄격한 해석을 앞장서서 주장하고 현대음악에 있어서 음을 새로 창조한 것으로 평가되고있는 토스카니니는『지휘자는 우선 악보에 충실해야한다』는 신념을 카라얀에게 심어 주었다。토스카니니는 균형과 박자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토스카니니는 지휘자는 무엇보다도 작곡자의 의도에 충실한것을 요구했다。그는『베토벤의 영웅교향곡은 나폴레옹적도 아니요、히틀러적도 아니요、뭇솔리니적도 아니다。그저 베토벤 영웅교향곡 알레그로·콘·브리오(생동감있게 빠르게)일 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곡의 해석에 있어서 엄격성을 요구했다。

카라얀은 푸르트뱅글러에게서 음악을 시적(詩的)으로 해석하는 독일 고전주의 음악의 전통을、토스카니니에게서 박자의 일관성및 리듬의 정확성과 악보를 완벽히 재현시켜야 한다는 현대음악의 엄격성을 각각 배운셈이다。

◇墺·獨음악 영향받아

오스트리아음악과 독일음악의 전통이 카라얀에게 끼친 영향은 그가 곡을 선택하는데서 잘 찾아볼수 있다。카라얀이 즐겨 연주하는 곡들은 베토벤과 브람스를 비롯하여 브루크너、말러、슈트라우스、바그너등의 장엄한 곡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카라얀은 토스카니니의 영향을 받아 곡의 엄격한 해석을 주장하면서도 푸르트뱅글러에게서는 오키스트러단원들에게 가장 많은 재량권을 주는 방법도 아울러 함께 배웠다。

카라얀은 지휘대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휘자중 한사람이다。그는 왼손을 허리아래로 낮추고서 음악의 내면적인 흐름을 동작은 작지만 우아하고 민첩하게 처리한다。

그는 그의 단원을 전폭적으로 신뢰할수 있도록 평소에 잘 훈련시켜 놓았다는 것을 말해준다。경우에 따라서는 눈을 감고 지휘하기도 한다。『나의 단원들은 왼쪽으로 갈까、오른쪽으로、갈까 생각할 필요가 없다。그저 내 지휘봉과 손만 따르면 된다。』카라얀의 자신에 찬 얘기다。

◇후기 낭만파에 뛰어나

흔히 카라얀은 위대한 음의 건축가라고도 불린다。특히 난해한 후기낭만파음악에 대한 그의 해석은 뛰어난 박력과 일관성있는 논리로 타 지휘자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항상 청중을 압도한다。그의 지휘는 정확함과 박력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어 청중은 물론 연주자마저 무아의 경지에 빠져들게 한다。『카라얀은 지휘대에 일단 서게되면 오키스트러와 청중을 마치 최면을 걸듯이 사로잡아 버린다。그는 흥분에 가까운 긴장감을 조성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베를린 필하머니 악단장 토머스·브란디스씨는 카라얀의 매력을 말해준다。

올해 73세…매일 1시간 운동하며 요가

연습장엔 늘 늦게 나타나 不請客있으면 당장 퇴장시켜

카라얀의 하루는 아침 6시의 기상과 함께 시작된다。기상하자마자 1시간가량 운동을 한 다음 바로 요가에 들어간다。요가는 카라얀에게 자신을 성찰할수 있을뿐 아니라 자신에게서 스스로를 해방시킬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일과중의 하나가 돼버렸다。그는 항상 연습장에 늦게 나타나기로 유명하다。모든 단원이 음조정을 끝내고 침묵속에서 그를 기다린다。『에헴』하는 기침소리와 함께 연습장의 문이 두쪽으로 갈라지면 모든 단원은 긴장한다。

레코드회사중역과 축제준비위원、사진사들、거친 수많은 음악도、경호원들에 둘러싸인채 황제는 무대위로 오른다。

무대위에 오르면 얼음처럼 차가운 푸른눈을 관중석으로 돌려 몰래 들어온 구경꾼이 없나를 우선 살핀뒤 있으면 당장퇴장이다。다시 뒤로 돌아『굿모닝、여러분』이라는 간단한 인사를 건넨후 바로 연습에 들어간다。연습도중 카라얀은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하지만 항상 분위기는 팽팽히 긴장된 상태다。카라얀이 푸르트뱅글러가 죽은뒤 베를린 필하머니를 맡은이래 계속되어온 분위기이다。『단원들의 성격과 내 성격을 함께 맞추는 기본자연만을 위해 20년이상을 쉬지않고 연습해왔다』고 카라얀은 말한다。『당신은 다른 악단에서는 결코 찾아볼수없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서 찾을수 있을것』이라 자신있게 말한다。

◇디스크판매량 최고

카라얀은 대작만도 2백80여곡이상을 레코딩했다。그의 디스크는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클래식 디스크일것이다。

어지간한 세계의 클래식팬이라면 그의 디스크 몇장쯤은 다 가지고있다。그의 사진및 이름이 세계 가정 깊숙이 파고든것이다。카라얀이 최근 베를린필하머니와함께 도이체·그라마폰(DGG)에 레코딩한 베토벤교향곡전집은 전세계에서 모두 6백만장이나 팔리는 공전의 기록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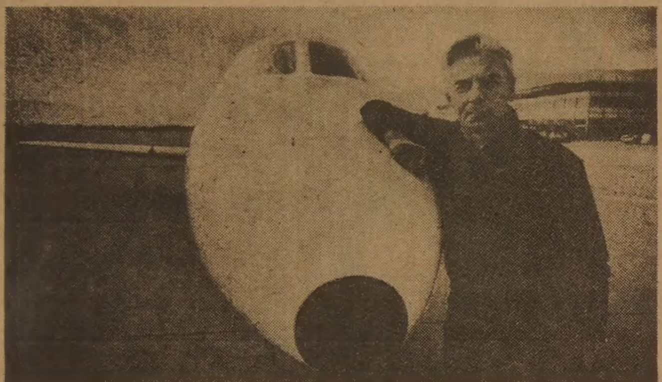
베토벤 교향곡 전집은 6백만장 賣盡기록

네곳에 호화저택…모델출신 세번째 부인과 살아

◇스포츠카를 탄 카라얀(右)과 세번째 부인 엘리에트여사와 함께 생모리츠에서 스키를 즐기는 카라얀。

카라얀은 잘츠부르크、빈등 4곳에 호화저택을 가지고 자가용 제트비행기를 손수 몰고다닌다。세번째 부인인 패션모델출신의 엘리에트여사와 함께 살고있다。

그는 차와 비행기를 거의 살인적인 속도로 몰고 다닌다。1초의 시간도 낭비할수 없기 때문일것이다。



◇자가용 제트비행기 옆에 선 카라얀。그는 1초라도 아끼기 위해 살인적 속도로 손수 비행기를 조종한다。

자가용 제트비행기와 車、시간 아끼기 위해 殺人的 속도내

나치에 협력하는등 출세위해 무슨일이든지

카라얀은 1908년 잘츠부르크의 문화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아버지는 외과의사이면서 아마추어 클라리네트 주자였다。카라얀의 어린시절은 그리 행복한게 아니었다。아버지와 어머니사이가 나빠 거의 별거상태였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유달리 경쟁심이 강했고 항상 남위에 군림하려 했다。그의 첫 경쟁상대는 형이었다。그는 그보다 한살반위인 형이 피아노 레슨을 받자 자신에게도 피아노 레슨을 시켜 달라 졸랐으나 거절당했다。형의 피아노 레슨을 커튼뒤에 숨어 몰래 배운 카라얀은 3개월이 지나자 형을 앞질러 피아노를 쳤고 네살때 개인 연주회를 가졌다。18살때 빈에 있는 기술학교에 입학했으나 곧 이를 팽개치고 음악을 택했다。그는 자신이 할일이 피아노연주가 아님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수 있었다。음악 이해에 뛰어난 재능은 음악교수들의 인정을 받았고 교수들은 그에게 지휘자의 길을 권했다。

20세때 잘츠부르크에서 한 조그만 오키스트러를 지휘、지휘자로 데뷔했다。마침 때 연주회장에 와있던 독일 울름주 국립극장 감독관의 눈에 들어 일자리를 구했다。울름주악단은 단원 22명으로 구성된 보잘것 없는 악단이었다。

카라얀은 하루 14시간이상 열심히 일했다。34년에는 독일 아헨주 오페라하우스의 지휘자가 되었다。가난했던 카라얀은 어려서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음악을 하는 많은 동료들을 봐왔다。그는 자신이 그들처럼 유복해지기 위해서는 일류지휘자가 되는길 밖에 없다는걸 뼈저리게 느끼면서 철저한 프로근성을 길렀다。그는 지휘자로서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가리지 않았다。심지어는 나치에 협력하는 것까지도。

카라얀은 나치에 협력한 덕분에 38년 베를린오페라하우스에서 베토벤의 피델리오와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공연、대성공을 거둘수 있었다。

◇요트를 즐기는 카라얀。그는 열렬한 스포츠광이다。한번 일에 몰두하면 순간순간을 응골차게 보내려는 그의 성품때문일게다。

그가 나치에 협력했다는 사실은 그뒤에 두고두고 그의 음악생명에 큰 장애가 되었다。그러나 푸르트뱅글러를 비롯한 많은 저명한 지휘자들이 나치와의 협력을 거부하며 음악활동을 중지한 공백기를 틈타 카라얀은 급성장할수 있었다。

나치는 푸르트뱅글러에 대항할 인물로 카라얀을 양성하려했다。그때부터 그는 푸르트뱅글러와 앙숙간이 되었다。

2차대전이 나치의 패배로 끝나자 나치에 협력했던 예술가들의 예술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았다。게다가 푸르트뱅글러는 카라얀에게는 뛰어넘을수없는 큰 장애였다。

54년 푸르트뱅글러는 죽었다。

푸르트뱅글러가 죽었을때 이탈리아에있던 카라얀은『왕(푸르트뱅글러)이 죽었다。새황제(카라얀) 만세』라는 전보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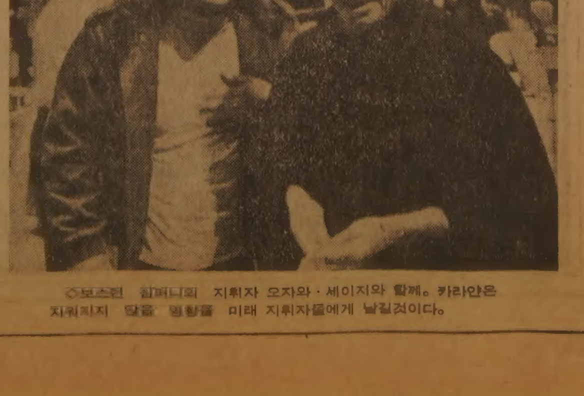
푸르트뱅글러가 죽자 카라얀에 대해 여러 악단의 제의가 쏟아져 들어왔다。

비엔나 오페라하우스의 지휘자가 된것은 카라얀의 오늘이 있게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카라얀은 푸르트뱅글러의뒤를 이어 베를린·필하머니의 종신지휘자가 되었고 오늘날에 와서 그와 베를린 필하머니는 한이름이 되어버렸다。

◇스포츠광 카라얀

카라얀은 스포츠광 특히 스키광이다。음악에서 음표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듯이 스포츠에도 한번 뛰어 들면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모든 순간을 응골차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의 성품 때문일게다。



◇보스턴 심포니의 지휘자 오자와·세이지와 함께。카라얀은 지워지지 않을 영향을 미래 지휘자들에게 남길것이다。

카라얀은 지난 75년에 생명이 걸린 결정적순간을 넘긴적이 있다。9시간에 걸친 척추디스크수술을 받았다。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전신마비상태였다。

카라얀은『나는 내 생명이 몇년밖에 남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다。그렇다고 내가 죽음을 두려워 하는것은 결코 아니다。나는 나의 재생을 굳게 믿고있다』고 냉담한 심정을 토로하곤 한다。

카라얀의 죽음은 세계가 한위대한 지휘자를 잃는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왜냐하면 카라얀은 독일고전주의의 마지막시기에 태어나서 시와 철학에 심취한 세계에서 교육을 받은 음악가로서는 최후의 전인적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는 부단히 자기완성을 추구하면서 폭넓은 도서를 섭렵했으며 논리학·심리학·철학등에서 최신 레코딩기술에 이르기까지 막히는데가 없는 음악가다。

◇젊은음악도 발굴 힘써

카라얀은 음악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데 재정적 후원을 하는가하면 젊은 음악도와 신인을 발굴하기위한 콩쿠르를 위해 예술재단을 설립하기도 했다。

단순히 한지휘자의 예술활동을 벗어난 폭넓고 다양한 활동이다。

카라얀은 촌자의 여유도 없이 빡빡한 스케줄속에도 대성의 자질이있는 신인성악가 및 연주가와의 음악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카라얀은 음악을 통해 현실을 초월하여 해탈의 경지에 들어간다。그가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면 그의 단원과 청중도 역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간다。

연주회가 끝나면 황홀한 침묵이 흐르고 곧이어 그의 단원과 청중은 지상으로 환속한다。박수갈채가 터져나오고 청중이 계단사이로 몰려나오고 무대에 화환이 쌓인다。

아직 해탈에서 안 깨어난 카라얀은 무대에 나와 오만하게 고개를 가볍게 끄덕거림으로써 이 열광에 간단히 답한다。

이런 행동을 몇번 되풀이해도 열광은 식을줄 모른다。

마침내 연주장내의 모든 불이 꺼진다。

청중들은 한번만이라도 카라얀을 더 보려고 어둠속에서 박수갈채를 보내며 무대주위를 서성거린다。

하지만 카라얀은 청중들의 열광을 뒤로 한채 이미 집으로 향하고 있다。

카라얀의 名盤들

폰·카라얀의 베토벤곡들(DG판)은 다른 작곡가들의 것을 압도하고 있으나 기타 작곡가들의 명반들은 다음과같다。

▲쇼스타코비치 교향곡10번 E단조 (DG판)

▲바그너 트리스탄과 이졸데 (에인절판)

▲비발디 4계 (DG판)

▲푸치니 나비부인 (미렐라·프레니, 루치아노· 파바로티, 비엔나필·런던판)

▲브람스 교향곡2번 D장조 (DG판)

▲베르디 팔스타프 (주세페·타데이·비엔나국립오페라합창단·비엔나필·필립스판)

▲슈트라우스 죽음과 顯聖容 4개의 마지막노래 (군둘라·야노비츠·DG판)

▲브루크너 교향곡8번 C단조 (DG판)

구독신청
월~토
☎
533－2361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가을 이야기>

불면증 환자 많다。

김선형 (토일문우회)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민 병 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HE'S ON THE PHONE

전화를 받고있는 경우에는 on the phone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또한 on the line도 같은 뜻이다. 장거리전화 long distance call을 하며 개인대 개인통화 (원하는 상대가 나와야 돈을 지불함) person to person call을 하는 경우도 상대자 party가 나오면 교환이 「상대자가 나왔으니 통화하시오」 Go ahead. Your party is on the line. 이라고 한다.
지금은 다른 전화를 받고 있다는 경우는 He's on another line. 이라는 표현을 해도 같은뜻.

A : Good morning, Mr. Kelly's office
B : May I speak with him, please?
A : I'm sorry, he's on the phone. May I ask who's calling?
B : This is Mrs. Grey.
A : Mrs. Grey, may I have him call you?
B : Yes, thank you. He has my number.
A : 안녕하세요. 미스터 켈리 사무실입니다.
B : 켈리씨 좀 바꿔주시겠어요?
A : 죄송합니다만 지금 전화받고계십니다. 누구신가요?
B : 미세스 그레이예요.
A : 미세스 그레이, 켈리씨한테 전화드리라고 할까요?
B : 네, 감사합니다. 그분이 제 번호를 알고 계십니다.
A : Good morning, sir.
B : Good morning. May I see Mr. Tate, please? I have a two o'clock appointment with him.
A : Mr. Tate is on the phone. He'll be with you in a minute.
B : Thank you.
A : Would you care for a cup of coffee while you're waiting?
B : No, thank you.
A : 안녕하십니까?
B : 안녕하십니까? 테이트씨 좀 만나 뵐까요? 그 분과는 2시에 약속이 되어있읍니다.
A : 테이트씨는 지금 전화 받고 계십니다. 곧 만나뵐 수 있을 거예요.
B : 감사합니다.
A : 기다리시는 동안 코피 한잔 드시겠어요?
B : 아뇨. 감사합니다.
A : Hello. May I speak to Mr. Johnson, please?
B : I'm sorry, but he's on the phone. Will you hold?
A : That's OK. I'll call again later.
B : May I ask who's calling?
A : It's a personal call again later.
B : OK.
A : 여보세요. 잔슨씨 좀 부탁합니다.
B : 미안합니다만 지금 통화중이신데 기다리시겠읍니까?
A : 괜찮읍니다. 나중에 전화 다시 하죠.
B : 누구신가요?
A : 개인적인 전화예요. 다시 나중에 전화 하겠어요.
B : 오케이.

on the phone : 전화에 나와있다. 전화를 받고 있다.
speak with : ~와 통화하다.
Who's calling? 누구시죠?
Will you hold? 기다리시겠어요? will you wait? 같은 뜻이다.
personal call : 개인적인 용무의 전화. 전언이 있는가를 묻는 경우는 May I take a message? 혹은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라고 한다.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312) 966-4050
책: 제1권(12불), 제2권, (12불), 제3권(12불)

人肉市場

스물세살의 자서전

金洪信 作
崔然石 畵

98

連載 소설

정말 오랜만에 거나하다는 표현이 어울리게 술을 마시고 무교동 바닥에 나섰다. 절룩거리는 명식이와 팔짱을 꼈다. 명식이는 자꾸 혼자 걸으려고 했다.

『다 뎀벼라아, 이 서울 새끼들아아! 몽땅 뎀벼라아!』

명식이가 두 팔을 휘저으며 악을 쓰고 있었다. 유난히 심하게 절룩거리는 명식이의 발걸음과 취해서 목청이 흔들리는 소리가 그렇게 우스꽝스러울 수 없었다.

『다, 뎀비란 말이다아! 잘난 놈들 다 뎀비란 말이다아!』

명식이의 울부짖음같은 목청이 골목을 쩌렁쩌렁 울리게 했다. 사람들이 명식이를 흘끔거리며 쳐다보았다. 합격증 원본을 어머니 무덤속에 넣어주고 새로 발급받은 합격증을 가슴에 달고 카퍼레이드라도 벌이고싶어하는 내석의 응어리진 소리가 밤늦은 무교동 하늘로 울려 퍼졌다.

『잘난놈들 있으면 다 뎀벼라아! 이 서울놈들아아!』

나도 명식이처럼 목청을 높였다. 명식이가 싱긋 웃고 더 큰 소리로 떠들었다.

지난 줄거리

『나 고등고시 붙었다』는 명식의 전화 한통으로 출석이의 기쁨은 극에 달한다. 신문 발표 때 이름이 있었지만 여러날 소식이 없어서 불편이인데 명식이가 자살했을 거라고 불안해 했었다. 두 사람은 무교동에서 진탕 취하며 진짜 법관이 어떤 것인가를 논한다. 그리고 명식이는 신종 정신대같은 일본과 한국 조직의 여자 장사군에 얽힌 사연을 털어 놓았다.

서울놈들 다 뎀벼라아!
잘난놈들 다 뎀벼라아!
못뎀벼도 벼엉신이다아!
이 쪼다 병신 천치 쭉쟁이들아아!
뎀벼라아!

명식이와 나는 무교동 골목을 누비며 소리를 질렀다.

앞에서 술 취해 어깨동무를 한 열명 가까운 젊은애들이 명식이의 말을 받았다.

우리도 니미랄 거, 동감이다아!
다 뎀벼라아!
잘난놈들 뎀벼라아!
서울놈들 다 뎀벼라아!

우리는 가릴 것 없이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무교동 바닥을 휘저었다. 명식이가 절룩거리며 목이 쉬도록 악을 쓰고 있었다.

한 두 사람이면 시빗거리가 되었겠지만 워낙 우리들 숫자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길을 피해주기만 했다.

술을 사랑하는 놈은 여기여기 붙어라.
서울놈들 뎀벼라아!
잘난놈들 뎀벼라아!
못난놈은 여기여기 붙어라!
안붙는 놈은 쪼다다아!

명식이가 날뛰듯 악을 썼다. 어깨동무한 젊은이들이 모두 명식이처럼 악을 썼다. 술 취한 젊은이들이 두어 팀 더 붙어서 골목마다 소리를 지르며 휘젓고 다녔다.

이것이 젊은이들의 특성인지도 모른다. 아무 조건없이 끼어들어 어깨동무를 한 채 악을 쓰는 어른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달랐다. 질없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모여질 수 있었다.

누가 신고를 했는지 모른다. 골목 저쪽에서 경찰제복을 입은 사람이 뛰어오고 있었다. 명식이는 아랑곳 없이 악을 바락바락 쓰고 있었다.

『경찰이다.』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쳤다. 어깨동무 했던 애들이 모두 도망가 버렸다. 명식이와 나만 멍그라니 남아 있었다. 경찰봉을 든 경찰관 뒤엔 방범대원도 여러명이 따라오고 있었다.

서울놈들 다 뎀벼라아!
잘난놈들 다 뎀벼라아!

명식이와 나는 길바닥에 서서 떠악쓰며 소리를 질렀다.

『아저씨들, 한잔 했읍니다. 기분 좋아서 말입니다.』

내가 바짝 다가선 경찰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방범대원들 손에도 경찰봉이 쥐어져 있었다.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내려칠 기세였다.

『뭐야? 왜 떠들어!』

『놓고 말로 합시다.』

경찰관이 대뜸 내 멱살을 잡았다. 명식이가 절룩거리며 경찰관을 잡았다. 경찰관과 방범대원들은 무조전 멱살을 움켜 쥐었다.

『말로 하자니까 그래요. 기분좋아서 한잔했다. 이겁니다. 그건 잘못 아니잖아요?』

『왜 떠들어?』

『기분좋으니까 좀 떠들었다. 이겁니다.』

저 친구가 수석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겁니다

우리는 한참동안 밀고 당기는 씨름판을 벌였다. 내가 워낙 드세게 밀어대니까 끌고 가진 못했다. 경찰관이 뭐라고 떠들자 방범대원들이 경찰봉을 빼들었다.

『잠깐 참아요.』

나는 소리를 높이고 명식이의 윗주머니에서 사법고시 합격통지서와 신문 오린걸 내밀었다.

『저 새끼가 사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했다. 이겁니다. 수석합격말요. 신문에 났잖아요. 물론 절룩거린다는 말은 일부러 안썼지만 말요. 그래서 역경을 딛고 사법고시 수석으로 합격한 내 친구를 위해 한잔 했다. 이겁니다. 저 새끼 평생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렇게 떠든다. 이 말입니다.』

나는 명식이를 수석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해주었다. 그게 빨리 먹힐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그렇지, 왜 시끄럽게 굴어?』

태도가 약이 누그러진 듯한 말투였다. 나는 경찰관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아저씨, 저 새끼 오늘 떠들고나면 앞으로 평생 떠들지 않을 놈예요. 떠들 틈도 없잖아요. 명색이 판사·검사 영감이 어떻게 떠들어요. 오늘만 떠들게 냅두쇼.』

『서까지 갑시다.』

방범대원이 막무가내로 우리를 잡아 끌었다.

『그만 떠들고 갈 수 있어?』

경찰관이 나지막하게 물었다.

『한번 상의를 해보구요.』

나는 돌아서서 명식이 한테 물었다.

『임마, 그만 떠들 수 있니? 용서해 줄 수 있다는데.』

명식이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눈치였다.

『이봐, 데리고 갈 거지?』

경찰관이 내게 다시 물었다. 나는 그런 경찰관에게 갑자기 호감이 생겼다.

『저 내석을 강제로라도 끌고 가겠읍니다. 적어도 아저씨가 안보이는 곳까지는 끌고 가겠읍니다. 저 자식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절룩거리잖아요. 저 자식이 고등고시 수석합격했단 말입니다. 똥구멍이 째지게 배고픈 놈이 사법고시 패스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가라는거 아닌가. 어서!』

『이게 노력해서 안되는 거지만 한번 해보죠. 저 자식은 상의해가며 해야 할 놈입니다.』

나는 명식이 귓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다.

『임마, 파출소까지 가볼래? 아니면 품위를 지켜 볼래.』

명식이는 정신이 좀 돌았는지 내 귓속에다 이렇게 말했다.

『넌 어쩔래?』

『네가 하자는대로 하겠다.』

『니기미, 나도 너 따라 하려고 했는데 어쩌자는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소리 지르고 가자.』

『거 좋네.』

『잠깐 기다려.』

나는 경찰관에게 다가갔다.

『빨리 데리고 가라. 내 말 들어. 어서! 무슨 한짓이 없어서 이러는 거야? 어서!』

경찰관은 달래는 투였다. 나는 경찰관을 끌고 가로등 불빛 있는 데까지 갔다.

『아저씨, 소원 하나 들어 주십쇼.』

『뭔데?』

『저 자식, 정말 가엾고 불쌍한놈입니다. 그런 자식이 고등고시 수석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소원은, 경찰관 아저씨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욕 한번만 하게 해 주십쇼. 그러면 찍 소리 없이 돌아가겠읍니다. 정말입니다.』

『나 원 참암…』

『저 새끼가 훌륭한 법관 될 수 있도록 한번만 봐주십쇼.』

『…』

경찰관은 난처한 듯 웃었다.

『이렇게 경찰관이 마음이 넓다는 걸 보여주면 저 새끼가 진짜로 훌륭한 법관 될 겁니다. 모르는 채 하고 가세요. 그럼 딱 한번만 욕을 하고 감쪽같이 사라질 겁니다.』

『차암…』

『고맙습니다.』

나는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경찰관이 방범대원들에게 뭐라고 손을 흔드는게 보였다.

『허락 받았다. 시작하자.』

『조오치.』

『임마, 세상에 욕하는 것도 허락받고 하는거 내 생전에 처음이다.』

『다 네 덕인줄 알아라.』

『이렇게 고맙다.』

『우리는 범하도 아니냐. 적어도 경찰관 입회 아래 욕을 하는 정도의 법질서를 존중해야한다.』

『꼭 맞았다.』

『그럼 시작이다.』

우리들은 두 손을 모았다. 행인들이 우리들의 엉뚱한 표정과 멀찌기 서 있는 경찰관 일행을 번갈아가며 쳐다 보았다.

아까 도망갔던 젊은 애들도 그런 행인 속에 끼여 있었다.

서울놈들 다 뎀벼라아!
잘난놈들 다 뎀벼라아!

목청껏 소리 지르고 돌아섰다. 사람들이 웃었다. 그러나 경찰관은 웃지 않았다.

『아저씨, 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새끼 훌륭한 법관 될 겁니다.』

우리는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다. 문이 열리자 명식이가 뒤로 돌아 거수경례를 붙였다.

『아저씨, 존경하겠슈. 오래오래 살아야 합니다.』

명식이는 구르듯 택시를 잡다.

『어디 갈래?』

『네 합격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총각봉합수술이나 하러 가자.』

『무슨 소리냐?』

『설악산에서 총각딱지 떼었으니까 오늘은 그걸 찾자 이거다.』

『어디 가서?』

『이쁜 새시끼고 자면서 잃어버린 총각딱지 하나 줍자 이거다. 이새끼 귀먹었니?』

네 합격 축하하는 뜻에 총각봉합수술이나 하러 가자

『지랄말고 나 아무데서나 자버려 뭐라.』

『가자면 가 임마.』

운전사가 뒤를 흘끗 쳐다보고 문었다.

『어디로 갑니까?』

『그냥 가십시다. 가시고 싶은 대로 말입니다. 적당한데서 내릴테니까.』

『그럽시다.』

택시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었다. 명식이가 내 손을 잡았다.

『나, 아무데서나 그냥 잔단다.』

『이게 왜 오늘따라 촌닭처럼 이러지? 합격축하하신은 해얄거아냐.』

『난 못해.』

『왜?』

『유리…유리하고 약속했으니까.』

『무슨 약속이냐? 이것들 놓아나고있네.』

『입으로 한 약속이 아니라 마음으로 했다. 난 그럴수 없어. 합격자 발표 나던 날 유리는 성신 마리아상 앞에서 밤새 기다렸을 거야. 난 어머니 시신 앞에서 빌었지. 용서해 달라고. 유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 내가 고등고시 패스하니까 잊어버린 거라고 말이다. 난 그렇게 나쁜새끼 아니다. 유린 알 거야. 날 원망하지도 않을거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그리고 넌 다혜씨가 있잖아. 난 그런 짓 못해.』

『너도, 웃길 때가 다 있구나.』

『웃기는 게 하나. 그냥 그러고 싶어.』

『알았다. 그럼 우리집에 가자.』

『좋아.』

우리는 운전사에게 방향을 얘기해주고 침묵을 지켰다. 택시는 늦은밤 길을 쏜살같이 달렸다.

『나, 만원만 줘라.』

명식이가 손을 내밀었다.

『뭐달라는 거야, 달라는 거야?』

『그냥 줘.』

나는 지갑에서 만원짜리 한장을 꺼내 주었다. 내석은 가게로 뛰어가 장봉을 사들었다.

『누나한테 이걸로 우선 뻥진한단다.』

『임마, 내가 체면 차리면 강아지가 웃는다.』

『옷을 입도 없는데, 강아지라도 웃기자.』

우리는 대문 앞에 서서 나란히 오줌을 갈기고 큰소리로 합창을 했다.

누나! 사랑해! 진짜진짜 사랑해! 문을 안따줘도 사랑한 거고, 따주면 더 사랑할 거야!

『이 새끼 사법고시 쳐먹었대.』

누나가 문을 열자마자 내가 소리쳤다.

『축하한다. 정말…』

누나도 감격스러운 모양이었다. 명식이의 손을 꼬옥 잡아주었다. 명식이 내석이 온주 누나를 꼬옥 끌어 안았다.

『누나, 정말 고마워. 내가 온혜 갚을께. 잊지 않는단 말야.』

명식이가 껴안은대로 내버려 둔채 온주 누나는 명식이의 등을 토닥거려 주었다.

『이 새끼야, 임자 없다고 막 껴안으면 네 덕을 까부술 거야.』

『다혜씨만 안껴안으면 되잖아.』

『임마, 난 다 안돼.』

『알았다.』

우리는 문간에 서서 키득거리며 웃었다. 이렇게 오붓하게 만난것도 오래되었다. 밤 늦도록 온주 누나와 우리는 맥주를 마셨다. 온주 누나도 제 취하도록 마셨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리였다. 축하해 줄 사람도 없는 명식이한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술을 마셔주는 일 뿐이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녀석에게 사람이 사람을 재판하는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간의 길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죽음이 눈앞에 있더라도, 어떠한 유혹의 손길이 달려들더라도 양심을 전 법조인이 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포악한 죄인이라도 사람이란걸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실패한 법조인이라도 좋습니다. 사람같은 사람, 사람같은 법조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에게 다리를 주세요. 육체는 비록 절룩거리지만 정상인보다 몇천배 강인한 마음의 다리를 주어 버티게 해주세요.

아침에 뒷산 약수터를 오르는 명식이의 어깨는 조금 처진 것 같았다. 어제밤의 당당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았다.

『어깨 펴라.』

내가 내석의 등을 때렸다.

『날이 밝으면 왠지 세상이 무렵다. 내가 병신이란 걸 실감한단 말야.』

『넌 정신마저 절룩거릴래? 그럴 바에야 아에 지금부터 다 포기해라. 그게 네 인생을 위해 좋아.』

나는 모지락스러운 말을 해주었다.

『미안하다.』

명식이가 꺼칠한 얼굴에 겸연쩍은 웃음을 담고 대꾸했다.

『넌 혼자가 아니다. 우리들이 있어. 그리고 절코 다리병신도 아니다. 넌 해냈잖아. 그리고 지금 나보다 빨리 산을 타고 있어. 절룩거리다는 건 누구라도 언제나 그럴 수 있는 거다. 만약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봐. 사회에서 어떻게 취급 당하든 넌 정상인보다 더 잘 견디는 놈이어야 한다. 넌 우리의 희망이니까.』

『해내겠다. 정말 해내겠다. 두고봐라. 내가 절코 주저앉진 않을 거디까.』

명식이는 뒤뚱거리며 산을 타고있었다.

먼저 약수터까지 뛰어간 명식이가 물을 꿀꺽거리며 마셨다. 햇살이 밝았다.

『넌 오늘부터 그 쩌지나 좀 해결해 봐라.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비참하잖아. 사람들이 이렇게인수록 경찰의 힘을 빌어야 하는데 사회에 알려져 창피 당할까봐 숨기고 있어. 물론 이해가 안되는건 아니지만 그냥 놔두면 이쁜 처녀들이 자꾸 팔아넘겨 질거란말야.』

『내가 찾아볼께. 잘난 여자들이 여학교 돌아다니면서 정신대 나가지 않으면 황국신민 될 자격이 없다고 지주던 그 치사한 시대의 잔재 아니겠니? 돈 몇푼 벌려고 이 땅의 처녀들을 눈속여 일본의 매춘굴에 팔아넘기는 놈들이 득시글거린다면 제이의 정신대라고 할수 있겠지.』

『아뭏든 실수하면 안된다. 뿌리를 뽑아야 돼. 어디 팔아 먹을 데가 없어서 쪽발이 놈들한테 여자를 팔아 먹는지 모르겠다.』

명식이는 몇번이고 신판 정신대같은 이 사건을 꼭 해결하라고 졸랐다.

『내가 꼭 해낼께.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자식들을 잡아내겠다.』

명식이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나는 웃으며 손가락을 걸어주었다. 보통 조직은 아니겠지만 난 끝까지 캐낼 결심이었다. 일본까지 쫓아가 끝장을 볼 작정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씰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a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식　　당

아리랑식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구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리아하우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국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일요일(오후4시부터) 쇼핑은 25불 할인받는 삼복식품으로 오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발식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울식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정희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양　장　점

샘터의상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일여행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미여행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볼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학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광고문의 533－236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산,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무소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구함.
전화 : 368-2819 Mr. 왕

◉Dish Washer구함. 점심시간: 월-금 11:30am-2:30pm
◉경험있는 요리사 구함. 저녁시간 4pm-11pm, 주6일
114 Laird Dr. 전화: 421-6016(오후 2:30이후)

비데오머신가게 메니저 구함.
남·녀 불문. 아침11시~저녁11시
전화: 821-4791, 638-0713

스토아 여자 파타임 캐쉬어 구함
다운타운 지역.
전화: 488-1634

경험있는 남자 헬퍼 구함.
다운타운 지역, 풀타임.
전화 : 598-2546

용모단정하고 경험있는 스토아 헬퍼 구함.
풀타임 혹은 주말(Jarvice & Bloor)
전화 : 922-4135

〈급구〉 Pizza 집에서 Cash와 Order 받을
영어에 능통한 여자분 구함
전화: 267-2292(Mr. 문)

경험있는 여자 또는 남자 캐쉬어 구함.
시간: 오후4시-밤11시까지. 풀타임 가능.
전화: 625-1620(미시사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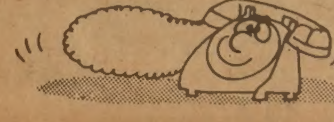
◉남자 헬퍼 구함: 오후3시-밤11시(주 6일)
◉여자 캐쉬어 구함: 토·일요일
전화 : 921-0624

입주하셔서 두 아기 봐주실분 구함.
(5살, 1살)
전화 : 447-1460

도너스 가게서 일할 파트타임 여학생 구함.
다운타운 소재.
전화 : 222-3877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 동반자 구함. ★본인은 컴퓨터 전문가, 신사, 캐나다 시민권자, Scandinavia 태생, 독신자, 참되고, 교육받고, 유머가 있으며, 세련되고 진실된 한국여성을 만나고 싶읍니다. 25세-34세정도, 친구나 결혼할 용의가 있으신 분, 영어로 문의바 . BOX 833, Station K. Tor. Ont. M4P 2H2

기　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A.L.	862-8250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윈치 & 베더스트) 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 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매　매

재봉틀 Simpson's 나무책상포함 ◉$195.00
Good-Condition.
전화: 767-1702 김(오후6시 이후)

조그만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Lottario 머신있음. 아스킹: $15,000+스탁
전화 : 266-5715

형편상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9시 문닫음)
주매상: $4,000 렌트: $450 로타리오와 비데오머신에서
$1,000수입　7050 Air Port Rd.(at Derry Rd.)

당구장 매매 함.
비데오 머신들과 스넥바 있음. 좋은 Plaza내.
전화: 531-9216(오후5시-밤12시) GEORGE

잘 꾸며진 레스토랑 매매. Yonge & St.Clair
200좌석. 좋은 리스, 빌딩과 붙었음.
전화 : 924-1435 Jim or Louis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몬트리얼시내 영어지역.
(Plaza 내 2,200Sq.Fit.)　주매상: $10,000(81년도 세무보고 $468,650) 렌트: $780. 5년+5년. 영업시간: 주60시간(일요일 닫음) 시간연장 가능함. ◉백인한주인이 18년간 운영해온 안정된 가게임.아스킹: $59,000 +스탁(4만) 캐시다운: $55,000 잔액: 10%모기지. (514)691-4751, 691-3704

Dry Cleaning Depot Store for Sale.(Lawrence & Allen Express)
Plaza 안에 있음. 12 Flemington Rd.
전화: 759-8658(R), 781-6774(B)

우체국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3,000, 아스킹: $15,000+스탁. ★우체국이 있으므로 이민자나 시민권자에 한함. ◉전화: 691-5297 Mr. Gilbert.

자동차 매매. ▲'73 PONTIAC PARISIENNE. 350 Auto.
쌍 마후라, Power Handle, P.B. P.W. 에어콘, 76000마일, Excel Con 여자운전. CEPT. $1,850. ◉전화: 241-6392

◉선물용 Gift Shop 쇼우 케이스(4ft.) 5개
◉중간 유리 Shelving 3개
전화 : 656-0867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200-$3,500
좋은 조건으로 양도하겠음. 관심있으신분 직접 내방바람.
272 Jane St. (at Bloor)

그로서리 Store 매매. (이층은 살림집)
년매상: $200,000. 가격: $95,000 (일요일 휴점)
모개지: $30,000 at 8¾%. 연락처: 519-327-8368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아파트 달린것)
Mr. Jones 전화 : 889-8654
W.R. CASE REALTY LTD.

버라이어티·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Bloor & Indian Rd.
전화 : 535-6838

● Smoke & Gift shop
주6일 open 주매상 6,500~7,000
리스 1990년 렌트 1,100(2층아파트 포함)
● Coffee & Snack shop　Shopping mall내
6일(open) 주매상 10,000　리스 4년+5년 Option.
● 드라이 크리닝　다운타운 고급주택가에 위치함.
주매상 3,000불 렌트 1,000불 리스 9년
도넛스　주 9,000불 리스 15년
A.E. LE PAGE Real Estate　전화: 741-9170 Mrs. 우.

비데오 아케이드 매매
아스킹: $20,000 리스: 4년+3년
전화 : 691-8337

세탁소 매매(pick-up) Almar Cleaners
640 Rogers Rd.(at two block west of Keele)
전화 : 653-6335, 598-4327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몬트리얼 지역
주매상: $12,000 렌트: $750 아스킹: $120,000+스탁
전화 : (514)366-8393 Mr. Plante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셋방(1층 Flat)-1Bedroom Apt. 다운타운지역
차고·세탁기·히팅등 포함 월 $430
독신자 또는 부부. Christie×Dupont(532-9581)

방세놓습니다. Victoria Pk. & Finch코너
여자분에 한함.
전화 : 497-4221 Mr. 김

콘도미니움 For Rent or Sale(3 Bed Rm.)
12월1일부터 입주가능. Victoria Pk. & Danforth(써브웨이 건너편)
◉렌트: 월$700(관리비 포함) ◉Sale: $64,000. 전화: 694-4812

3층 건물 렌트합니다.
Bathurst & Queen
음식 장만하게 만들어 졌음.
부엌, 대형 냉동기, 냉장기, 스토브, 씽크.
3층은 살림할수 있게 되어있음.
전화 : 364-1629(오전 9시-오후 5시)

집 매 매

4 Bed Rm.(Double Garage)
몰개지 : 11¾%.
장소: Morning side & Lawrence Ave. E.
(Mall 근처)
가격: $189,000
전화: 497-7272(B)·281-0672(R) Melwood.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충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안)
각종 파티·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성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케네디 꽃집
○각종 Arrangement, ○Plant, 화환.
○주문배달, ○꽃도산매.
2196, 2252-4 Bloor St. W.
전화: 762-1572, 762-9854 김웅일.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138-0628(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필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서)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RALPH M. LEVINE B.A.(Barrister and Solic 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광고문의 533-2361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 279-7774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촬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선 물 센 타

비·세븐 선물센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거북이 선물센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